

노동자의 눈 2

다시,
노동해방의
깃발로
스물고
우뚝 서기
위하여

박윤배 지음

새길



박 윤 배

1957년 서울 출생

1976년 신진공고 졸업

1981 - 87년 주안, 구로지역에서 노동운동

1988년 이후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동맹) 활동

1990년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 2년 6개월 선고, 항소 계류중

현재 춘천교도소 복역중

저 서 : 『새로운 상황 새로운 준비』(백두 : 1989)

『대기업 --- 노동조합과 파업』(신평론 : 1990)

노동자의 눈 2

다시,
노동해방의
기발로
수발로
우뚝 서기
위하여

박윤배 지음

새길

박 윤 배

- 1957년 서울 출생
- 1976년 신진공고 졸업
- 1981년 주안공단에서 노동조합 결성, 해고
- 1982년 구로공단에서 노동조합 결성, 해고
- 1985년 인천 대우중공업에서 임금인상투쟁, 해고
'노동운동 탄압 저지 투쟁위원회' 활동으로 구속
- 1988년 이후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삼민동맹) 활동
-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2년 6월 선고, 항소 계류중.
제3회 전태일문학상 생활글 부문에서 우수작 당선
- 현재 춘천교도소 복역중
- 저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준비
—— 공장노조와 노동자투쟁」(백두: 1989),
「대기업 —— 노동조합과 파업」(신평론: 1990)

■ 삽화: 정보환

노동자의 눈 2

다시, 노동해방의 깃발로 우뚝 서기 위하여

초판인쇄 · 1991년 7월 10일

초판발행 · 1991년 7월 20일

지 은 이 · 박 윤 배

펴 낸 이 · 김 형 관

펴 낸 곳 · 도서출판 새길

주 소 · 서울 마포구 망원동 485-10(3층)

전 화 · 324-5280(영업부), 324-5279(편집부)

338-3593(팩시밀리)

등 록 · 서울시 제12-366호(1990. 1. 9)

값 3,500 원

착취자와 억압자에게는
징역의 방망이 앞에서
한치의 흔들림없는 골리앗이 되고 싶으나,
오늘도 잔업·특근·철야에 시달리면서도
투쟁과 조직의 소중한 실천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노동형제들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 가슴으로
스며들고 싶다.

착취자에게는 골리앗으로, 노동형제들에게는 여린 가슴으로

맑스, 엥겔스, 레닌에 의해 하나의 과학으로 수립된 사회주의가 실제 사회에 적용된 지 약 70여 년, 그동안 인류의 약 1/3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회주의를 선택하여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왔다. 그리고 여전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상당 수의 노동자·민중·진보적 지식인이 그 사회주의 사상을 앞으로에 대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 일부와 노동자 일부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한반도 남단에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인 모습으로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회주의 '대동요'의 속보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다. 태어나기도 전에 사망전같이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순순히 물러설 수가 없다. 무엇이 죽었으며 사망원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사회주의 자체의 죽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모질고도

비정한 착취와 억압에 한없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사멸과 실패·위기를 열렬히 떠들고 알리는 모든 이들에게, 제발 대한민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군화발소리와 노동자·민중의 신음소리가 어우러지는 '자본주의가'를 경청하며 좀더 차분한 심정으로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누가 뭐라 해도 현 사회주의권의 대동요가 자본주의의 착취체제의 우월성을 알리는 소식일 수는 없다. 사촌이 땅을 사서 패가망신했을 때 행복감을 느꼈다면 그건 이쪽의 악덕 탓이지 결코 사촌 탓이 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양자의 감정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과학적 연관관계도 없다.

그 어떤 경우라 해도 우리 한국의 노동자는 자기 자신의 처지 위에서 남의 사정변화를 관찰한다. 최악의 경우 소련 사회주의에 망쫓가 든다

해도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노동해방 진군을 멈추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망쪼의 원인분석은 항상 현실의 고통을 투쟁으로 헤쳐나가는 선상에 위치지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멈칫대는 것은 두뇌 안의 작용이지, 현실의 거대한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문제의 위상은 아니다. 이는 사회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우위의 시대에 그 영향으로 인해 한국 노동운동의 근본 판도가 좌지우지되었던 바가 없었다는 점과도 동일한 이치이다. 그것은 항상 외적 조건, 외적 영향을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딱 그만큼 적극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동의어로 사용한다. 또한 우리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동요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교정하는 숯들작용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는 오류를 덮어두고 해괴망측한 정통과

를 자처하지 않는다. 맑스가 인류진보의 역사를 가장 충실하게 흡수해내는 전제 위에서 그 자신의 혁명적 사상을 탄생시켰듯이, 우리 역시 맑스와 레닌의 것을 영원불멸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주의 70년의 역사는 그 재해석과 재적용의 원리를 생산해낼 것을 지금 시기 모든 진보적 투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 떠올랐다. 사상과 혁명의 불균등발전이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한반도 남단의 노동자계급 상태는 그야말로 각별한 것이었다.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성숙·성장해나오기도 전에 빨갱이귀신이 한반도 남단 전체를 검은 구름으로 뒤덮고 있었다. 무수한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기도 전에 빨갱이로 몰렸다. 자격 없는 빨갱이가 단지 정권안보와 착취질서 편성을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준수 요구에 빨갱이 딱지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붙여지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빨갱이 중에 남아 있는 사회주의자는 이제 거의 없다. 이것만 봐도 함람미달의 빨갱이 날조가 얼마나 드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남한 사회주의자 탄생의 역사는 구로연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로는 한두 번의 숫돌작용(서노련 와해와 주체사상 비판)을 통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스스로없이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밝히는 조직과 개인들이다.

사회주의자는 스스로를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운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와 똑같이 스스로가 사회주의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당연한 사명감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우리의 검거와 그에 따른 재판을 통해 이 두 가지의 덕목을 실천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주된 관심사, 우리의 실천, 우리의 사상 모두에 걸쳐 핵심적인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다수 계급인 노동자계급의 해방임을 입증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노동자·민

중이 겪고 있는 현실의 모든 아픔을 떠나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다. 검찰의 악의적인 공소장에는 우리의 사상과 노동자·민중의 현실적 고통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그것은 한낱 사기극에 불과하다.

우리는 아직 성숙되고 세련되지 못한 사회주의자들일 뿐이며, 진실로 성숙되고 세련되어 있는 것은 독점재벌과 군사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과 착취·수탈행위이다.

우리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상속된 조건 위에서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가장 주시해왔으며 그 해방을 모색해왔다.

노동자·민중의 고통과 빈곤을 끊어내는 것 없이 사회주의자의 승리란 없다.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없이 사회주의의 희망이란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민중 자신의 투쟁 없이 그 어떤 인간해방도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자들이 우리 사회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주의자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한많은 자본주의 위계질서에 짓눌려 있는 풀다구 노동자 신세도 억울한 판에, 새로운 사회 건설의 대열 위에서조차 '사회주의자급', '선진노동자급' 따로 있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착취자와 억압자에게는 징역의 방망이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없는 골리앗이 되고 싶으나, 오늘도 잔업·특근·철야에 시달리면서도 투쟁과 조직의 소중한 실천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노동형제들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 가슴으로 스며들고 싶다.

1990년 10월

독자들에게

이 책은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의 한 성원으로 활동한 노동운동가 박운배씨의 글을 모은 것이다. 그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 책의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필자가 구속되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출신 동지가 어떻게 사회주의자로 훈련되어가는지를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쓰게 된,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수기이다.

제2부는 90년 여름 서울구치소에서의 사건 및 투쟁을 기록한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제3부는 수형기간을 노동자의 무기인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학습으로 채울 것을 계획하고, 그에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4부는 우리 사회의 제반 현실에 대해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본

글 몇편을 담고 있다. 이제는 주변의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노동자의 입으로 말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듣는다.

끝으로 제5부는 그 자신이 '전공분야'라고 일컬은 대공장사업과 노동운동의 쟁점들에 대하여 쓴 글들이다.

여기에는 구속되기 이전인 1989년초부터 수감중인 1991년 6월초까지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문학예술운동』, 『현실과 과학』 등에 실린 글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글들을 모았다. 글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으나 주제별로 묶어 배치하였으며, 글마다 말미에 서술시기를 밝혀두었다. 제2부의 「광란의 폭력만행」과 제5부의 「노해에게」에서 (……)로 표시된 곳은 원고가 편집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실된 부분이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한 선진노동자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켜보고, 그 미래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를 바란다.

1991년 여름
편집부

다시, 노동해방의 깃발로 우뚝 서기 위하여

차례

머리글·	
작취자에게는 골리앗으로, 노동형제들에게는 어린 가슴으로	5
독자들에게 / 편집부	12
제1부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	17
제2부 너희는 우리의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였다	45
8·15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	47
평란의 폭력만행——교도관들은 누구의 뒤를 좇으려 하는가	63
지금의 우리야말로 하나입니다	72
민가협 어머니와 부인 동지들께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75
교도관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79
“위(직)장 폐쇄 철회하라!”	84
우리(구속자)는 흥정대상이 아니다	88
방이 4개	91
제3부 징역의 겨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95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 —— 변증법적 유물론 학습	97
「자본론」 수필·1	101
「자본론」 수필·2	108
법무부 국비장학생	117
가방끈이 짧은 것은 수치도 자랑도 아니다	125
징역은 노동자에게 도서관이요 대학입니다	130

- 지난 10개월을 회상하며 앞날을 · 132
 정역의 거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 143
 특별일여가치, 독점과 경쟁, 통계 문제
 — 정성진 교수의 글을 읽고 · 149
 언젠가 저는 하나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153

제4부 **이제는 노동자의 눈으로 ! 이제는 노동자의 입으로 !!** ————— 157

-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들 · 159
 판사와 노동자 · 172
 1990년 12월 4일의 사형집행 · 176
 노동자는 국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 179
 노동운동가의 아내는 천사여야 하는가 · 183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 187
 환자와 신자 · 191
 공상과 이상 · 200
 '밀가루 총리'와 민중의 정치력 · 211

제5부 **노동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 215

- 노동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 217
 낙엽, 너는 아느냐!
 — 「90년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답하며 · 222
 대우조선 노동자투쟁이 남긴 것 · 232
 한 동료노동자에게
 — 진정한 노동해방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 · 236
 노해에게 · 243

제1부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

좌편향과 우편향을 넘어서*

노동운동 이전에

내가 노동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군대 내에서부터이다. 공장생활은 공고 기계과를 나온 이후 줄곧 계속되었지만 그러한 공장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독한 열등의식과 방탕한 생활밖에 없었다.

그 당시 나의 꿈은 조그만 마찌꼬바(소규모 공업사)라도 하나 차려서 사장이 되고, 그것을 점점 더 키워 결국에는 벤츠라도 타고다닐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노동운동에 눈을 뜨고 군대를 제대해서 나름대로 노동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당분간은 버릴 수 없었던 꿈이기도 하였다.

* 「문학예술운동」(풀빛 : 1989), 제3집, pp. 223-44.

나는 그 당시(공고 졸업 직후부터) 그러한 꿈조차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다. 본격적인 공장생활 이전부터, 즉 예비노동자 단계인 공업고등학교 시절부터 줄곧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왔었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 허황된 꿈이 그 열등의식을 메워왔던 것이다.

사람들은 우릴 보고 공돌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조차도 교복을 벗기 전까지는 노동자를 공돌이라고 비하하며 비웃었다. 그것은 아마도 '비록 나만은 공돌이가 되지 않겠다'라는 자기 약속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100년 전 저 멀리 독일의 맑스가 예언한 바대로 우리의 그러한 희망사항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 나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공장의 노동자가 되었다.

공돌이.

우리는 본격적인 공장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 공장생활은 열아홉 한창의 젊은 노동자로 하여금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자부심이나 긍지도 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공장생활이란, 노동이란, 죽지 못해 하는 일일 뿐 그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었다. 그때가 1976년. 그 당시의 나는 희망이 절벽인 상태에서 무미건조한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으며 실낱 같은 꿈인 부자가 되는 계획에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공장생활이 완전히 무의미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고를 나오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 약 2년간의 공장생활을 통해 몇 가지 습득한 것들이 있었다. 노동자에 대한 말도 안되는 비인간적 공장환경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각을 키웠으며, 차후에 노동운동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까지 나 자신의 특기이자 밥줄이요 자부심이 된 선반기술을 익힐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노동운동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이자 그 이후로

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지탱해준 힘이였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장래의 힘을 축적해가던 중 나는 1977년말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

노동운동을 하면서

군대는 내 인생의 방향을 '좌향앞으로 갓'으로 규정하였다. 우익의 보루인 군대에서 줄곧 왼쪽으로만 가줄 것을 설득(의식화) 당한, 참으로 기묘한 경우를 맞본 셈이었다.

우리 부대엔 군 입대 전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입대한 친구가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나하고 한 내무반에서 제대할 때까지 같이 근무했으며 또 한 명은 같은 부대 다른 내무반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생면부지의 두 친구를(처음엔 전혀 모르는) 졸병으로 둔 나는 그 졸병들 덕택에 참인생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었던 행운아였다.

나는 그때 부대에서 그 친구를 못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가끔 생각해보면서 그야말로 아찔한 생각에 젖어들기도 한다. 물론 어차피 노동자일 바에야 공장생활을 하다보면 또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노동운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나라 천만 노동자 중에 노동운동하는 동지들의 비율을 보면 그것은 이만저만한 행운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계급으로도 위이며 짬밥으로도 위인 윗사람을, 그것도 개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나를 근 3년간을 헌신적으로 의식화시켜주었던, 그 당시 내 졸병이자 지금의 동지인 학생운동 출신 친구와의 관계는 의식화 서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환시대의 논리』,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등이 기억에 확실히 남는 책들이다.

나는 그때부터 소위 정치문제에 대해 눈을 떴다. 물론 거기에는 공장

생활의 경험에서부터 형성된 내 성격 본래의 비판적 시각이 한 측면을 차지하기도 했었지만 대학생 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까지 가세하여 정치적 비판의식은 가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형적인 정치의식의 문제점은 제대 직후 약 일년여 기간 동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데 일조하게 된다.

그 당시의 현실 정치판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리고 나 자신을 묶어두고 있던 군대생활과, 제대 직후 한 공장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거리가 멀었으며 그 연결성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생활이란 아주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주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몇 가지 정치소식은 공장 동료들과의 열 시간이야기보다 훨씬 흥미진진했으며, 굳게 다진 보안 약속은 아랑곳 없이 왈가왈부하는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좀이 쑤실 지경이었다. 동료 노동자들과의 약속은 어겨도 내 군대 친구(나의 지도선종 되는)와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지켰던 시절이 바로 노동운동 초기의 1981년이였다.

그러나 그러한 기형적인 공장생활과 왜곡된 노동운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거둬되는 임금체불로 동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고 점점 더 책임 있는 일들이 맡겨지면서 나는 한 사람의 진솔한 '그냥 노동자'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임금체불에 반대하는 투쟁 도중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러다가 해고되고, 다시 다른 공장에 취업해 또 싸우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해고되고, 그 다음엔 우리나라 굴지의 대공장에 들어가 2년만에 다시 싸우다가 해고되고, 그리고는 일련의 정치투쟁조직 사건으로 구속되고 석방된 것이 나의 외형적인 운동경력이다.

나는 이제 지금부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동안의 노동운동 경험 중 외형적인 경험 말고 그러한 투쟁과 해고와 구속 과정중에 겪었던 마음의 갈등과 고통, 그리고 그 극복의 노력 등에 대해서

쓰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갈등과 비판, 그리고 그 극복의 노력 등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아니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한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노동자이다.

지금부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미리 밝혀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지 않고 글을 쓰게 된다면 혹시라도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일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글에서 일관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참된 삶, 참된 의식의 기준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그리고 대부분의 동지들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 시점, 이 자리를 빌어 굳이 사용하는 것은 그 무슨 소영웅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그리고 혁명적 민중운동권의 질적·양적인 성장은 사회주의 사상의 실질적인 내용성들을 대단히 많이 객관화시켰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노동해방, 자본가와의 투쟁, 국가권력과의 투쟁의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농민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는 바로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서 이제는 사회변혁의 문제가 적어도 투쟁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적 투사들에게만 폭탄선언과 같은 충격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고 확신한다. 물론 사회변혁의 문제가 어느 장소, 어느 대상에게나 자유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그리고 정열적으로 거론되어야만 한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우리 선진적 노동자투사 동지들은 이제 사회주의 사상의 진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신 스스로가 역사의 개척자, 노동자·민중의 해방자로서의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한때 일류대학의 대학생들을 동경하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사회주의자야말로 진실로 동경할 가치가 있으며 존경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한평생 투쟁하며 고민하고 연구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의 가치를 지닌, 참으로 인간적이며 신성한 삶의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나도 한때는 노총위원장이 내가 나아갈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계획은 수정되었다(우리 노동자가 진정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을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며, 또한 노동자부대의 맨 앞에는 혁명의 이론으로 무장되고 혁명의 정열로 불타오르는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전위부대인 사회주의자 조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출신과 학생출신

노동운동을 하다보면 노동자출신과 학생출신과의 문제는 걸핏하면 한번씩 등장한다. 다같이 얼어터지고 싸우다가 해고됐는데 누구는 위장취업자이고 누구는 위장취업자에게 조종이나 된 결다리 취급을 받는 것에서부터, 해고되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유치장에서 잡새들한테까지 불평등 대우를 받는 데까지, 노동자출신으로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겪는 서러움과 열등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번은 해고자들끼리 투쟁하다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데, 아 이 경찰새끼가 고분고분하게 조사를 받는 학생출신한테는 “자네는 이제 이런 식의 투쟁,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어?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행동해야지 이게 뭐냐?” 하면서도, 계속 소리지르며 반말하지 말라고 대드는 나한테는 “주집떨지 말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이새끼야”라고

하는 경우를 당한 적도 있다. 기가 막히고 기가 죽는 경우였다.

아 어쩌다가 공부할 수 없어서 노동자가 되었고, 턱도 없이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실을 개조하려고 투쟁하는데 학벌없이 투쟁한다고 경찰새끼 마저도 차별대우하고 깔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팍 죽는 일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면서 우리 노동자투사들의 의지를 꺾어내리고 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이미 노동운동에 발을 들여놓은 지 10여 년이 된 지금에도 “니가 대학이라도 나와서 이러면 이해를 해, 그런데 니가 뭐야? 나이가 서른이 넘는 놈이 그래 주변머리 없이 주위에서 꼬드긴다고 조종이나 당하냐?” 라고 하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학생출신들에게 조종이나 당하고 있는 것이 허턱이며 먹고사는 것보다 더욱 마음이 아프신 것 같다. 오죽이나 못났으면 나이 서른이 넘어서도 조종이나 당할까를 생각하면, 내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부아가 치밀고 신경질이 나고 한탄스러울 것이다.

물론 부모님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질책에 으레 따라다니던 말, ‘낫 들고 설쳐대다가 세상이 다시 흘랑 뒤집어지면서 닥쳐왔던 떼개죽음’, 죽창, 낫, 쇠스랑을 들었던 민중의 대의는 한번도 제자리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몸으로 살아온 부모님들의 눈엔 학생출신과 노동자출신의 문제는 꼬임과 배후조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 사회풍조의 하나인 학벌에 의한 차별대우를, 자본주의 자체의 수호자인 경찰이나 우리 부모님과 같은 분들에게 받게 되는 것은 사실상 나의 의지를 별반 장애하지 못했다. 경찰이나 법이나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인식은 궁극적으로야 우리의 대의가 이 땅에 확고히 서는 날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에도 바른길을 가고 있다

는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나의 말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 어디서 조금 주워둬고 설쳐대는 것'으로 우습게 여겨지는 데 대해서 참지 못하고 대들기도 하면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 자신 성숙해지면서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 위에 부모님이 신뢰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처음과 같이 막무가내로 튕겨져나가는 일은 점점 사라졌다.

오히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바로 노동자출신 운동가와 학생출신 운동가 사이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서로의 발전, 그리고 하나로 발전(조직적으로)에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되어왔다.

나는 우리 노동자출신의 진실된 운동가로서의 발전과, 대중적인 지도자로서 대중에 대한 책임의 올바른 완수를 위해서라도 '이론적 교양'의 습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 이론적 교양의 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의 노동운동관을 가지고 실천해나가던 중 '내가 이론적으로 너무 비었구나', '이론이 약해서 운동이 안되겠구나', '사회주의 이론이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노동운동의 참된 이론이구나'라는 판단에 이르는 과정과 그 내실화를 기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출신 동지들의 많은 충고와 비판과 협조가 없이는 모두 불가능했던 일들이었다. 나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학생출신 동지들의 존재란 정치적 의식과 이론적 교양에 대한 자극이었으며 교사이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이론적·정치적 교사로서의 인정이 곧 노동운동 전반에 대한 일방적인 교사와 학생으로서의 관계의 인정을 의미하진 않았다. 나는 학생출신 동지들의 관념성과 소부르조아적 정서와 생활태도에 대한 비판을 항상 공공연하고도 서슴없이 행하였다. 물론

그러한 나의 행동이 모두 다 정당한 행동이었으며 올바른 비판이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노동운동권 내부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전혀 올바른 갈등이라 할 수 없는 '학출과 노출' 식의 갈등을 내용적인 문제의 올바른 지점으로 이동시켜내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학출과 노출' 식의 갈등은 항상 논의나 논쟁이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발생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 위에서 올바른 방향을 세워내려는 노력 없이 머리속의 지식으로 사실을 재단해 버리는 것이 학출의 경향성이라면, 노력하여 결론을 끄집어내기 전에 '학출은……'이라는 식으로 배척해버리는 것이 노출의 경향성이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서로의 문제점들은 상대방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또 가장 잘 지적해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좋은 예이자 경험을 한 가지 얘기해보자.

하도 오래된 경험이라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번은 그 당시 노동운동의 한 문제를 가지고 학생출신 동지와 열띤 논쟁을 벌인 때가 있었다. 그도 의견이 있었으며 나도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와 나는 장시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이견을 좁힐 수 없었다. 그런데 논쟁이 거의 끝나무리되어갈 때쯤 느닷없이 그 친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너 『자본론』이나 읽어보고 그러냐?”

물론 내가 노동자출신이라서 그런지 이와 비슷한 경험은 그 이후에도 몇번 더 있었다.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도 갑자기 ‘너 공부좀 더 해야겠다’는 식으로.

나는 이런 경우를 당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으며 또한 그 두 생각에 따라 행동하였다. 『자본론』을 실제로 읽기 위해서 주변의 친한 친구(그 또한 학출이다)를 찾는 일과 무언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삭여내는

일이었다.

나는 우리 노동자출신 동지들이 자신의 선진적인 경험과 투쟁을 합법칙적인 이론과 원칙의 눈으로 파악하고 더욱 근본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전진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과학적 이론의 학습이 요구된다고 자각해왔으며 또 그러한 확신을 가져왔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일정한 정도의 학습량이 쌓인 지금이나 그리고 그때의 생각으로도, 노동운동상에서 노동자출신의 문제가 학습부족의 문제로 치환되는 것은 분명코 반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지식인 동지들의 노동자에 대한 횡포이고 노동자의 계급성을 부인하는 처사이며 선진적 노동자에 대한 모욕적 인사라고 생각한다.

선진적 노동자는 그 자신의 계급투쟁 경험을 통해 나름의 주장이 있으며 이는 일정하게나마 계급투쟁이론의 합법칙성을 좇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 당시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나의 주제성과 자신감의 힘은 그러한 확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령 학습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의 투쟁경험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데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책을 많이 본다 해도 그러한 경험과 그 경험상태에서의 의식이 전면 부정되지는 않는 법인데, 논쟁 자체가 성립이 잘 안되는 별도의 주제라면 모르겠으되 기껏 장시간의 논쟁을 같이 벌여놓고 '너는 노동자출신이니까 공부나 좀 더 해라' 한다면 과연 누가 정말 공부를 더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는가.

그것은 공부 많이 한 너희들과 공부 못한 우리와의 차이, 즉 논의의 지점은 비록 학습량의 차이는 있다손 치더라도 분명 의견 차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학출과 노출 간의 문제라는 잘못된 지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사려깊은 자라면 논의의 과정중에 노동자출신 동지의 학습부재를 발견했다 하여도 논의가 갈리는 지점을 일단 의견 차이로

마무리한 다음, 그의 학습에 협조하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출과 노출' 식의 불건전한 갈등은 노동자출신 동지들의 경험주의적 고립과 열등의식에 의해서도 확대·심화되고 있다. 나는 우리 노동자 동지들과 같이 있을 때 또는 학생출신 동지들과 다같이 있을 때 노동자 동지들의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불만 표시를 자주 보아왔다.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 '비현실적인 원칙이다', '먹고살기 걱정없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 등등을 비롯해서 '자꾸 가르치려고만 그러냐', '자기네들끼리 따로 노는 게 많다'는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론 나 자신도 예전엔 학생출신 동지들에게서 소외감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성격 탓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는 온 힘을 다해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싸웠는데 원칙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게 될 때가 가장 괴로웠다. 그것도 평소에 아는 원칙이나 이론이었다면 모르겠으되 전혀 거론되지도 않았던 근거들에 의해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은 곧 비난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운동 안하면 그만 아냐 개새끼들아!'라는 심정으로 가득차기도 했다. 나는 무엇보다도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어떤 형태의 불평등이 느껴질 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았으며, 그 내용에 관계 없이 말하기 좋은 '학생출신 새끼들은……'이라며 자기 위안을 삼기도 했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가를 이 자리를 빌어 예를 한 가지 들겠다.

약 1년간의 공장활동의 결과 드디어 파업투쟁이 조직되고 노조까지 결성되었으나 그 여파가 나한테 집중되면서 해고된 후, 열흘도 안돼서 또 다른 공장에 취직했는데 이놈의 공장이 말이 공장이지 지옥 바로 아랫동네인지라 이틀인가 출근하고 그냥 관둬버린 적이 있다. 이를 놓고 나의 (존경하는) 학생출신 동지는 그 정도를 못 견디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겠다고 그러나는 식의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마침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길로 뛰쳐나가 울고 자책하며 실의에 빠진 나는 그길로 한강까지 가 난간을 붙잡았다. 그러나 정작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니까 사람의 심정이란 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자책감이 들기보다는 일방적인 비판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쳐들었다.

‘내가 얼마나 공장생활을 잘해왔는데, 다른 비판이라면 몰라도 도저히 억울하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감정에 복받친 한강행이었을 뿐 자책감과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슴에 묻은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나만은 진실을 안다.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과도했음을.’ 나는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 비판이 과도했음을(결국엔 잘못된 비판) 앞세우며 나 자신의 문제점까지를 덤터기 씌워 ‘학생출신놈들은…’ 식으로 되는 것을 나는 무던히도 경계해왔으며 그렇게 유치해지는 것, 결국엔 무식해지는 것, 마냥 피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 나는 분명히 반대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추스려왔으며 주장해왔다.

나는 노동자출신 동지들의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지적 중에 상당한 부분의 지적들이 정당한 지적이며 학생출신 동지들이 이를 받아들여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선배는 형이고 공장 선배는 홍길동씨, 논의의 주제와 참석자를 불문하고 사용되는 관념적 언사와 관념적 원칙, 아마추어적 비밀활동으로 인한 명백한 분파적 모습,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기형적인 해결방식과 관념적인 원칙론 등등의 문제점들은 결국에 끊임없이 학출·노출 식의 갈등만 초래할 뿐 지식인의 장점과 선진적 노동자의 장점이 서로 결합해나아가야 할 진솔한 사회주의자로서의 발전을 자꾸 더디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우 불건전한 학출·노출 식의 갈등은 학생출신 동지들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가 진실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회주의 사회라면, 그리고 그 핵심적 경로가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면, 그래서 선진적 노동자의 진정한 사명이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의 건설이라면,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라면, 우리 선진적 노동자에게는 지식인 동지들과의 결합이, 과학적 이론의 습득이, 정치조직의 일원이 되는 것 등이 필수적인 대전제로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노동운동하겠다고, 노동해방투쟁에 복무하겠다고 활동하는 우리 노동운동권의, 우리 혁명운동권의 지식인출신 동지들에게 학술·노출 식의 선을 그어 놓는 것은 이러한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동안 학생출신 동지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노동자출신 동지들의 별도의 모임이나 회합을 줄곧 반대해왔다. 우리 노동운동권이 갈라설 때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그러한 갈라섬이 각 입장의 계급적 차별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나는 굳게 믿기 때문이었다. 심한 말로 노동자 내부에도 이견은 있는 것이며 지식인 내부에도 동지는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왔던 것이다.

지식인출신 동지들과 우리 노동자출신 동지 간의 불평등은 지식인출신 동지들의 실천적 경험의 부족에도 있는 것이며, 노동자출신 동지의 이론적 부족에도 있다고 나는 생각해왔다. 예를 들자면 학생출신 동지와 토론중에 모르는 용어나 개념들, 그리고 해석이 안되는 근거들이 나올 때면 즉석에서 물어보았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무슨 말을 했는지는 꼭 알고 넘어가려 했었다. 일단 무슨 뜻인지 알고난 다음에 반대를 해도 반대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으며, 한쪽에선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얘기를 중단하라는 식의 유식과 무식으로 갈라내어 무식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 그것은 올바른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기

도 하였다.

‘무식한 노동자는 어디 어려워서 알아먹겠나’라는 논리야말로 우리 노동자의 지적 발달에 암적인 논리가 된다고 생각했으며, 학생출신 동지와 노동자 출신 동지와의 불평등요소 중의 하나인 이론적 불균등을 영원히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적어도 노동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방향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 점에서 노동운동 초기에 느꼈던 학생출신 동지들에 대한 이론적 열등감과 소외감은 이제 없다. 다만 누구나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 완성시키려 한다면 일반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론적 학습과 연구의 문제만이 지속적인 과제로서 남아 있을 따름이다.

너무 왼쪽으로

나는 공장에서 회사측과 싸울 때 정말 죽자살자 싸웠다. 물론 그때에는 계급투쟁의 비타협적 원리를 몰랐을 당시였다.

나는 회사 몰래 결성한 노조설립신고서를 접수시키기 위해 그라인더에 무르팍을 갈아 위장조퇴를 하기도 했으며 기리꼬를 눈에 넣어 조장, 반장을 쫓아다니며 빼달라고 하고는 도저히 안과까지 가지 않으면 안됨을 확인시키며 조퇴증을 끊어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다. 나는 누구보다 불만이 많았으며 딱 그만큼 나서서 그리고 끝장을 봐야 직성이 풀렸다.

나에게 있어서 공장생활이란 노동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희망이나 가망이 절벽인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유난히 감정이 풍부하고 정열이 끊어넘쳤던 나에게 현실의 공장은 전면적으로 적대적이었으며 웬만큼 바뀌어가지고서는 안되겠다는 생각

단을 키워주었다. 확 바뀌는 것, 내가 다니는 공장 수준과 범위에서 바뀌는 정도 가지고서는 도저히 양에 안 찰 정도로 정치·사회적으로 완전히 한바퀴 뒤집히는 것, 바로 이런 생각을 촉진시키고 발전시켰던 것이 공장생활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격 탓에 노동운동과는 상관도 없이 조장이나 반장 관리자들과 대판 싸우다가 소위 공장에서의 '간신'들과도 나이가 많건 적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많이 싸웠다. 이러한 내 행동은 그 효과가 두 방향에서 나타났다.

공장생활에 불만이 많은 동료들이 주로 내편이었으며 나 또한 헌신적으로 그들의 편에 섰다. 회사와의 투쟁에서 기본적인 노동자부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때로는 구심력으로, 때로는 기존 노동자그룹의 합류 등의 경로를 통해 가장 골통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번의 투쟁과 해고가 거듭되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차츰 혼자 세계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회사한테 센 것은 좋은데 뜻이 맞는 동료들과 조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으로 싸우고, 내 기준으로 동료들에게 강요하면서 도리어 운동의 진전을 막아버린곤 했기 때문이었다.

동료들과 화합하는 문제, 동료들을 조직하는 문제 등에 구멍이 적지 않게 뚫려 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다.

회사와의 투쟁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조직과 단결과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그후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내내 나 자신을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었으며 그 극복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였다.

좌편향

공장활동중에 최초로 드러난 좌편향은 그 후 얼마 안 있어 구속이 되고 여러 종류의 독서를 거치면서 더욱 이론적으로 심화되어 깊어졌다.

나는 감방에서 적지 않은 학습을 할 수 있었다. 아니 난생 처음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차분한 학습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최초의 이론적 학습은 주로 사회주의 일반론에 그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적 취약함과 일면화는 석방 후 일정 기간 동안의 나의 실천활동을 지배해왔다.

나는 나의 노동운동 과정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이론의 문제를 고민하고, 조합주의, 경제주의 문제를 연구하던 중) 감방에 들어가 공부할 수 있었던, 그리고 너무나도 갈망해왔던 이론적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그때 그 당시를 놓고 스스로를 '행운아'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투쟁의 현장과 떨어져 있었던 나에게 주어졌던 그 책들은 군대에서 한 번 좌회전한 나를 완전히, 아니 너무 왼쪽으로 틀어놓는 데도 기여했다.

'세계에는 두 개의 계급밖에 없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이며 오직 비타협적 투쟁을 통해서만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곧 나의 모든 실천의 지침이 되었다. 자본가와 독재정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만이 노동자계급의 도덕이며 그 외의 것들은 기회주의적인 요소로 인식되었던, 그야말로 가장 경직된 사고에 젖어 있었던 시절이 시작되었다.

우리 한국의 혁명가는 어떠한 정치적 계획을 가지고 싸우는가, 즉,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발전된 사회이며, 정권의 성격은 무엇이며, 결국에는 무엇을 목표로 싸워야만 정치권력의 장악 투쟁에서 전민중을 하나로 통합하여 승리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전망과 인식, 그리고 그에 대한 고민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투쟁만을 중시하고 받아들여섬기는 사고방식에서는 자연스럽게 현실의 제반 정치적 사안들을 꼼꼼히 판단해보기보다는 간단간단하게 재단해버리기가 일쑤였다.

1986년 5·3사태부터 7·27집회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바로 그 기간

이었다. 그 당시 우리 운동권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미제국주의와 신민당 문제, 계급이기주의와 정치적 입장의 부재 등에 대한 비판들이었다. 물론 비판과 비난은 서노련, 인노련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었다. 나는 그 당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우리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미국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하자는 주장은 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었으며, 신민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프롤레타리아 해계모니의 입장에서 볼 때 시기상조이며 노동자계급이 사상적으로나 양적으로 보다 성장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로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로 꽉 막힌 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날로 거칠어졌다. 이미 비판하는 쪽에서는 현격하게 다른 정치적 입장의 차이로 서 비판하고 있었는데 엮힌 데 덮친 격으로 낱아빠진 교조적 원칙인 ‘철의 규율’을 들고 설치기까지 했으니 당연한 귀결이었다.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대립원리, 그리고 러시아혁명에 관한 부분적인 이해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가진 나에게 퍼부어지는 비판자들의 공격과 비판은 상식 밖으로 진행되었다. 상식 밖의 단순한 자에 대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으리라는 점에 있어선 지금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 후 나는 내가 그토록 수호하며 믿고 있던 노동자계급의 비타협적 투쟁과 계급적 당파성에 대한 굽힐 수 없는 믿음을 안은 채 조직의 비판자들에 의해 쫓겨났으며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반성하겠다는 심정보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나도 그랬다. 도대체가 미국과의 투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현실의 대증적 상태에 비추어볼 때에도 틀렸으며, 내가 배워온 이론에 비추어볼 때에도 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파악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모든 공장의 활동에서조차 미국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선동문건 하나 제작하는 데도 미국에 대한 폭로가 꼭 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국에 대한 객관적 상태의 반영이라고 하였다.

세계 제국주의의 착취질서가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반영되어왔는가에 대한 이해의 부재는, 거의 모든 문제를 한국과 미국의 문제로서 제기해 오는 비판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별로 도움받지 못했다. 너무나 멀었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때의 내 사고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것은 민족문제의 제기가 계급적으로 해석되는 방향에서 제기되기 보다는 너무나도 뻔하게 그냥 민족문제, 즉 명백한 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로서 제기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의 학습은 다시 시작되었다. 물론 이번에는 감방에서와 같이 혼자만의 학습이 아니었다. 엄청나게 쏟아져나온 비판자들의 문건이 있었으며 꼭 공부해야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야인 ‘한국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여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내가 좌우중심을 올바르게 잡고 있는지는 물론 우리 운동의 진전 속에서 확인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는 적어도 내 주장 이외의 것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있지는 않으며, 제기된 문제의 위상에 대해서 고민하며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나로 바뀐 사실이다. 즉, 이전에 제기된 미제국주의와 보수야당에 대한 문제도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며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좌편향의 경험은 내 생활 속에서도 있었다. 그때 시절의 일 중에서 전혀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일이 한 가지 있다. 한편으론 우습기도 하지만 나의 좌편향 편력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는 에기를 갖는 문제에서 내가 아내에게 보여주었던 행동들이다.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후 나는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애기를 안 갖겠다는 것이었다. 혁명가가 자기 한몸 추스르며 싸우기도 바쁜데 애까지 낳는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다. 우선 먹여살릴 자신이 없었으며 그렇게 명백히 부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기를 낳는 것은 혁명투쟁에 대한 불철저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그렇게 명확하고 간단한 문제가, 같이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내 아내에게는 복잡한 문제로(내 생각으로는) 들어와 있었다. 한마디로 애기를 낳아야겠다는 것이었다. 나에게는 도대체가 단순 논리학으로 따져볼 때 말이 안됐다.

‘노동운동 — 자기자신 하나 추스르기도 바쁨 — 남은 말할 것도 없음(동지들은 제외) — 애기를 새로 낳음 — 우리 가정의 부담 — 조직과 혁명에 그만큼 덜 활동하게 됨 — 그래서 안됨 —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건 더 나쁨.’

물론 위의 도식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크게 틀림이 없는 나의 논리였었다.

무수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좀체로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는 도중에 아내는 애를 두 번이나 떴었다. 아내는 아프기 시작했다. 한약값, 병원비가 애기 둘 키우는 것 이상으로 들어갔으며 나에게도 죄의식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방향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서 나 나름대로는 묘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꼬아놓고 말았다. 아내 몰래 정관수술을 해버린 것이다. 그 길만이 더이상 아내를 고통과 수치의 침대에 드러눕히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수술은 5분도 안되고 티도 안 날 정도로 간단했으나 문제는 무지무지하게 복잡해졌다.

친 원밖에 안 드는 정관수술은 2백만 원 이상의 복원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정관수술 사실을 알고난 후부터 틈만 나면 화를 냈다. 이혼 얘기도 가끔 나왔다. 그리고 계속 아팠다. 도대체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신경쓰이고 심각한 문제는 아내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나에게게는 활동상의 문제에서 대타격이 밀려왔다. 운동의 대열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의 대타격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운동권 전체가 흔들렸으며 나 자신도 그 일부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간의 사고체계의 일대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는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로 요약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피하기로 한다.

나는 그동안 복원수술을 했다. 그리고 얘기도 낳았다. 아내는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아직 조금 아프다. 얘기를 낳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병(신경통)이라고 해서 낳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얘기낳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대강 다 했다.

죄없는 파이프만 묶고 풀면서 나의 무엇이, 어떤 사고방식이 묶여 있었으며 무엇이 풀렸는가.

나는 지금도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낳고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근거는 옛날에 가졌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옛날의 생각과 달라진 것이 있다.

얘기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는 부부간의 합의사항이지 혼자만의 사항이 아니라는 자각이 그것이며, 얘기를 낳은 동지와 안 낳은 동지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해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고 보게 된 것이 그것이다. 얘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처해진 조건에 따라 최선을 다해 활동하면 된다는 생각이 얘기 문제에 대한 지금의 나의 생각이다.

그리고 아내는 지금 예기로 인한 활동상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탁아운동에 열성을 보이고 있으며 나는 힘닿는 대로 협조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예로 들은 경우 외에도 많은 좌편향을 경험해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불타는 의지에 비해 과학적인 적용능력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한 나는 바로설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소영웅주의 문제

이 자리를 빌어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이 문제만큼 나를 괴롭혀온 일도 없다.

참으로 간단치 않으며 어느 일면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 노동자출신 동지들의 소영웅주의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영웅적인 투쟁과 소영웅주의와의 간격은 그리 멀지 않으며, 무엇을 영웅적인 투쟁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무엇을 소영웅주의라고 비판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우 자르듯이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이는 노동자출신 동지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나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소영웅주의로 몰리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노동운동의 방향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주변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관련된 문제란 이 글의 맨 앞에서도 잠시 쓴 바 있지만 노동운동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주로 경제적인 권익 쟁취와 노동조합운동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자본주의적 지도자상인 개인주의적·소

영웅주의적 지도자관을 극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진적 노동자관 다른 의미에서 대중의 지도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노동자대중의 지도자가 노동자계급의 사상을 가지지 못할 때 끊임없이 자본가계급의 사상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적어도 자본주의의 순리에 비추어볼 때에는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내가 한때 노동운동의 지도자 문제를 군대에서의 지휘관 정도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동료들의 조직된 단결력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정열과 능력을 더욱 중시했던 것 역시 결국에는 프롤레타리아적 공동체 의식의 결여와 계급투쟁에서의 조직문제, 노동자계급의 힘의 원천에 대한 인식결여로부터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노동운동 과정을 통한 외형적 변화, 즉 지도자나 위원장, 의장 등의 위치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소영웅주의에의 도전은 증가되는데, 그를 방어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사상이 부재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함락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진적 노동자가 모두 다 소영웅주의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변적 요인에 의해 부추겨지는 소영웅주의의 문제점이란 무엇인가?

학생출신 동지들이 노동자출신 동지들을 떠받들고 노동조합을 떠받들며 자꾸만 잘한다 잘한다라고만 했지 계급투쟁의 원리, 사회주의로의 완성문제에 대해선 한쪽에 집어두는 행동들이 선진적 노동자 동지들의 소영웅주의를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

새로운 사회의 인간형에 대한 항상적인 조언과 비판은 집어둔 채 맨날 잘한다 잘한다는 말만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쏟아붓는 소영웅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으며 너무 가까워 반발심리까지 나타내게 되는 것이 내가 경험한 소영웅주의화 과정과 비판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나의 소영웅주의의 경력은 보통의 다른 동지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나는 나의 노동운동 성장과정에서의 주변조건이 노동운동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문제, 사회주의의 문제에 대해 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조건이었다.

즉, 한때 잠시잠깐 노총위원장이 내가 갈 길의 끝지점이겠구나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공장을 여러 번 다니면서 어김없이 해고되었다. 그리고 항상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그 맨 앞에선 적은 있어도 무슨 직책 한 번 맡아본 적이 없다. 하다못해 노조 상집 위원이나 대의원 한 번 못해본 것이 내 경력이다.

투쟁, 회사와의 투쟁을 조직하고 그 맨 앞에서 서는 것이 내가 공장활동 중에 목표로 세웠던 것이었으며 또한 그렇게 되었었다. 그리고 그러한 투쟁의 뒤끝에는 항상 즉각 해고조치와 함께 보안사, 안기부, 경찰, 구속 등이 쫓아다녔다.

저 암흑의 1982년 봄 한달여에 걸친 태업 끝에 드디어 파업을 하고 노조가 결성되었는데 나는 불순분자의 누명으로(불순분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안되었었는데) 보안사요원에게 공포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으며, 그 이듬해는 다른 지역 다른 공장에서 거의 똑같은 투쟁형태, 즉 파업하고 노조 결성하고 그리고 해고되었는데 이번에는 안기부요원에게 끌려가서 얼어터지고 경찰로 넘겨지고, 또 그 다음 공장에서도 그와 비슷해지다가 이번에는 덜컥 구속되게 되었다.

바로 이렇게 성장한 내가 계급투쟁의 제반 이론적 원리들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학생출신 동지들과도 잘 어울리고 특별한 노동자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나의 소영웅주의적 행동 발생의 지점은 바로 거기였다. 사회주의자로서의 자랑스러움, 정치조직, 정치투쟁을 하게 된 데서 오는 자부심,

바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면서 소영웅주의로 빠져들고말았다.

노동운동의 어느 특정한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요구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집중되는 관심, 바로 조합주의, 경제주의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소리가 높아갈 때 노동자출신 동지들 중에 선두대열을 유지했던 내가 경험했던 소영웅주의란 그 당시 노동운동의 우편향에 대한 비판의 대열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동료들의 문제점을 나의 문제점으로 받아들여 동료를 변화시키며 같이 전진해나가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비판적 위치를 숭상하며 받아들였다. 그것의 결과는 너무도 당연했다.

세상의 모든 사물에 양측면이 있듯이 나는 마냥 영웅이 아니었으며 동료들 역시 한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판판이었음이 우리 노동운동의 깊이와 아울러 입증되었다.

비판은 혹독했으며 따가웠다.

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나 자신을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제 나는 소영웅주의의 문제와 성과주의, 개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리를 빌어서 노동자출신 동지들의 소영웅주의화 문제는 항상 노동운동의 풍토와 어울려 나타난다는, 즉 노동운동 지도자의 배출과 훈련에 대한 노동운동권의 무원칙성과 항상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해결방향까지 생각한다면 조직문제와 사상의 문제로까지 가야 할 것이다.

후기

출판사에서 요구하는 양의 글을 다 썼다.

얼마 전부터 가끔씩 제외받았던 이와 같은 형식의 수기에 대해 나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무언가 창피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없었다. 써야 할 주제들의 대부분이 나의 치부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중인 것들이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완성된 모델이 되어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웬 못된 놈으로 되어버릴테니까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를 두고 자신감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썼다. 나는 글을 써야겠다는 의의를 느꼈기 때문에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다름아닌 한 사람의 노동자출신 동지가 어떻게 사회주의자로 훈련되어가는가를 하나의 사례를 통해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그 완성된, 그리고 모범적인 모델은 아니다. 하지만 한 노동자의 노동운동 역정이 노동조합운동이나 자본주의 체제내적인 데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사회, 즉 사회주의 사상의 원리를 그야말로 기쁨과 희망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해왔던 경험이란 현재의 우리 노동운동권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이 글을 통해 그것을 다 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런 류의 글을 쓸 생각이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글을 쓸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의 노동운동이 시뻘잡게 물들어 성숙해지면 안 쓰게 될 것이다.

제2부

너희는 우리의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였다.

- 8·15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
- 광란의 폭력만행
—— 교도관들은 누구의 뒤를 좇으려 하는가
- 지금의 우리야말로 하나입니다
- 민가협 어머니와 부인 동지들께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 교도관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 “위(직)장 폐쇄 철회하라!”
- 우리(구속자)는 흥정대상이 아니다
- 방이 4개

8·15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

8월 10일

지금 여기가 감옥인지 연세대 노천극장인지를 헛갈리게 하기에 충분한 사정은 8월 10일 11시경부터 시작되었다. 옥중투쟁위원회 집행부 동지들의 집합안내에 따라 우리는 정치범 운동장 7호실로 집결했다. 금방 일사불란하게 모여앉은 동지들은 줄잡아 약 60여 명을 상회했다. '민자당동맹'(민자당 농성팀을 여기서 그렇게 부른다)의 지도자이자 집행부의 일원인 박상현 동지의 사회로 <단결투쟁가>가 장내 질서유지를 위해 우렁차게 서울구치소 담장을 때렸다.

몇몇 동지들의 말대로 그야말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곧이어 박상현 동지가 정식으로 '8·15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8.10-16)'을 선포한 후 전원 기립하여 조국통일과 민중해방을 위해 싸우다가 산화해간 민중열사들에 대한 민중의례를 가지면서 대회는

시작되었다. 교도소측은 잘 알고 있을텐데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으며 운동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16사동의 일반재소자들만이 창문에 쪽나와 기이한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식순에 따라 집행부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삼민동맹'의 신남희 동지가 나와 금번 투쟁기간에 각 동지들 모두가 지켜야 할 도덕성과 대의, 그리고 대회기간중의 각종 일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신남희 동지는 특히 지금 우리의 투쟁이 그동안 많은 동지들이 쌓아올린 고난의 투쟁 위에서 있음을 상기시켰으며, 국가보안법의 민중억압의 기능과 민중수탈의 기능, 그리고 민중의 고통만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옥투위 공동대표 양연수 전민련 의장님은, 분단이야말로 엄청난 민중의 피와 땀의 결실들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군사무기 구입에 처박게 되는 어이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임을 힘주어 강조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민중의 빈곤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폭로하였다. 말 끝마무리에 우리의 양의장님은 “우리 모두 강고한 투쟁으로 분단의 벽을 허물고 국가보안법을 박살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평양냉면 한 그릇씩 먹도록 하자”며 통일투쟁의 기운을 한층 드높이셨다. 또다른 공동의장이신 김근태 전민련 집행위원장님은 이날의 정식 주제인 통일, 분단, 민중해방, 투쟁 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먹는 얘기’부터 시작했다. “범민족대회 성사시켜 평양가서 피양냉면 먹자, 먹자, 먹자.” 그러나 우리 선배님의 요지는 결코 먹는 문제가 아니었다. 날로 날디날아 쓰러져가는 담장으로 변화해가는 분단의 장벽은 그동안 그 장벽의 틈을 갈라놓은 수많은 민중열사들의 고난에 찬 투쟁이 결과한 필연적인 것이며 범민족대회는 바로 그 성과의 한가운데 있음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오늘의 우리 구치소 내의 투쟁 역시 얼마 전 또다시 민중해방의 제단 위에 그 안타까운 젊음을 바친 최동 동지 등과 같은 수많은 선배 동지들의 대의를 앞세운 지난한 투쟁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환기했



다. 서서히 집회장의 동지들은 세계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이글이글 타게 하는 하나의 태양 아래 하나의 투쟁대열 아래로 넘어가고 있었다. 15척 담장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으나 우리의 투쟁의지마저 가두어놓지는 못하였다.

사회자 동지의 “우리에게 머리띠도 이마에 묶여 있고, 관복을 찢어 그 위에 치약으로 씌어진 플래카드도 있으며, 투쟁가와 투쟁연설도 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방에선 화염병이 제조되어 저 담장을 박살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의 전선으로 단결하여 단숨에 범민족대회를 성사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감격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서 이 날의 의미를 새기는 투쟁선언문을 전대협 부의장이자 옥투위 투쟁국장인 문광명 동지가 낭독하였다. 선언문은 노태우 정권의 기만에 가득찬 ‘통일사기극’에 대한 폭로를 담고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성격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선언문을 읽어내려가는 문동지의 억양은 불을 뿜듯이 힘차게 서울구치소에 울려 퍼져 나갔다. 마지막으로 나온 통일선봉대장의 인사말과 문화선전대장의 말과 같이 우리의 이번 행사와 투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선대장의 감격에 가득찬 “우리의 이번 투쟁기간은 한국 민족민주운동사에 길이 남을 최초의 쾌거이다. 세상에 누가 감옥 안에서 정치범 모두가 함께 모여 당당히 정치집회를 개최할 것이라 생각하겠으며, 누가 감옥 안에서 정치연극을 구성하리라고 상상이나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시작했으며 앞으로 통일심포지엄과 통일연설, 그리고 사상 최초의 감옥 내 정치연극, 통일을 주제로 한 연극(14일 예정되어 있음)이 의연히 구성될 것이다”라는 정도엔 설사 완전히 미치지 못할지라도, 분명 우리 민중운동의 도정에 매우 신선한 충격을 주는 쾌거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투쟁을 선포했으며 찌는듯한 더위의 한복판에서 오직 통일의 일념 아래 위장을 비우는 기간 내내 그 빈가슴을 다시 통일

의 투쟁일정으로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갇혀 있으나 노태우 군사정권은 우리의 아무것도 가두지 못하였다. 오직 밝고 뜨거운 태양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 통일만세!
민중해방만세!

8월 11일

1부 최동 동지에 대한 추모식은 과거 최동 동지와 함께 징역을 살았던 김학원(안양 'PD사건' 주모자) 동지의 추모사 낭독과 추모시 낭독 정도로 간단하게 끝마쳤다. 2부 진행은 '삼민동맹'의 하승창 동지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근태 선배의 시국강연이 먼저 있었다. 김선배는 잠긴 목소리로 눈물을 보이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김선배의 말로는 나이탓이라고 했다. 곧이어 본 강연에 들어가서는 준비된 원고 없이 약 10-20분간에 걸쳐 7·4공동성명 발표시의 통일염원을 회상했으며, 통일문제는 남한 정권과 북쪽의 정치세력, 그리고 남한내 민중운동세력 등 3자간의 관계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금번의 범민족대회는 그러한 역학관계에서 만들어진 매우 진전된 결과물이라는 요지로 강연하였다. 곧이어 이쪽 관구의 특별초청으로 1관구에서 넘어오신 단병호 전노협회장님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단병호의장님은 강연 자체가 너무 급박하게 준비된 관계로 잘 준비되지 못했다는 겸손의 말씀과는 다르게 약 20-30분간에 걸쳐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통일문제를 차분하게 조목조목 짚어나갔다. 단의장님은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1관구에서 있었던 시위를 소개했다. 1관구의 약 30-40명 동지들이 어제 오전 최동 동지에 대한 추모의 침묵 시위를 벌여 관구실을 넘어 집견장 입구까지 돌아서 왔다고 전해주었다. 이어 본론에 들어간 단의장님은, 현정권의 통일사기극 또는 소위 북방정

책은 단지 정권유지적 차원이 아닌, 그렇게 협소한 의미가 아닌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이 분명하며, 그래서 우리 노동자는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무조건적 통일, 무조건적 철조망 제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 우리 노동자의 통일은 명백히 인간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지배받지 않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우리가 통일투쟁에 관해 논하고 있는 지금 한 가지 짚고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와는 다소 빗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적에 대한 문제보다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즉 우리 내부의 분열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러한 의견차이는 발전과 질곡이라는 양면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의 분열양상은 심히 우려될 정도이며 대승적 차원의 총단결이 각별히 요청된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단의장님은 현정권이 지금 펼치고 있는 통일정책은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 1) 노태우 정권이 주도권을 쥐고 일정하게 양보하면서 진보성을 띠고 있는 점,
- 2) 국회 날치기사건 이후 가중되는 반민자당 분위기를 희석시키고 관심을 다른데로 돌리려는 점,
- 3) 독점재벌들의 착취욕구 확대에 따른 시장확대의 측면이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 노동자의 통일투쟁은 자본가에 대한 착취철폐투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원래부터 검게 그을은 피부를 갖고 계신 데다가 더더욱 검게 타신 단병호 의장님은 며칠 동안 몸이 몹시 안좋아 힘이 든다고 하시면서도 기꺼이 시국강연을 차분하게 다 끝마치고 자리에 앉으셨다. 권위 의식이

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은 수감 이래 「자본론」을 열독하느라 고생이 심하시다고 한다.

이날 집회의 마무리는 단의장님의 1관구 시위소식 전파에 영향받아 약 70여 명의 동지들이 석 줄로 서서 운동장을 나와 복도를 걸어 관구실 앞에까지 침묵시위를 했으며, 헤어지기 전에 <단결투쟁가>를 힘차게 부르고 구호를 외친 후 해산하였다.

8월 13일

단식 첫날, 1부 순서는 단식에 들어가는 첫날의 의미를 새기고자 단식에 임하는 결단식을 가졌다. 옥투위의 임시 실무대표이자 총무국장인 '삼민동맹'의 신남희 동지가 나와 단식기간중에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낭독한 후 세 명 정도의 동지가 앞으로 나와 소감발표를 간단하게 한 후 다시 동별로 돌아가서 동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은 단식 첫날이기 때문에 모두 다 땀 흘린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몇몇 동지들은 족구를 하는 건강성을 과시하기까지 했다. 오후 12시경, 예정으로는 통일심포지엄을 가지기로 되어 있었으나 각 동지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노동계급'사건으로 구속된 안민규 동지가 '현정세와 투쟁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오후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해 운동장 타워가 땀을 가려주는 그늘 안에서 약 60여 명의 동지들이 모여앉아 안동지의 발표를 경청하였다. 이 무렵, 내일 최초의 옥중연극공연을 하게 될 문화선전대 동지들은 9호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다. 문선대 동지들의 열의와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은 대단했다. '노동계급' 안동지의 발표는 약 30분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작년 공안정국 이래 계속되던

민중운동권의 열세는 금년 들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KBS 투쟁과 현대중공업 투쟁이 전국적 파업투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5월 9일의 신세계앞 반민자당 투쟁을 넘어 민자당의 국회날치기에 대한 대규모적 항의 분위기로 번졌다. 바로 이러한 민중투쟁의 결과와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것이 7·20 제의였다. 그러나 7·20제의에 대한 민중운동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한창 달아오르던 반민자당 분위기와 노태우정권 타도열기는 한풀 꺾이게 되고 말았다. 그러한 민중운동권의 부적절한 대응의 첫 본보기는 보라매공원 집회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날 우리 민중운동권은 민중의 단 하나의 독자적인 깃발도 올리지 못했으며, 자신의 독자적인 주장과 목소리는 윤영규 전교조위원장 한 사람에 불과했다. 국회 날치기사건으로 불붙어오르던 민중의 반민자당 열기는 이날 집회가 평민, 민주당에 의해 주도됨으로 인해 곧이어 반민자당과 반노태우정권에 대한 투쟁의 열기가 야권통합이라는 매우 왜곡된 길로 빠져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민중운동권의 문제점은 범민족대회를 주관했던 전민련의 여러 행적에서도 또다시 나타났다. 사실 7·20 제의는 노정권이 당장의 국회 날치기사건을 희석시켜보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진보적인 의의를 갖게 될 수도 있는 제의였다. 즉 세계적인 평화무드의 압력에 밀리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민련은 그러한 통일열기의 과정 속에서 열리게 될 범민족대회 준비를 수행함에 있어서 거의 전적으로 범민족대회 자체의 성사를 위해서 주로 정부에 청원하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즉 7·20 제의로 마련된 통일분위기 속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반민자당 투쟁 그리고 민중주체의 통일논의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다수의 민중운동권이 주도하는 집회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그리하여 범민족대회의 성사 그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조성된 통일열

기 속에서 민중운동권의 통일운동 주도화를 확산시켜내는 데 더욱 주력했어야 했다는 등의 요지로 안동지의 발표가 마무리되었다. 곧이어 한두 명 동지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미 발표한 수준에서의 간단한 답변이 있자, 이 때는 벌써 점심시간을 훨씬 넘겨 3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배는 살살 고파오고 있지만 한 평 남짓한 독방에 홀로 앉아 온갖 먹을 궁리만 되씹으며 단식투쟁을 수행하는 궁상에 비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앉아 투쟁가를 부르며, 정치토론을 하면서 수행하게 되니까 배고픔을 거의 잊게 되어 아주 좋았다.

8월 14일

정역은 일요일과 공휴일이 제일 싫은 날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상공부 장관과 경단협이 연간 공휴일수가 너무 많다는 불만에 심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동의하고 있는 편이다. 물론 그들이 품고 있는 악의와 우리가 품고 있는 선의와는 천지 차이가 존재한다. 정역의 휴일은 많은 것이 공치는 날이다. 면회가 없고 운동이 없으며 공식적인 유동병력이 없다. 그래서 사방문이 하루종일 잠기게 되고, 말도 못다닌다. 그야말로 정역 안의 정역 생활을 해야 하는 날이다. 8·15는 민족해방의 날이자, 동시에 우리의 주권이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넘어간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치욕의 출발이며 고통의 출발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8·15는 내일로 다가와 우리 정역쟁이들을 또 하루종일 괴롭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번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은 사실상 오늘로 마무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행사가 많다. 1부 행사는 우리 문선대장인 중앙대 탄파라 출신 동지의 호연장담처럼 민족민주운동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

될 서울구치소 내에서의 통일연극이 펼쳐지게 되어 있으며, 2부는 각 사동별 통일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대회가 있으며, 3부는 통일 주제 선전·선동 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여름 속에서의 단식 타인지 얼굴이 누렇게 뜬 동지들이 몇몇 있었으며, 여사에서는 벌써 한 동지가 쓰러져 병사로 옮겨졌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지들은 어느 한 동지의 표현대로 “너희는 조금씩 자주 먹지만 우리는 한끼밖에 많이 먹는다”(〈단결투쟁가〉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출판작 중에서)의 심정으로 건강하고 의지에 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드디어 나중에 한국 민중운동사를 쓰게 될 동지에게 부담과 고민을 안겨줄 통일연극의 막이 서울구치소 요시찰자 운동장 제1호실에서 약 70여 동지들의 열의에 찬 기대 속에 시작되었다. 우리가 이번 기간 내내 부른 노래들 중에 약 90% 이상이 노동투쟁가였듯이 이날 연극의 주제는 노동자의 통일투쟁이었다. 정치범 중 70% 정도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주제의 거의 모든 내용은 노동운동이었다. 통일도 노동자와 관련한 통일이었다. 물론 그것이 진정 노동자의 통일시각일 수 있겠는가 의 점에서는 많은 의문점을 던지고는 있지만 분명 그 뜻만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징역에서 구성하는 연극이 사회에서 구성하는 연극과 대비해서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문선대 동지들의 공연은 훌륭한 것이었다. 한 공장의 노동자들이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벌이게 되는데, 첫째는 구속자 전원석방, 둘째는 국가보안법 철폐, 셋째는 남한노동자 북한방문이었다. 그러나 파업 도중 주도자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이근안과 문귀동을 직접 가르쳤다는 고문경찰에 의해 혹독한 고문끝에 결국 죽게 되고 나중에 그의 동료들이 달려와 그를 부둥켜안고, 모든 우리의 연극이 항상 그러하듯이 슬픔에 젖어 있다가 서서히 죽은 사람까지 같이 일어나 말짱하게 노래 크게 부르며 연극이 끝나는 내용이다. 줄거리야 처음 시작하자마자 결말이

보이는 것이었으나 단 하루만의 준비로 만들어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는 우리 문선대 동지들은 훌륭한 하나의 연극을 구성하였다. 출연자 9명에 대본도 있었으며 고문자가 써야 할 선글라스와 몽둥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감나는 연기가 있었다. 문선대 동지들에 대한 수회의 답례 박수가 울려 퍼지면서 일정은 2부로 넘어가고 있었다.

8월 15일

광복절은 밥도 쌀밥이고 국도 쇠고기국이다. 1년 365일 총 1100여 끼 중에서 6끼의 쌀밥과 쇠고기국이 나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 6끼 중에서 한 끼가 나오는 날이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식사를 '분단의 귀신'이 빼앗아가버렸다. 벼룩의 간 만큼이나 귀중한 우리의 특별식을 채간 놈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심정으로 또 하루를 보낸다. 정작 기념해야 할 오늘 광복절은 그와 정반대로 완전 휴일이다. 투쟁도 휴일이며 집회도 휴일이고 면회도, 사망간 자유왕래도, 위장도 휴일이다. 범민족대회 성사와 민족대교류 자체가 완전히 물을 건너간 탓에 광복절이란 날을 맞이하여 별도의 의미를 새겨보는 이런저런 생각도 역시 휴일이며, 오직 왕성하게 운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하는 생각뿐이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징역에서 밥까지 굶게 되면 사실 징역말로 굶징역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굶징역을 감수할만한 일들에 한해서, 즉 그만한 가치가 있을 때 한해서 우리는 단식투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금번 8·15를 전후해서 벌어진 남북 당국의 통일선전 공방은 참으로 사람 허전하기 그지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루가 멀다하게 제안과 역제안이 수도 없이 교차했으나 결과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통일원과 전민련 등은 적지 않게 바쁘게 움직였으나 특히 노동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통일문제에 접근했으며 통일문제를 놓고 각 당사자들이 벌이고 있는 기만과 술책들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었는가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정역에 계시는 단병호 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노동자 동지들만이 확실하게 통일의 열기에 흠뻑 젖어 여러 가지를 생각하였음만이 분명히 확인될 뿐이다. 금번의 십수일간에 벌어졌던 통일열기의 기간은 과연 우리 남한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그리고 각 계급 및 당사자들에게 있어 통일문제는 어떤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준 역설의 효과를 내며 지나갔다.

노태우 정권의 통일은 정권유지를 위한 통일이며,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한 통일이었다. 국회 날치기사건으로 고조된 반민자당 분위기를 상쇄시키고자 나온 7·20 제의는 『조선일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보수신문들조차 내용면에서는 획기적이지만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라는 식으로 말할 정도의 것이었고, 정권유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정책을 펼치면서도 하나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아야 할 만큼 현정권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고스란히 고수하면서 어떻게 해보려는 통일임이 분명해졌다. 또한 정주영이나 재벌자본가들의 남북교류는 법까지 만들어서라도 특별지원하겠지만, 민중의 남북교류는 있는 법에 없었던 법까지 새로 만들어 철저하게 차단하겠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가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색깔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민련을 포함한 민중운동권의 통일은 어떤 통일로 비쳐졌는가. 통일문제가 노동자·민중의 고달픈 착취와 억압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각인되어졌는가, 혹은 가중되는 노동운동탄압의 도구 국가보안법이 더욱 명료하게 반민중적 악법으로 낙인찍혀졌는가. 또한 한층 가열되던 반민자당 분위기 속에

서 민자당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독자적인 전선으로 유지하면서 통일열기를 결합시켰는가. 그러나 이 모든 예는 실제로 적중하지 않았던 예들이다. 민중운동권은 보라매집회에서부터 독자적인 전선을 꾸리지 못했으며 7·20 제의 이후 내내 범민족대회 그 자체의 성사에만 치우쳤었다. 민자당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운동권의 공세는 조직되지 않았으며 범민족대회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때부터 특히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투쟁계획과 실천은 정지되었다.

노동운동탄압의 주범인 국가보안법과 민자당정권이 한층 부각되는가 싶다가 갑자기 잘못된 통일열기가 이를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전노협 단병호 의장님의 말대로 노동자에게 통일은 무조건적 통일이어선 절대 안된다. 통일은 작년 이래 한층 가중되고 있는 자본가들과 현정권의 무자비한 노동운동탄압의 냉엄한 현실을 다만 한시라도 접어들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초계급적 문제가 분명 아니다. 제집안에서는 여전히 이잡듯이 노동자·민중을 때려잡으면서 무슨 통일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다시 단의장님의 말을 빌리면, 우리 노동자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노동자를 때려잡는 잡탕의 통일을 절대 반대해야 한다. 우리 노동자는 금번의 통일열기 기만을 통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분단된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통일이라는 주제가 단지 군사독재정권의 정권유지적, 체제유지적 도구라는 것을, 그리고 노동자와 자본가간에 엄연히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의 고통과 해결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진행되는 통일열기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를.

노동자의 통일은 분단으로 조성된 군부독재정권과 자본가들의 위력적인 힘의 우위를 무너뜨리는 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노동해방을 원한다면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참된 통일을 위해서는 항상 통일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계급이 처한 고통의 현실과 계급투쟁의 이익이 전면에 내걸려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고통과 이해를 전면에 내세우려는 부단한 노력과 확신이 안 서 있는 모든 통일투쟁은 딱 그만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8월 16일

오늘은 '8·15 범민족대회 성사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기간'의 마무리를 짓는 해단식과 함께 3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다시 점심식으로 들어가는 날. 청명한 날씨에 우리는 모두 7호실 운동장으로 집결하였다. 단식 3일 직후라 그런지 거의 모든 동지들이 꽤 힘이 빠져 있었으며 범민족대회의 결렬로 실의가 엿보였다. 그러나 징역은 기쁨의 날뿐만이 아니라 실의의 날도 자기 징역의 날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꼬박꼬박 깨뜨려준다는 석방지향의 법칙이 항상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날이 값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금번과 같은 우리들의 집단적 행동의 기간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 된다. 실로 우리 모두에게 금번 기간은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것이었다. 해단식의 특별한 절차는 없었다. 민자당 점거농성팀 대표인 박상현 동지의 사회로 시작된 해단식은 문선대장의 간단한 울동시범과 투쟁가 지휘를 거쳐 옥중투쟁위원회 임시실무대표인 '삼민동맹'의 신남희 동지의 투쟁기간 동안에 대한 간단한 평가가 있었다. 신동지는, 그동안 물려내려왔던 감옥생활에 대한 고정관념과 관습을 깨고 우리는 새로운 투쟁의 장을 금번 기간의 하나하나를 통해 열어제겼으며, 이는 명백히 그동안 서울구치소를 거쳐간 수많은 동지들이 투쟁을 통해 닦아놓은 기초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신동지는 우리는 금번 투쟁기간 동안 우리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문선대 동지들의 노력은 더없이 소중한 우리의 저력 발휘였으며 선전선동대회를 빛내주신 동지들 또한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도 놀라게 만들어주었던 값진 성과였다, 이제 우리는 금번 성과를 한 번의 행사로 치부하여 집어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투쟁에 계속적으로 이어 발전시킬 시금석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라는 등의 요지로 발표했으며, 이어 앞으로 나오신 옥투위 공동대표이자 전국빈민운동연합 의장 양연수 대표께서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와 미국간의 대결을 예로 들면서 미제국주의의 호전성과 식민지 침탈정책을 맹렬히 반박하고, 바로 그렇게 전세계적으로 가장 호전적이고 식민지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자이기에 그들은 그라나다와 파나마에 이어 중동으로까지 일부터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우리 남북한 민중 역시 그들에 의해 약 45년 내내 분단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으며, 공동대표의 다른 한 분이신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 대표님은 다른 말씀은 없으신 채 양의장님의 주장에 대해 이하동문이라는 한 말씀과 함께 이제 금번 투쟁의 저력과 경험을 살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에 대응한 투쟁에서 더욱 확실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씀하셨다. 마지막으로 신남희 임시실무대표는, 이후에는 간단한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금번 투쟁의 성과를 수렴하여 그것을 전국옥투위 건설과 서울옥투위 재편성이라는 조직강화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요지의 계획설명을 하였다. 기타토의에서는 내가 금번 투쟁기간 동안의 성과를 그냥 지나가는 일로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각각의 느낌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새겨넣을 수 있으며 민중운동 전체에 공유시킬 겸해서 작문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 문학상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자, 전체 총회의 결정으로 이를 수용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8월 10일부터 시작되어 단식 3일을 포함한 7일간의 서울구치소내 투쟁은 모두 마무리되었다. 만약에 있을 저들의 물리적 도발을 맨앞에서 방어하고 우리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된 통일선봉대 동지의 말과

같이 몸싸움 한 번 없이 치르게 된 투쟁기간이라 약간 투쟁이라는 정서에 안맞는듯한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존의 구치소 생활 정서와 관습을 대단히 많이 넘어서는 내용을 가지면서 금번 기간을 보냈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이어서 있게 될 전면재편된 옥투위의 활동과 작용에 의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항상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 지금 제안되어 있으며 거의 전적인 동의를 얻고 있는 기존 옥투위의 전면재편안의 기본정신은 '정치범의 정치세력화'이다. 감옥을 개인수양의 터가 아니라 가장 왕성한 정치활동의 장으로 변화시켜내고자 함이다.

광란의 폭력만행

— 교도관들은 누구의 뒤를 좇으려 하는가

김중성 동지와 김용기 동지 등 3명의 동지들에 대한 폭행에 대하여 보안과장과 교무과장의 공개사과 용의 표명이 우리 100여 동지들에 의해 수용되고, 아직 교도소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법적인 도서차입 불허 해제 요구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참 전개하는 도중이었다. 갑자기 교무과 앞계단으로 교도관과 경비교도대원들이 포승을 들고 가스충을 발사하며 진입했으며, 경비교도대원들은 완전한 진압복 차림에 방패를 들고 있었다. 곧이어 뒷문을 따고 또 한 무리의 교도관들이 밀어닥쳤다. 갑자기 최루탄이 터지고, 뒤로 밀릴 데리곤 전혀 없는 좁은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질식을 피하기 위해서 창문을 깨뜨리고, 많은 동지들이 복도끝으로 몰리게 되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으나 진압작전을 위해 우리가 머물고 있던 교무과 2층 복도는 불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다. 좁은 복도는 최루탄 가스가 난무했으며 암흑이 지배했다. 우리 동지들 모두가 거의 반사적으로 3층 계단 위에 쌓여 있던 폐의자를 집어서

무자비한 강제진압을 방어하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단병호 의장님과 장명국 선생님 그리고 김학원 동지가 잠시 모여 쌍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도소측의 한 주임은 2분 이내에 모두 아래로 내려가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왔다. 우리는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교도관들이 물러나줄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그러한 요구제안을 신호로 좁은 공간의 복도로, 앞뒤가 완전히 막힌 검은 공간으로 최루탄이 날아들었으며 약 300여 명의 미친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교무과에서 끌고나온 우리를 넓은 통로에 몰아넣고 20-30명이 한무리가 되어 닥치는 대로 짓밟고 방패로 찍어댔다. 유혈이 낭자했으며 밝은 옷을 입고 있는 교도관의 상의에 피가 김뿜게 번져 있음을 속속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사복을 입은 교도소장이 보안과 사무실에서 곳곳에서 폭력만행이 자행되고 있는 넓은 사방 통로에 나와 한 번 휘둘러보고는 뒷짐지고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폭력만행은 그칠줄을 몰랐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결사항전의 무리가 저들에 의해 갈갈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안과 앞에서 6동과 7동의 징벌사동까지의 복도에서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아무나 재소자 옷을 입고 있는 동지들만 보면 발로 차고 짓밟아댔다. 한 번 걸려서 붙잡히면 20-30명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것이고 다행히 징벌방에 갇히면 5-6명에 의해 짓밟히는 것이었다. 실로 말이 안통하고 말이 필요없는 무자비한 폭력이 약 1-2시간에 걸쳐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성진 동지는 밧줄로 목이 묶여 끌려갔으며 이성우 동지는 코뼈가 부러지고 양쪽 눈이 완전히 감길 정도로 가장 심하게 부상당했으며, 문광명 동지는 7바늘을 꿰매야 했고 이입동 동지는 안경을 깨뜨려서 스스로 손목의 동맥을 끊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미처 농성에 참여 못한 동지들 역시 5-10여 명씩 사망을 휩쓰는 이리떼들에 의해 피가 사방벽에 흩뿌려질 정도로 집단구타를 당하며 징벌방으로

끌려갔으며, 갑작스런(취침상태) 점검에 항의하는 일반 재소자들에게도 무한정한 폭력이 행사되어 약 10여 명의 재소자들도 병원신세를 질 정도가 되어 징벌방으로 끌려갔다. 집단적인 무한정 폭력은 이날 밤으로 일단 정리되었다. 그러나 2단계 폭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더욱 가혹한 것이었다.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이 묶여졌으며 드디어는 손과 발을 함께 묶는 소위 통닭구이가 시작되었고 6동과 7동에서는 비명과 신음이 난무했다. 담당님, 부장님을 찾으며 절규하는 비명과 신음이 전사동을 뒤흔들어도 옥설만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일부의 동지들이 간신히 통닭구이를 면하게 되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동지들의 비명은 그칠줄을 몰랐다.

27일 저녁의 진상규명은 들쭉치고 당장의 잔혹하기 그지없는 통닭구이가 6동과 7동을 지옥 그 자체로 만들고 있었다. 접견, 치료, 세수, 이불, 식수, 통방 등이 일체 금지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갔으며 바깥에서의 가족들 덕분에 겨우 이불과 세면도구 정도가 지급됐을 정도였다. 그러나 통닭구이는 계속되었다. 무슨 행복인지도 모를 무조건적 행복을 해야만 통닭구이를 풀어주겠다는 협박만이 유일한 구원의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변호사 접견실은 도청되고 있으며, 접견장을 나오자마자 도청사실을 가지고 아는 척을 했다. 금번 서울구치소의 폭력만행은 이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교도관 자신들의 부상에 대해서는 즉각 바깥병원으로 후송시켜 치료하면서, 우리 약 130여 동지들의 부상 및 중상자들에게는 통닭구이만을 준비하고 있는 실로 너무나도 여처구니없는 미친 폭력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사건의 발단

9월 27일 오후 1시 경 1관구에 있는 '삼민동맹'의 김종성·김용기 동지 그리고 민자당 사건의 김태진 동지 등 3인이 각자 도서차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교무과에서 도서담당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요는 왜 뚜렷한 불허근거도 없이 차입된 책을 불허하는가라는 항의와 이에 대해 구치소측에서 일정하게 판단하여 불허할 수 있다는 해명 사이에 오가는 의견대립이었다. 이때 교무과 도서담당이 근무하는 자리와 마주 앉아 일을 보던 집필관계 담당이 갑자기 이 논쟁에 끼어들자 우리 동지들이 당신이 된데 아는 책을 하느냐고 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담당은 구치소측에 도서를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서로 고성이가 오가며 분위기가 험악해졌으며 드디어는 집필담당이 분을 못참으면서 김종성 동지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다시 곧바로 우리측의 김용기 동지가 집필담당의 멱살을 잡고, 서로 혼전의 몸싸움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3명의 동지들이 더 많은 교도관들을 몸싸움으로 당해낼 수가 없었다. 김종성 동지가 머리채를 잡히고 3명의 교도관에 의해 온몸이 들려 교무과 밖으로 내쫓기기까지 했다. 그렇게 교무과에서 강제로 쫓겨난 3명은 곧바로 자기 관구로 돌아가 동료들에게 교무과에서의 교도관에 의한 폭행사실을 알리고 교무과에 집단적으로 물러가 항의할 것을 제안하며, 일단 1관구의 동지들이 거의 모두 교무과 교무과장실에 들어가 농성을 개시하였다. 이 때의 인원은 약 20여 명이었으며 시간은 2시 내외였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사태를 모르고 있었던 2관구의 동지들은 바로 이시간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이 소식을 신남회 동지로부터 전해듣고 전원 교무과로 가 농성에 합류하였으며, 이 때 합류하지 못한 동지들은 접견시라든가 또는 개별적

으로 합류하여 최종적인 농성자 수는 약 87명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때의 시간은 어림잡아 3시에서 4시 사이였다.

사건의 경위 및 진행과정

일단 약 80여 명의 동지들이 모이자 교무과장실이 좁아 농성장소를 교무과 2층의 복도로 옮겨 4줄의 횡대를 지어 앉았다. 이 때부터 사회는 신남희 동지가 보았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동지들 중심으로 약 10여 명의 동지들을 교무과 정문앞에 배치시켰다. 물론 이 때 방위업무와 질서유지 업무를 맡은 동지들은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았다. 신남희 동지의 사회로 시작된 논의에서는 일단 투쟁장소의 정비문제와 투쟁요구를 확정짓는 문제를 가지고 전체토론을 벌였는데,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 투쟁의 요구를 먼저 확정하자고 하여 토론에 들어가 크게 두 가지의 요구로 압축되었다. 첫째, 교무과 교도관의 폭행에 책임지고 상급자가 직접 공개사과할 것, 둘째, 도서차입의 불허기준을 현행 법원의 유죄판결된 책으로 한정할 것 등으로 정했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신남희 동지와 왕해전 동지가 구치소측의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을 만나러 갔으며 이 때의 시간이 약 5시 전후였다. 신남희 동지와 왕해전 동지가 다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약 40여 분 후였다. 신남희 동지의 협상결과보고는 첫째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이 지금 즉시 공개사과한다는 것이었으나, 둘째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서차입의 불허기준은 법무부 내규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교무과장이 재량권을 발휘해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의 수용과 거부문제를 놓고 계속 논란이 거듭되었다. 구치소측에서 보안과장이나 교무과장이 직접 공개사과한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이므로 그것의

인정에 기초해서 일이 타결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의견과, 애초의 투쟁발단인 도서차입 문제가 거의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우리의 요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었으나 전자의 타결 주장은 극소수였으며 후자의 계속요구 주장 내부에서 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전개되는 양상이었다. 이 때가 약 6시-6시 30분 정도였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계속농성 주장이 우세하긴 했으나 우리의 논의가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모아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아래층 계단으로부터 경비교도대원들이 방패를 들고 진압복 차림으로 밀고 올라왔다. 교도관들도 상당 수 섞여 있었으며 약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우리쪽은 복도에 불까지 꺼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진압 교도관들을 방어하느라 질서있게 앉아 있던 대열이 흐트러졌으며 쌍방간에 욱지거리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서 신남희 동지와 김근태 선배가 앞으로 나가 양쪽의 진정을 호소하며 구치소측의 보안과장이 직접 나와서 일단 진정을 시키고 대화로 하자고 했으나 혼란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거의 들리지도 않는 소리가 되어 파묻혔다. 드디어 최루탄 한 발이 어둡고 좁은 복도를 향해 발사되었으며 우리 동지들은 주변에 있는 무엇이나 잡아서 휘둘러대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이번에는 복도의 뒤쪽 방향에서 문이 열리며 대규모의 교도관들이 또 밀어닥쳤다. 상황의 급박함에 대처하기 위해 단병호 의장님과 김학원 동지 그리고 장명국 선배 등이 앞에 잠시 모여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기로 하고 구치소측의 주임에게 일단 10분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하자 2분을 주겠다 하여 간신히 상호대치 상황 속에서 2분간의 시간을 얻어 김학원 동지의 사회로 일시적으로 당장의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으나 우리측 모두는 일단 교도관들이 물러난 다음에야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이를 갖고 김학원 동지가 구치소측의 주임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사이, 아래쪽 계단에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최루탄이 터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거의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교도관과 경비교도대들에게 폭행당하며 교무과 밖으로 끌려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교무과 밖에서 징벌사동인 6동과 7동으로 가는 넓은 통로에서와 6동과 7동까지 도착해서 발생하였다. 한 사람을 잡아서 20-40여 명의 교도관들이 달려들어 집단적으로 폭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끌려나온 상태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력사태가 곳곳에서 자행된 것이다. 물론 우리쪽도 일방적으로 고분고분하게 맞고만 있지는 않으려 노력했으나 완전히 역부족이었다. 물론 이러한 완전히 비이성적인 상태에서도 일부의 지각 있는 교도관들이 외치는 때리지 말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으며 자기몸으로 우리를 감싸면서 보호해주는 교도관도 있었으나 그렇게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었다. 워낙 썰리는 사람이 많았고 감정폭발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교도관의 감정적 폭행이라 함은, 우리가 교무과에서 끌려나와 6동과 7동 앞에 당도한 후에는 경비교도대원들이 철수한 상태였고, 남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교도관뿐이었으며, 때릴 때마다 하는 말이 교무과 농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거의 전부였음으로 증명된다.

가혹행위

일단 무자비한 집단폭행은 우리 모두가 6동과 7동에 분산수용이 완료된 저녁 9시경에 중단되었다. 그러나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구치소 전체에 퍼진 최루탄 가스냄새를 맡으며 알아차린 농성미참가자 사방거주 동지들은 곧바로 각자의 방에서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교도관들의 린치는 아주 계획적이었으며 농성참가자에 대한 집단폭행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자행되었으며 이들 모두도

곧바로 징벌방으로 끌려갔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야밤의 정좌점검에 항의하는 일반재소자 10여 명도 똑같은 경우를 당해야 했다. 징벌방에 갇힌 직후 약 10시 경부터 다시 교도관들의 집단 방문이 재개되었다. 일일이 한방에 5명씩 할당되어 들어온 그들은 다짜고짜 밟으며 전신을 포승줄로 꼭 묶었다. 이른바 통닭구이 고문이었다. 그러나 통닭구이로 묶인 채 10분도 못되어 그 고요는 비명과 신음으로 일제히 깨져나갔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지고 다시 짓밟는 소리가 엇갈려 퍼져나갔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일단 족승(발을 포승줄로 묶는 것)(……)무엇하나 공동행동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일단 상호연락과 정보교환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이며 구치소측의 규정준수 의지에 비해 우리쪽의 위축이 너무 강하다. 환자들도 많으며 움뻐고 날뻐고 할 수가 없다.

필히 고려해야 할 구치소내 상황

우리 사건이 나기 며칠 전에 우리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집단난동사건이 있었다. 내용인즉, 조직폭력배의 중간 거물급으로 알려져 있는 한 재소자를 이감시키려는 구치소측의 정상적인 조치가 조직폭력배 약 50여 명의 집단난동에 의해 중층의 유리창 모두가 박살나고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끝에 결국 보안과장이 이에 굴복, 구치소 사상 최초로 이감이 좌절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9월 5일 오전에도 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14상(上)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똑똑히 전과정을 다 볼 수 있었는데, 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감이 당사자가 유리창 전체를 박살내면서 일대 난동을 부리면서 약 1시간 30분이나 지연되었다. 아침식사는 건빵으로 대체되었다. 보안과장이 직접 와서 달랬으나 결국

같은 패거리 4-5명이 합세해서 사동을 완전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자 경비교도대원 교도관이 최루탄을 쏘며 강제진압했고 이 와중에서 당사자(조직폭력배)는 유리창으로 동맥을 끊었다(나도 최루탄 때문에 고생이 매우 심했음).

즉 교도소 행정이 최악의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개척해놓은 제반 활동여지가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되어 상상할 수도 없는 단체행동으로 교도소에 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기에 매우 미묘해졌다. 또한 조직폭력배에 대한 추가기소 문제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는 훨씬 어려워질듯하다. 똑같은 폭력집단행동(난동)에 대해 별도의 차별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형편이 현재 구치소측의 입장일듯하다.

구치소의 경색이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일련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본다. 지금 조직폭력배들의 분노와 대항성도 부글부글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샌드위치가 되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치범의 별도수용 문제가 나오고 있으나 분위기가 조금 풀려야만 가능할 것 같다.

1990년 8월

지금의 우리야말로 하나입니다

동지들 ! 우리 모두 함께 나갑시다. 지금 우리에게 NL이 어디 있으며 PD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여드는 포승줄이 우리 각자의 피의 순환을 막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드디어 하나로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없이 공평하게 두들겨 맞고 공평한 평수의 독방에 간혀 공평하게 밥을 굶고 있는 지금의 우리야말로 하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내부의 모든 차이가 완전히 극복된 상태입니다. 나이 많다 하여 살살 묶고 나이 적다 하여 짝 묶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직 평등한 폭력과 평등한 고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저들이 우리의 통일됨을 촉발시켰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됨으로 완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6동과 7동을 때리는 비명으로 만나고 있으며 그 비명 하나하나가 우리 가슴에 꽃혀 한 두루미로 엮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통닭구이로 통일된 것이며 절대 반성할 수 없다는 굳센 의지로 통일된 것입니다.

‘반성이라는 이름의 열쇠’를 권 동지는 26명의 동지들 중 3명뿐입니다. 나머지 23명의 동지들은 식구통에서 식구통으로 연결되는 서로의 격려와 의지의 복돋움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해나갔습니다. 선배는 나이값을 하느라 앞장섰으며 후배는 젊은이답게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대표인 김학원 동지의 군대 인사제와 같은 풍부한 경험과 짜임새 있는 지휘통솔이 가장 큰 지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사망 중간중간에 박혀 있는 5명의 삼민 동지들이 나이값을 해준 것도 주효했으며 민자당 농성 동지들 및 학생 동지들의 단호함이 뒷받침되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온종일 반성문이라는 노리개를 가지고 한사람 한사람씩 불러놓고 항복을 권유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주임한테 시달릴 때는 “혹시 흔들리는 동지가 없을까” 했던 우려와 걱정은 저녁 통방 직전의 인원점검에서 전원이 “건강합니다”, “잘 있습니다”, “더 썩썩합니다”라는 답을 통해 말끔히 사라지고합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통닭구이와 공갈협박에 시달렸으나 승리의 저녁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구치소측은 하루종일 괴롭히고 공갈치느라 피곤도 했겠지만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자, 고통의 밤을 맞게 되었으며, 고통을 받은 자, 승리의 저녁을 맞게 되는 희비의 쌍곡선이 전개된 것입니다. 밤은 밤이되 한쪽은 어둠의 밤을 주었으며 한쪽에겐 희망의 밝은 밤을 준 것입니다.

우리 23개의 방문은 오늘도 단 한 개도 안열렸으나 우리 마음의 문은 오늘도 모두 활짝 열려 하나가 되었습니다. “충격이, 괜찮냐?”, “네, 형은요?” 등으로 한참 어수선하게 시끌시끌하다가 서서히 지방방송이 꺼지고 중앙방송인 9방 김학원 동지의 하루종일 및 내일 일과소개가 방송되었습니다. 곧이어 중앙방송마저 꺼지고 고요가 찾아들면 우리는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또하나의 방송을 들으며 우리의 동지 범위가 더 넓게 번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에서 들려오는 구호와

밥그릇 굽는 소리와 더 멀리서 들려오는 민가협 동지들의 합성소리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단결에 대한 축복의 방송이며 격려의 방송이며 연대의 방송이 되어 “버틸만하다”, “꼭 버텨야지” 하는 투쟁의 의지로 피어나게 만드는 힘찬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방문은 한꺼번에 모두 활짝 열렸습니다. 저들의 열쇠는 열쇠 하나가 한 방밖에는 딸 수 없지만 우리 단결과 투쟁의 열쇠는 23개의 방을 한꺼번에 따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실하게 확인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렇게 뻗어나 바로 누렇게 통일된 것이며, 한결 수척해졌으나 바로 수척하고 야윈 모습으로 통일된 것이고, 이제는 모두 환한 웃음으로 통일되었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고생을 어르림으로 하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이탈의 유혹을 분쇄하고 타협과 굴종의 협박을 깨뜨리며 단결과 투쟁의 무기로 승리의 환방을 쟁취한 것입니다. 우리를 가혹하게 폭행하고 고문한 자들은 똥뿔은 표정으로 일그러졌으며 짓밟히고 통닭구이로 내동댕이쳐진 우리는 만면에 웃음을 머금은 채 6동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 8월 27일

민가협 어머니들과 부인 동지들께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우리는 어제 9시 50분 경 모두 징벌방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때까지 6동 하층 26개의 방 중에 23명이 남아 있었으며, 7동 상층에 14명의 동지가 남아 있었는데 마침내 방문이 열리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손을 굳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분명 금번 투쟁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그 중간 단계에 와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성과는 거의 전적으로 가장 가열차게 싸워오신 민가협 어머니들과 부인 동지들이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싸늘한 독방에 통닭구이가 되어 뒹굴고 있으면서도 시멘트 담장과 쇠창살을 뚫고 들려오는 아스라한 '함성의 복음'에 심신을 적시며 새로운 투쟁의 대열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들과 부인 동지들의 투쟁은 정말 너무나도 절절하게 우리의 투쟁전선을 떠받쳐주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민가협의 투쟁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고독한 투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승줄과 통닭구이에 가로막



우리는 싸늘한 독방에 통닭구이가 되어 텅굴고 있으면서도 시멘트담장과 쇠창살을 뚫고 들려오는 뜨거운 사랑과 애절한 연대의 함성에 심신을 적시며 새로운 투쟁의 대열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헌 피의 순환은 그냥 계속 멈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가협 어머니와 동지들이 가열차게 외치는 함성이 들리는 모든 지역의 동지들은 한 평 독방의 고립무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어둠과 공포의 적막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었습니다. 실로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없는 구두발들이 몰려들어 동물적 욕설을 퍼부어대며 우리를 한껏 쥐새끼보다도 작게 축소시켜내려는가 싶더니, 다시 그 철문이 닫히고 고요가 찾아든 때 이제는 너무나도 그럽고 그리운 어머니와 부인 동지들의 뜨거운 사랑과 애절한 연대의 함성이 창살을 헤집고 우리의 지친 몸을 감싸줍니다.

그리고 집견을 통해서 동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불사한 동지들의 투쟁을 전해들었으며 철야농성 투쟁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우리 걱정에 짧은 만남 속에서도 목이 메어 말을 못꺼내는 동지들

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우리는 어머니와 부인 동지들이 하고픈 말들을 뼈에 사무치도록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동지들이 하고픈 말들이 뼈꾸라이프와 쇠창살을 통해 10여 분 정도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정나갔던 김진국 동지로부터 '식구통'(밥 들어오는 구멍) 보도를 통해 동지들의 투쟁과 연대가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부분적인 접견을 통해 확인된 투쟁소식들이 하루 네 번씩 종합뉴스로 묶여 모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고 동지들이 투쟁에 합류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금번 가족연대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진보적이며, 값진 것이며 힘찬 연대인가를 다시 한 번 전진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안방의 연대와 혈육의 연대에 비해 우리 투쟁의 연대와 동지적 연대는 얼마나 진보적이며 얼마나 순수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조여드는 포승줄을 끊고 힘차게 피를 돌리는 힘이었으며, 막힌 담장을 무너뜨리고 찾아드는 해방의 빛이 되었고, 주린 배를 가득 채워주는 사랑과 격려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함을 질타하는 체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가협 어머니와 부인 동지들의 모습은 결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나 달을 매개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투쟁과 투쟁의 동질감으로 왔으며, 함성과 함성의 만남으로 왔습니다. 또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승리의 기쁨으로 왔습니다. 세제날에는 묶인 밧줄이 풀렸으며, 네제날은 수감없는 날이었고, 마지막날 밤은 잠긴 철문이 열리고 우리의 숨결이 댐 사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가협 어머니 그리고 부인 동지들! 다시 한 번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는 서서히 빈 속을 죽으로 달래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남은 투쟁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하

여 금번 투쟁을 가열찬 가족연대투쟁의 좋은 사례이자 분기점으로 발전 시켜내고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통해 투쟁만큼 진실한 사랑이 없으며 투쟁만큼 정직한 '사랑의 잣대'도 없음을 깊이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투쟁하고 있는 남편과 아들, 딸, 사위에게 투쟁만큼 확실한 사랑의 표현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신 동지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1990년 8월 27일

교도관 여러분 !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교도관 여러분 ! 우리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치범입니다. 우리는 썩을대로 썩어문드러져 다수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으면서도 소수 자본가에게 한없는 특혜를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불평등과 비인간적 사회로 만드는 현 노태우정권과 자본가계급을 척결하고자 싸우다가 구속·수감된 정치범들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으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든 주범인 현 노태우정권을 타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며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잠깐만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87년 6월항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확대와 생활의 개선 그리고 통칭하여 민주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좀더 노골적으로 예를 들어 교도관 여러분의 처우 문제만 해도 과연 3년 전

대투쟁이 여러분의 여러 방면의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하겠습니까? 과연 범무부 당국과 상급자들이 예전과 같이 마음대로 일선 교도관들의 불만과 요구를 눌러댈 수만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만만하게 죽어지내고만 있습니까? 물론 그러한 여러분의 발전과 개선의 절반 이상은 바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절반쯤의 힘은 그동안 수도 없이 피뿌려가며 싸워온 동지들과 구속된 동지들이 다져놓은 것임을 분명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죽었으며 청춘을 다 날렸으나 군부독재정권과 가진자들의 횡포와 착취, 수탈을 일정하게 후퇴시켰습니다.

교도관 여러분 각 개인이 부모님을 두고 있고 처자식과 형제들을 두고 있듯이, 그들 정치투쟁의 투사 역시 예수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그들 가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아픔의 못을 박았으며, 철창 속으로 가족을 보낸 이들 역시 한날 한시도 '떠순 밥을 맘 편하게 못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다수 노동자·민중의 여러 성과는 가장 중심적으로 평범한 노동자·민중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이지만 앞서 언급한 동지들의 소박한 투쟁의 연속 역시 그 중 한몫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치범이 마치 사회의 발전 모두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식의 허무맹랑한 주장이야 해서 는 절대 안되겠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정치범은 사회발전의 범법자(?) 이지, 반사회적 범법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애초의 목적상 반사회적 범죄자들의 수행생활 감독을 책임지고 근무하고 있는 교도관 여러분에게는 우리 정치범이 임무와 권한 밖의 해당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도관 여러분은 반사회적 범죄자들과 가장 사회적인 범법자들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모순의 직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정치범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도 그 투쟁을 멈추지 않고 행형법이나 제반 독재정권의 체제유지적 관료들을 거부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범죄자들대로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편의를 도모하려고 행형법과 교도소 행정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정치범이 투쟁으로 개척해놓은 제반 편의는 곧바로 일반 범죄자 모두의 편의로 연결되고마는, 전혀 우리 정치범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들이 종종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금번 우리 서울구치소 내의 정치범에 의한 집단적 농성투쟁입니다.

우리는 행형법의 부당한 도서검열제도의 철폐를 내걸고 싸웠으나, 일반 범죄자들에겐 구치소측을 무력화시켜 모든 범죄적 편의를 확대해낸다는 식으로 해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수들 때문에 도대체 구치소 운영이 개판이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이 가장 반사회적인 정권에 의해 가장 반사회적인 체제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정치범을 구속하여 그 관리·감독을 애꿎은 교도관들에게 맡기게 되는 한,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과 섞어놓는 한, 구치소는 결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 자신이 구치소의 간부급 정도가 되어서 정치범에 대한 관리·감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어떤 정치적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몰라도 대다수의 일반 교도관들의 애로사항과, 봉급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노력봉사’는 영영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도관 여러분은 그 헛된 고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치범을 가혹하게 다루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란 기껏해야 순간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가혹행위를 지시한 자가 궁지에 몰리면서 떠넘기게 되는 징계의 위협밖엔 없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보적 방향만을 향해 진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범을 탄압하고 감정을 가진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

다. 여러분이 가중되는 피로와 짜증을 정치범을 탄압하거나 이미 악법으로 낙인찍힌 현 행정법의 준수를 폭력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의 근무규정 이외의 노동을 강요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도둑놈 깡패 다스리기도 벅찬데 정치범 양심수까지 다스리라는 거냐는 식의 요구와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현정권과 자본가들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정치범을 잘 다스려준다고 봉급을 더 주거나 훈장이라도 달아줄 정도로 인정넘치는 도둑놈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근무의 대가는 사실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훨씬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범죄자를 인간적으로 교화시켜낸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허구에 가득찬 껍데기 치장에 불과함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우리와 함께 연대하여 일반 범죄 양산의 주범인 노태우 정권의 타도와 자본가계급의 타도를 요구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도관이라 할지라도 양식이 있고 같은 사회에 살고 있다면 누가 나쁜 놈이고 건설적인 사람인가 정도는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재소자를 관리·감독하는 단순노동자이지 사회사업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봉급지급의 사유에도 없는 ‘체제유지’ 노동만은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이게 징역인지 아우, 형제 수준으로 해달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행정법과 구치소 운영규정을 몽개려는 정치범들과 옥신각신하는 노동은 교도관 당신들이 맡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노동입니다. 그것은 노태우와 자본가들 스스로가 말든지, 행정법을 개정하여 정치범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범은 교도관 여러분께 담배를 요구한 것도, 비리를 눈감아줄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잖습니까? 정치적 생활, 자유로운 정치토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사회적 정보의 보장, 그리고 자유로운 독서 보장과 정상적인 운동 그리고 정상적인 집견과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의 보장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그럼 그게 징역이냐, 니네 집이지”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요구가 모두 해결된다고 해도 그것은 징역이지 우리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데 대한 정반대 방향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오히려 최소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교도관 여러분, 우리는 결코 당신들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짜증과 증가되는 노동은 우리 정치범을 그저 일반 범죄자들과 동일시하여 다스리려고 하는 ‘마비된 사회의식’과, 자기 봉급의 내역도 모르는 채 추가노동을 받아들이는 ‘바보같은’ 어리석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정치범들이 개판을 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 그 누구도 동시대를 같이 살면서 아주 기초적인 사회의식이 없음에 대하여 가해지는 손가락질과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교도관 역시 절대 그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노태우 꼬붕도 혁명적 투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대체 사회발전 없이 그 어떤 개인의 발전이 가능한 적이 있습니까? 도둑놈 빼놓고 말입니다.

1990년 8월 27일

“위(직)장 폐쇄 철회하라!”

자고로 사람은 어딜 가나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요즘 그 명언의 진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세월을 살고 있다. 나는 군대 갈 때도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고생바가지의 육군하사를 달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군대 3년 내내 아주 성질이 드런 놈을 바로 2주일 고참으로 모시고 살았다. 사람 패는 걸 역사적 사명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놈이었는데 나는 그놈 때문에 총기 사고까지 일으키고 탈영까지 시도할 정도였다. 물론 내가 선 줄이 아주 몹쓸 줄만은 아니었다. 나는 군대에서 의식화되어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금번 징역은 줄을 잘못 서도 한참 잘못 섰음을 요즘에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번까지 합치면 자그마치 약 4개월 동안 4회의 단식투쟁을 하게 되었으며, 그 기간도 보통 4-5일씩이나 된다.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단식투쟁을 하다보니 그 ‘줄’ 타령이 안나올 수가 없다.

아, 싸우는 것 까지야 다 좋은데 왜 하필이면 맹렬한 위장의 요구를 철저히째 외면하는 투쟁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단식투쟁은 각자 개별적으로 만나 들어보면 거의 100프로 반대하면서도, 이상하게 단체적으론 항상 단호하게 결정된다. 마음의 손은 반대를 표시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번쩍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처음부터 단식 반대의 손을 번쩍 들었고 반대의 근거를 조목조목 적어서까지 돌렸었다. 그런데도 또 단식 5일이 결정되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술선수범해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는 주석까지 붙여 “위(적)장 폐쇄” 결정문이 우송되었다. 나는 순간 “아, 아 줄을 잘못 서도 되게 잘못 썼구나”라는 한탄을 삼켰다. 징역의 단식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보통의 건강단식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나는 단식시간 바로 전까지 깍듯하게 밥을 먹는다. 물론 지도부에서는 죽을 먹으라고 권고하지만 그것은 안 지켜도 되는 권고사항이며 강제사항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지만, 어차피 건강 생각해서 단식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위장폐쇄’일 직전까지 착실하게 위장에 음식물이 정상출입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위장폐쇄 시간이 다가오면 그러한 배려는 불가능해진다. 정문이 굳게 닫히고 위장의 생산적 활동은 중단된다. 물론 그 이하 생산라인 모두가 자동으로 중단된다.

단식은 위장의 생산적 기능을 중단시키지만 두뇌의 ‘비생산적’ 기능을 대단히 급속하게 가동시킨다.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 온갖 음식물들의 상들이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다. 그러나 화면에 떠오른 것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떠올랐을 뿐이다. 왜 그렇게 개고기는 먹고 싶은지, 선지국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입 안에 침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김밥, 떡볶이, 오징어, 모듬회, 해물모듬

탕, 김치볶음밥(〈희망사항〉 노래 중의), 〈토지〉의 월선네 국밥, 월선네 막걸리, 동인천 할머니집 삼치구이, 영등포 시장 감자탕, 부평역 앞 생굴 한 사리에 소주 반 병, 자유공원 언덕밭이의 골뱅이 한 사리와 소주 반 병, 부평 모듬찌개 골목의 '부흥집', 종로3가 뒷골목의 청어구이와 소주 반 병, 무교동 할머니집 낚지볶음과 소주 반 병, 명동칼국수, 신포동 만두, 신당동 떡볶이 등등.

궁상이라는 화면에 떠오르는 음식물은 이 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난데없는 뱀탕과 흑염소, 개소주까지 등장한다. 소주 반 병에 동태매운탕이 그렇게 사람을 무아지경으로 빠뜨리는 식단인 줄은 이제야 겨우 깨달았다. 그 동태매운탕에 푹 삶아진 몽뚝한 무는 또 얼마나 맛있는 것인가! 그리고 닭도리탕의 대파는 그 형제지간이다. 상추 위에 깎잎을 겹으로 얹어, 다시 그 위에 파무침으로 자락을 깔고 고추 반쪽과 미늘 두어 쪽을 얹은 다음에 된장 약간 고추장 약간, 물론 온갖 양념으로 버무린 데다가 들깨를 비벼만든 장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 개고기무침을 듬뿍 얹어 상추의 넓은 치마로 그 전체를 감싸 왼손에 대기시킨 채 오른손으로는 앞동지가 따라준 소숫잔을 들어, 순서에 입각해서 소주의 오른손을 먼저 움직여 한입에 소주를 쭉—들이키고 그리고 끝이어서 왼손의 개고기 성찬을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는 맛이란!

단식은 위장을 가난하게 만들지만 기억과 상상의 영역을 너무너무 진수성찬으로 꾸며준다. 그게 음식들의 성찬인지 궁상의 성찬인지는 잘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찬은 성찬이다. 그런데 단식이 나를 괴롭히는 건 무심한 모니터의 화면만이 아니다. 단식투쟁을 보완하고 단식투쟁과 결합하기 위한 우리 처의 사랑의 보급투쟁이 그것이다. 아무도 몰래 당신 혼자 먹으라고 넣어주는 후방의 보급투쟁이 갑자기 양적·질적으로 향상된다. 이 마누라가 지금 잘 싸우라고 넣어주는 건지 투쟁대열에서 이탈하라고 무화과 나무를 넣어주는 건지 잠시 헛갈림의 웃음

이 나오기도 하지만, 하여튼 문제를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는 대단히 복잡한 변증법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선 보급투쟁이 중단되지 않을 범위 안에서 점잖게 아내를 야단치나 기왕 넣어준 것은 먹어치우고, 먹기는 먹으나 음료수 계통으로 먹기 때문에 양심을 달랠 수 있고, 그래도 역시 허전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식계속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고 등등의 비변증법적 변증법이 동원된다.

이쥘든 필자는 단식의 남발에 대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야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번의 경우와 같이 다른 방식의 투쟁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또 단식을 해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너무 많다.

만약 어차피 이력저력 먹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그 결정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면, 절대 그러한 술수주의적 전술대책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추잡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방식의 투쟁은 정말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선뜻 찬성하기 힘든데 왜 또 단식결정이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결정되는지……. 참 한심하고 안타깝다. 가벼운 단식투쟁은 분명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잃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자기확대 방식의 전술이 가지는 후진성이다.

상황이 아주 급박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사람이 먹을 걸 앞에 두고 며칠씩 굶어야 한다는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모르겠다. 왜 투쟁을 거의 완전한 의지의 문제로만 치환시키는가?

우리(구속자)는 흥정대상이 아니다

현정부의 7·20 대북한 자유왕래 제의는 북측 정권에 의해 간단하게 통그러져나갔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인사 석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수락할 수 없다는 이유가 붙여지면서, 그러나 남한의 현정권 또한 그렇게 쉽게 물러설 정부는 아니었다. 북측이 사상범을 석방하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한다면 이쪽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맞받아 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부터 서로 한번씩 해본 소리에 불과했을 뿐 통일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지 않기는 매한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질척한 여름 장마 속의 허튼소리 경쟁전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 과정은 천만 이산가족의 한뭇한 마음을 일시적이거나 들뜨게 했으며 수백 구속자 가족들의 마음 또한 들뜨게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양쪽 정권에 의해 농락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다시 한 번,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기에 항상 분단의 아픔을 가누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소박한 마음마저 자신들의 정치적 사리사

욕을 채우기 위해 철저히 이용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었다. 물론 진정으로 통일을 위해서라면 현행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구속자는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한 법을 그냥 두고서, 그리고 그 법으로 처벌해놓은 구속자를 수백 명씩이나 그냥 가두어놓고서 '남북통일'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세살아이가 봐도 세팔간 거짓말임이 틀림없다. 북한은 여전히 타도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계속 고집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은 이제 더이상 적이 아니며 통일의 한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와야만 '그 거짓말'이 진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쪽 반대 정부의 하는 일도 그렇게 납득하기 쉬운 말과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북쪽 내부의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기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북한 자유왕래 문제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 석방을 하지 않으면 자유왕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지 실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조건 없는 남북한 민중의 자유왕래를 선행시킴으로써 그러한 가운데 다수의 민중들이 직접 남북대결과 냉전의 논리와 벽을 허물어내면서, 현행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그 근거로부터 와해시켜나가는 수준을 밟으면 안되는가라고 묻고 싶은 것이다. 분명히 하건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당사자로서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구속자 석방이 선행하면서 남북한 민중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것이 훨씬 좋다.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한 민중 자유왕래와 같은 통일진전의 실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과 구속자 문제가 조건으로 내걸어지며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 성질의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금번의 남쪽 제의에 대해 북쪽에서 "조건 없는 전면 수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군축으로 나아가자" 라고 나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마음 같아서야 님도 보고 뽕도 땀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지난 45년간 오직 대결과 적대심만을 키워온 우리의 형편에 비추어볼 때 남북한 민중 자유왕래라는 '뽕'만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뽕밭에 님이 있는 것이 틀림없는 한, 국가보안법의 실제적 근거가 '남북대결'에 있는 한, 남북의 민족재회가 석방자 가족재회로 이어질 날은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1990년 8월 초순

방이 4개

줄지에 내 방이 4개씩이나 되었다. 남들은 방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든 데, 나는 갑자기 방이 4개씩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 강요된 방 소유권은 그 취득 순서에 따라 방생활의 고통이 누증되는 방이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얻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14동 상층 2방은 이제 제법 아늑한 나의 생활공간이다. 물론 우리 진혁이와 내 분신과도 같은 컴퓨터가 있는 인천의 방보다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독서와 학습과 집필의 측면에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조건이 구비된 방이다.

그런데 갑자기 세번째의 방이 생긴 것이다. 27일 밤에 나는 14상 2방을 그대로 놔둔 채 6하 5방에 갇히게 되었다. 6하 5방은 징벌방이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손발이 뽀뽀 묶여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는 14상 2방의 아늑함과 내 숨결 가득찬 방을 너무나도 그리워했다. 우리 진혁이의 재물이 함께 하는 인천의 방은 고사하고 14상 2방만이라도 그 얼마나 소중한 나의 방인가를 생각하니 지금의 방은 너무 정떨어지는 썰렁한

방이다.

도대체 사람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있자니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내 방으로 돌아가나라는 생각만 들 뿐이다. 그런데 6하 5방의 기거가 하루가 지나고 이들이 지나자 이 방에서의 생활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밥그릇(물그릇 : 단식중이기 때문에)이 들어오고 모포가 들어 오고 치출과 치약, 비누 그리고 수건 등이 배달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제법 있을만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루 이들 살다보니 방에 서서히 내 숨결이 번지기 시작했으며 나도 적응이 되어 친숙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슨 일인가? 방이 또하나 생긴 것이다. 목이 아파 의무과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마침 같이 치료하러 온 동지를 만나 이 소식 저 소식을 나누고 있는데, 아프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통방하면 안된다고 의무과 옆에 달려 있는 대기방 중에서 독방으로 가두어놓는 것이 아닌가? 의무과 대기 4방. 이걸 말이 방이지 창문도 하나 없고 화장실 변기도 다 부숴져 있는 완전히 나간 방이었다. 아이구, 비록 징벌방이지만 모포가 깔려 있고 화장실 변기도 고장나지 않은 6하 5방이 얼마나 괜찮은 방인가 하는 생각이 금방 들 정도였다. 이걸 어디 누울 데가 있나, 마땅하게 맘 붙이고 앉을 데가 있나, 비는 들이치고 바람은 세차게 부는데 닫을 창문이 있나. 하여튼 정나미가 푹 떨어지는 방이었다. 나는 그저 어정어정 서서 주춤대다가 “154번” 호명을 받고선 “에이, 빨리 6하 5방 징벌방으로 가자”라며 후딱 나왔다.

그러나 이제 그 6하 5방도 버리고 다시 14상 2방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우리 이쁜 진혁이가 있으며 컴퓨터가 있는 진짜 내 방을 생각해 본다.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는 내 방. 나는 그 진짜 내 방으로 언제 돌아갈 것인가? 친구들과 밤새도록 같이 일을 하다가도 꼭 잠만은 집에 돌아가 자던 나였었는데, 새벽이라 해도,

비싼 택시를 타고서라도 말이다.

나는 푸근한 진혁이 곁에서 3사람이 한뭉음이 되어야만 잠을 푹 잘 수 있었는데.

1990년 8월 27일

제3부

징역의 겨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
—— 변증법적 유물론 학습
- 「자본론」 수필·1
- 「자본론」 수필·2
- 법무부 국비장학생
- 가방끈이 짧은 것은 수치도 자랑도 아니다
- 징역은 노동자에게 도서관이요 대학입니다
- 지난 10개월을 회상하며 앞날을
- 징역의 겨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 특별 잉여가치, 독점과 경쟁, 통계 문제
—— 정성진교수의 글을 읽고
- 언젠가 저는 하나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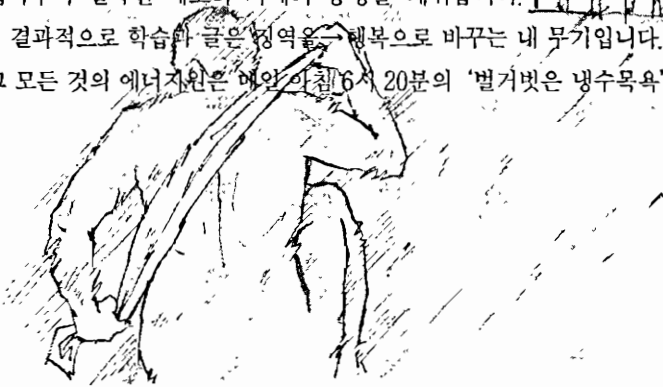
나를 아는 모든 이에게

징역에서 글을 쓰게 된 최초의 동기는 순전히 우리 가정의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징역을 사는 사람 누구나 다 그렇듯이 징역의 가장 많은 시간은 독서에 들어갑니다. 나는 징역의 거의 전시간을 책과 씨름하는 데 대한 여유를 베풀기 위해 글을 쓰는 시간을 가집니다. 징역의 윤택유 역할을 하는 셈이지요. 물론 글 쓰는 일이 그렇게 소극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쓰거나 단순발표를 위한 글을 쓰기보다는 상금과 평가를 가져올 수 있는 글을 지향합니다.

상금과 평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겨움기 그지없으며 가도가도 끝이 없는 활자의 터널을 여행하는 데 더 없는 긴장이며, 시간이 가는 데 대한 확인장치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즐거움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학습이 지적 탐구이자 밀거름이 되는 것이라면, 글은 유적 탐구이자 어쨌든 생산물입니다. 또한 학습은 흡수의 과정이나 글은 배출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다 징역에 도움이 됩니다. 글쓰는 일이 출력과정을 거치는 동안 메모리 안의 온갖 땅을 점진해주듯이, 학습의 입력과정 역시 배열의 질서를 잡아주며 결국엔 메모리 자체의 용량을 채워줍니다.

결과적으로 학습과 글은 징역을 회복으로 바꾸는 내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에너지원은 매일 아침 6시 20분의 '벌거벗은 냉수목욕'입니다.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 — 변증법적 유물론 학습

우리나라 격언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다. 사람이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비유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속이 차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비유이자, 그저 뭘 조금 알았다고 잘난 척 하며 내세우는 사람을 가리켜 나무라며 더 차분하게 정진할 것을 충고하는 비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실 앞서의 격언풀이는 한편으론 상당히 맞는 이야기인듯하면서도, 다른 각도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게 고상한 사람들을 한층 더 높은 인격으로 받아들여모시는 특권적 격언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결론을 먼저 말해보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벼의 의식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쌀나무의 맨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벼알이 점차 익어가게 되면 벼알은 그만큼 무거워지게 된다. 그리하여 길쭉하고 힘이 없는 쌀나무는 그 무거워진 벼알을 곧추세워 떠받들지 못하고 그만 고개가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벼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고개가 꺾이는 것이지 벼알이나 벼가 이제 익을 만큼 익었으니까 고개를 숙여야지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노동자의 지적·실천적인 성숙의 문제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진행 역사와 세계적 관련 등 실로 한 사람의 노동자 또는 한 나라의 노동자계급이 스스로의 인간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나가야 할 사항들은 참으로 많다. 세상의 역사가 복잡다단하고 우여곡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헤쳐나가야 할 우리 노동자의 과제 또한 많은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금번 징역에서 머리에 털나고 처음으로 차분한 심정으로 체계적인 이러저러한 공부를 하면서, 소위 지식인들이 무엇인가를 많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겸손해진다는 '벼알의 격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겸손의 결과가 아니다. 즉 그 사람의 품성이 낳은 결과가 아닌 것이다. 머리 속에 점점 더 많은 인간해방의 지식이 들어가면 갈수록 객관적인 인간해방의 법칙은 가까이 다가오는 동시에 멀어진다. 다시 말해 한 인간의 두뇌로 해명할 수 있는 것의 근본적 한계와 한 나라의 노동자·민중이 (예를 들자면) 해방되는데 필요한 '해명의 것들'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해명의 것들'을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더 스스로의 한계와 무식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아는 게 병이라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격언이 되는 것이다. 그 병적 현상이 바로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의식적으로 내뿜는 겸손이 아니다. 겸손의 고상한 금목걸이가 결코 아닌 것이다.

열을 가하면 물이 끓는 현상이 결코 물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지식 또한 그렇다. 물론 인간에게 의식적인 겸손의 노력이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즐기치게 열을 가한

과정의 한 반영이다. 즉 민중해방에 대한 즐기찬 깨달음의 토대 위에 핀 꽃이다. 그러므로 겸손은 천성이 아니며, 익은 벼알의 격언이 주는 품격 역시 지식인들의 독점물이 될 수 없다.

한편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알아도 그 '앎'의 내용과 목적이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거나, 다수 노동자·민중의 아픔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그는 결코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그리고 다수 노동자·민중의 직접적인 해방투쟁의 저력보다는 자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신하는 자 역시 그가 아무리 민중해방을 추구하는 선의에 가득차 있다 해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완성만이 보일 뿐 무식이 안보이기 때문이며, 민중해방투쟁의 원대한 비전 앞에 펼쳐져 있는 대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메시아적 능력만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소함과 무식함을 깨달을 수 없다. 무식을 모르는 유식의 불행이 닥치는 것이다. 만리장성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기껏 북한산성에 올라 크게 심호흡하는 것이다. 머리에 제대로 들어간 게 없으니 고개가 떨어질 리가 만무한 것이다. 거기에다 그런 사람들은 목의 힘은 꽤 세다. 그러나 변증법의 관찰력은 그 정도의 모가지 힘에 멈추는 나약한 철학이 아니라 결국에는 민중의 대의에 의해 목이 잘린다. 박정희와 차우세스쿠가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그 뒤에 줄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노동자 여러분! 만약 동지들 주변에 서울대학교 나온 동지가 노동해방이론에 대하여 짜—하게 많이 알면서도 이는 척을 안하고 사근사근하게 논리를 펴며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러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기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동지와 당신의 인격 차이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런 품격과 행동양식의 차이를 가져왔는가를 찾아보는 일입니다. 헌신적인 투쟁과 조직활

동 등의 실천이 그 절반이 될 것이며 나머지 절반은 전세계 민중해방투쟁의 역사 및 이론에 대한 학습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훌륭한 선반공의 넘치는 여유만만함과 용가리 닭 잡아먹는 듯한 프로페셔널한 작업방식을 한 번 꼼꼼이 생각해봅시다. 그 사람도 처음에는 몽키자루로 머리를 맞으며 쪼다 반푼이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 10월

「자본론」 수필 · 1*

맑스와 레닌의 동상이 노동자들에 의해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맑스의 「자본론」을 읽기에 여념이 없다. 독일이나 소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맑스주의는 낡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등자들이 있는데도 말이다.

나는 지금 시간의 진행을 거꾸로 돌리는 일을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맑스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본론」도 한번 못읽은 것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그 「자본론」을 읽고 있으니 대한민국 검찰과 체제가 요구하는 반성을 거꾸로 하고 있는 셈이다. ‘반성’의 강요를 ‘각성’의 자각으로 대체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징역 안에서 다음 징역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검찰의 밥벌이 요구와 일치한다.

* 「현실과 과학 8」(세길 : 1990), pp. 306-10.

또다른 방면에서, 맑스주의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근본적 회의와 이른바 ‘재해석’이 전세계적으로 교차되고 있는 판에 나는 맑스주의 그 자체를 연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전세계적 조류에 대한 역류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수준에서는 불가피한 역류적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무얼 알아야 근본적이든 부분적이든 ‘회의’를 하든가 말든가, 또 재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는가? 나는 지금 재해석과 회의를 ‘책임 있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적당히 서류에 휩쓸려 폼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 여러 번 해봤는데 사람 베리는 칩경이다. 운동을 1박2일 하다 그만둘거라면 또 모를까, 이런 역사적 격동의 시기에야말로 사람이 심지가 굳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나는 긴 우회로를 고집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역류이나 정도이다. 되도 않은 것이 걸땀만 잔뜩 들었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며, 소위 자칭 선진노동자로서의 책임있는 처세이기도 하다. 결국, 위와 같은 그러저러한 이유들로 해서 나는 얼마 전까지 맑스의 최대 걸작 『자본론』을 일단 한 번 정독할 수 있었다. 자그마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4개월여 기간을 온통 투여해서 얻은 작은 결실이기도 하다. 나는 그 기간 신문신청도 안했었다(말기엔 봤지만). 그리고 이제 막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책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있다.

『자본론』, 근 10여 년 가까이 나를 괴롭혀온 『자본론』, 그게 운동가에게(노동자에게) 성경이나 다름없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열심히 한 번 겨우 읽고나니까, 그건 두번째 읽어야 더욱 그 진가를 알 수 있대나 어쩐대나 하는 『자본론』. 약 25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그리스 신화로부터 셰익스피어, 괴테, 마틴 루터 등의 세기적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출현하는 『자본론』. 자본주의의 근원지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인도,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 전세계의 상황을 배경으로 담고 있는 『자본론』. 그러나 『자본론』을 한 번밖에 못읽은 나는 그



책을 통해 기껏해야 맑스라는 사람을 만나본 것 외에는 별로 깨우친 바가 없다. 맑스는 언젠가 자기 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쉽게 믿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악덕’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 그 숙원의 「자본론」을 읽은 나의 소감은 맑스가 한 말 그대로 “「자본론」을 읽었다고 괜히 주점떨지 말고(이는 척 말고) 제대로 알 때까지 더 공부하라”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자본론」의 독서는 즐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지겹고 고통스럽기도 했었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나 심정으로 넘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개념들도 적지 않았으나 영어사전, 국어사전, 「자본론」 해설서, 한영사전, 옥편(김수행 교수의 번역본을 읽을 때는), 철학사전 등이 있었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나의 작은 설명과 원리가 여러 장 또는 10여 장에 걸쳐 늘어지는 데서는 진땀을 빼며 찢절맸으나 그런 데는 다른 약이 없다. 맑스가 썼는데 어렵하겠나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꼭 뒤에

가서 사고가 생기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 방법은 오직 하나. 훌륭한 선반기술자는 선반에서 물건을 깎다가 불량이 나면 그걸 어떻게 수정해 볼까 하면서 주물럭대다가 적당히 다음 공정으로 넘기기보다는 아예 새 재료를 물려서 깎는 게 훨씬 빠르고 정당하다. 정신 벌떡 차려서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어쨌든 이해가 될 때까지 끝장을 낸다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물론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 주변에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즐비하다. 학문은 알자고 하는 것이지 모르는 걸 감추자고 하는 게 아니다.

하여튼 그럭저럭 하면서 책을 읽기는 읽었지만 지금 내가 그걸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본론』을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한다.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자랑하거나 가오잡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다소 무리를 해서 이야기하자면, 『자본론』이나 그와 같은 수준의 이론서는 노동자가 공장에 다니면서 읽기에 무척 어려운 책이라 생각한다. 거 괜히 공장노동의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게 가능한 방법론도 없이 강박관념의 부담까지 안겨주는 무책임한 언동은 삼가해야 한다. “그럼 너는 뭐냐”, “너는 천재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쏘아붙이는 동지가 있다면 나는 그에게 차분한 어조로 “나는 납니다”, “나는 지금과 앞으로의 내가 아니라 지난 10여년의 나입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나는 앞으로의 모델이 아니라 지나간 하나의 유형일 따름입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나는 자그마치 만 10년이나 걸쳐 『자본론』을 등장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본론』 5권(원서는 3권, 다른 책은 9권) 읽는 데 10년의 공식을 세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람 이야기하는 걸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자, 여기에서 난데없이 컴퓨터 얘기 잠깐 하자. 나는 원래 타지를

치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약 3년 전에 타자를 그것도 한 손가락으로 배웠다. 남들은 열 손가락으로 배워야 결국엔 타자를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고 조언했으나 나는 한 손가락 타자의 편리함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기회에 우연히 열 손가락 타자를 배우고난 다음부터는 이전의 내 생각이 틀렸다고 결론내렸다. 그렇게 타자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글자 모양의 좋고 나쁨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 중에 삼성 TQ120 전자타자기 글씨 모양을 가장 좋아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 타자기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그랬다. 그러나 그때도 나는 머뭇거렸다.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뛰는 게 잘 내키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다가 또 우연히 컴퓨터의 장점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100여만 원어치의 컴퓨터 장비를 구입했으며, 이제는 컴퓨터 없으면 생활이 답답해질 정도가 되었다.

노동자에게 본격적인 이론이란 앞서 예로 든 것과 비슷하다. 노동자에게 「자본론」을 비롯한 과학적 이론 학습은 정말 필요하다. 한 손가락 타자의 편리함을 고집하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컴퓨터로 글씨를 만들든 한 손가락 타자로 글씨를 만들든 그거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닌데 괜히 극성떨지 말라는 ‘시대의 후진성’을 옹호해서는 안된다. 노동자에게 본격적인 이론, 이론의 정수는 정말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라는 기본적 사고를 일단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기에서 해야 할 말의 딱 절반을 했을 뿐이다.

어쩌면 앞의 문제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나는 이 글 말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하고도 전면적으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언급하도록 한다.

하나는 안정적인 방법이다. 즉 안정적인 조건을 창출해내는 문제가

다. 그 가장 바람직한 예가 노동조합의 지원 또는 주변의 지원으로 파견교육,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공장에 다니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거 본격적인 이론의 학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루종일 공장일에 시달리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미분, 적분까지 등장하는 이론을 학습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도 그렇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이상의 것으로 들어가면 이론 이전에 수학을 배워야 하고 특히 국어와 영어 등은 아예 별도로 좀 배우기도 해야 한다. 물론 노동자가 배워야 할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초반부터 어려운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야 아니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하려면 금방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노동자의 이론적 현실수준과 배워야 할 이론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이 양자의 거리를 계속 고착화시키는 노동자의 공장생활 전반의 조건 등등을 고려해볼 때, 근본적으로 발상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주변에 의해 장학금제도로 운영되는 그리고 그 '노동해방장학금'으로 공부를 6개월이나 1년 이상씩 하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많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은 맑스나 레닌이 살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방법도 적극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시 이 방법은 아직 이상과 계획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앞의 계획에서 담고 있는 정신을 좀더 현실적인 조건에 결합시켜본다면, 역시 노조나 주변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을 위탁교육시키는 것으로서, 최소한 1주일에 2박3일 정도씩의 정기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다. 물론 낮에 공장에 나가고 퇴근해서 공부하는 방식, 그리하여 매일 조금씩 하는 방식은 여기서도 배제된다. 과학적 이론의 학습은 무엇보다 정신노동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의

확립과 정신노동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확보가 꼭 필요하다. 매일 저녁에 조금씩 하는 정신노동이란 과거의(낮의) 피로에 밤의 피로를 추가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밤엔 자고 낮엔 공부를 해야 보충수업도, 그리고 이어서 그날의 밤을 샌다 해도 계속 정신노동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속한다.

이론학습은 정신노동이다. 공장에서 잔업을 빼고 나와 다른 잔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딱 그만큼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론 본연의 내용이나 성격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그래서 결국엔 “세계에는 두 개의 계급밖에 없다”는 식의 뼈다귀만 앙상하게 주입되어, 이론 본래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여러 사람 괴롭히는 ‘흑백논리’로 둔갑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본인도 물론 포함된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한 한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 필자이며 그 상처의 아문 정도를 제대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본인이다.

마지막으로 시행착오나 좌충우돌 방식이 있다. 그것 역시 내가 해 온 것이기도 하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존속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맨앞에서 다 썼다. 아무래도 이 방식에서 가장 핵심은 구속이다. 그것은 강요된 것이지만 동시에 이론학습 하기에는 최상의 조건을 선물해준다. 이걸 아이러니라 그런대나 어쩐대나.

1990년 6-7월

「자본론」 수필 · 2*

노동자가 맑스의 주요 저작 「자본론」을 읽는다. 아니 읽었다. 그것도 그냥 평범한 선반기능공이었던 노동자가 결코 쉬운 이론서라고 할 수 없는 「자본론」을 읽었다. 여기쯤에서 필자를 알고 있는 일부의 독자는 “저거 또 뭐 좀 거들떠 봤다고 금방 티내고 있네”라고 역질을 낼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력저력 운동을 10여 년씩이나 하면서 할 일 못할 일 많이 겪어본 사람인데, 아직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그렇게 뻔한 얘기나 늘어놓을 사람이 아니다.

맑스는 1873년에 간행된 그의 「자본론」 1권 2판의 후기에서, 독일의 노동자가 「자본론」을 읽어주는 것이 필자에 대한 ‘최대의 보상’이라고 쓴 바 있다. 그의 「자본론」 1권이 1867년에 첫 출간되었으니 약 6년의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이 「자본론」을 공공연하게 읽게 되었

* 「현실과 과학 8」(새길 : 1990), pp. 311-17.

다는 것이다. 30대의 독일 선반기능공이었던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우리나라에 「자본론」이 한글로 번역되어 소개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만 3년 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소련판을 번역한 북한본과 독일어를 번역한 이론과 실천사본, 그리고 영어를 번역한 비봉출판사본 등 같은 「자본론」이 무려 세 군데의 출판사에서 한꺼번에 출판되어 있다. 이제는 그 과학의 무기를 우리 한국의 노동자들이 실천의 무기로 삼아주는 문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러나 독일어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내는 것보다도 「자본론」의 이론을 노동자의 실천으로 번역해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자본론」은 어떤 무기인가? 대학교수나 출판사의 밥벌이 무기인가? 아니면 지식인 운동가들의 치장용 무기인가? 그렇지 않다.

「자본론」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생산과 노동에 대한 분석이며, 자본의 운동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본가까지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데 대한 분석이다. 노동자의 인간성 파괴는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도처에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의 손상을 노리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가혹한 빈곤의 생활이 가져다주는 가정과 성격의 파탄 등이며, 자본가의 인간성 상실이란 자본가 자신도 자본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담당하게 되면서 잔인무도한 착취자 역할과 수탈자 역할, 그리고 부패와 향락의 생활 등을 통해 결국엔 노동자의 피를 들이마시며 살게 되는 그런 것이다. 사실 보다 엄격히 따지자면 맑스의 「자본론」의 주인공은 자본가이다. 그러나 「자본론」의 주인공인 자본가는 살려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출연한 주인공이다. 「자본론」의 진짜 주인공은 노동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 민중의 고통이 어떻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운동'으로부터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장편 드라마가 바로 「자본론」이다.

거기에는 지금의 한국 노동자 실상보다도 몇 배 더 험악한 노동자의 처참성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영국 나이로 두 살, 우리 나이로 쳐도 세 살, 네 살의 노동자 자녀들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 사람의 노동자로 등장하여 노동을 하기도 한다. 구로동 닭장집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한 가족과 그외 형제까지 같이 산다. 그리하여 『자본론』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그가 노동자라면) “내가 지금 과학적 이론의 정수를 읽고 있는지, 바로 내 이야기를 읽고 있는지”를 수시로 헛갈리도록 만든다.

그러나 『자본론』이 앞서 예로 든 식의 내용뿐이라면 나는 오늘 이 수필을 쓰지 못했으리라.

『자본론』을 비롯한 대개의 본격적인 노동자 이론서들은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편이다. 그래서 진정한 노동자의 무기는 아직 노동자의 머리 속으로 입력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으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산행을 그저 즐기는 사람은 산에 굳이 길을 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산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최초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은 뒤에 올라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길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비단 자기만이 산을 정복한 경우가 아닐지라도 어쨌든 흠바닥이 드러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자 자신을 주제로 하여 이루어진 노동자의 이론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문제 또한 앞서 든 예와 비슷할 것이다. 맑스 스스로도 말했듯이 『자본론』의 일부는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학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본론』을 읽어주는 것이 ‘최대의 보상’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노동자가 이 사회, 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구호와 생각들은 꽤나 널리 퍼져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단순하고 감상적인 깊이 이상의 것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정확한 현실이다. 물론 그러한 인식의 공공연한 인정은,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사에 근본적인 하나의 갈림길을 가르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노동자는 공돌이다라는 자기외면의 정서와 당당한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의식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에 비금간다. ‘라면도 못먹는……’으로 묘사되는 노동자가 노동해방사회를 일구어내는 투사가 되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구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테이의 미국 노동자투쟁의 역사와, 세계 최초의 코뮌(공산주의적 권력)을 건설했었던 프랑스 노동자의 투쟁이 이미 백몇십여 년 전에 선행했었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그리고 그야말로 열심히 투쟁하였으나 결국 진실로 노동자가 역사와 사회의 주인이 되지 못한 나라들은 그외에도 수없이 많다. 노동해방의 간절한 열망은 가득했으나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준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해방은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자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원칙이 서 있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닌과 러시아 노동자, 농민, 병사의 소비에트가 이루어 낸 러시아혁명이다. 바로 러시아 공산당과 러시아 노동자계급이 결합한 결과인 것이다.

바로 그 러시아의 유명한 혁명적 작가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를 읽어보면 코르차킨이라는 한 노동자가 「자본론」 등의 책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진솔한 사회주의적 노동자로 변모해나가는 모습이 아주 잘 그려져 있다. 레닌이 아주 열정적으로 노동

자에게 과학적 혁명이론을 전파하고 또 그 성과들을 조직해냈다면, 수많은 선진노동자들이 그 과학적 혁명이론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진실로 책임있게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레닌의 그것보다 결코 뒤지는 것이 아니었다. 무수한 이름없는 선진노동자들이 노동자에겐 공장의 노동보다 더한 고통일 수밖에 없는 과학적 이론의 흡수를 위해 어쩌면 레닌이 겪은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치르면서 노동해방의 열정을 불살라왔다. 그것은 노동해방투쟁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었으며 그리하여 러시아 노동자는 노동해방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쟁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필자의 소설적 가상이 아니라 실제상황이었다. 물론 이론이 부자라야 무조건 정의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맑스-레닌주의표 이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소위 이론가의 두뇌창고에 머물러 있기만 할 뿐 노동자의 실천의 지침으로, 투쟁의 자양분으로 녹아들어가지 못하는 한 그것은 아직 노동해방의 무기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얼마 전 폴란드의 바웬사는 이런 투정을 늘어놓은 바 있다.

“다같이 열심히 싸워왔는데 나는 이게 뭐냐”, “어떤 사람은 교수로서 자기 할 일 다하고 어떤 사람은 수상으로 또 그럴듯한 일을 하는데 노동자인 나는 맨날 노조위원장일 뿐이다.” 필자가 폴란드의 사정과 바웬사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이 예는 그저 하나의 예로서 그치자.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의 실상은 고사하고 실제로 노동자가 해방된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노동해방된 나라의 노동자가 정말 그 사회의 주인이 된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 간단히 말해, 노동자는 노동하는 사람이며 싸우는 사람이고 사회와 정치권력의 주인은, 그리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이 맡고 있다는 것이다. 그게 누구인가?

최근 우리나라 노동자·민중 운동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노동자 출

신의 운동가들 운동생명이 대단히 짧다는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때, 그 운동생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당장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한 이러저러한 것이 대부분이다. 진정한 노동해방과 직결되어 있는 정치투쟁의 문제나 한국의 노동운동을 둘러싸고 있는 과학적인 인식에 근거한 전술과 전략 논의와 실천에서는 사실상 주체적 이해에 기반하여 참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부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결정의 내용 준비와 그에 대한 진솔한 이해 정도는 매우 취약하다. 그리하여 얕은 이해에 기초한 운동이 결국엔 해당 노동자의 운동생명을 결정적으로 단축시키게 된다.

한국의 바웬사라는 칭호를 받고 데뷔했던 노동자도 여러 명 있었고 정말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등장한 노동자들이 적지 않았으나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복귀한 경우가 예사였다.

수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운동 출신의 운동가들은 노동, 농민, 정치(계도권), 문화, 의료, 교육, 언론, 출판, 빈민 운동 등의 영역에서 10여 년 이상씩 운동경력을 쌓고 있으나 노동자 내부에서 성장해온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역사의 주인은 지식노동자이지 생산현상의 산업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까지 하게 된다. 아니 노동자가 일반적 의미에서는 사회의 주인이지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적' 역할은 어차피 지식노동자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자·민중 운동의 실상이 이와 비슷한 상태이다.

박노해 동지같이 정치, 경제, 국제, 통일, 사회, 혁명 등 노동해방의 거의 전분야를 끌어안고 지도하여 “노동자가 진짜 사회의 주인” 이 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상한 의지에 비해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미덥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듯싶다.

저 사람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지, 혁명의 실제문제에 접근해들어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해방문학」은 노동해방을 자꾸 문학의 영역으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현실이 문학으로 되는 것이지 문학이 현실로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동지들에게 노동해방의 실제적 문제들을 차분하고도 끈질기게 그리고 정교하게 제시하기보다는 흥분과 과대포장 그리고 종교적 주술을 더 선호한다. 역사가 「노동해방문학」의 규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걱정거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훨씬 더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돌팔이 목사가 돈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듯이, 평범한 노동자가 「노동해방문학」에 어필하면 그 즉시로 ‘마침내 전선에 서게 되고’, ‘한국의 바부시킨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보면 다 허사인 것이다.

진정으로 진솔한 사회주의적 노동해방 일꾼은 <태백산맥>의 염상진과 같이 그 전과정이 짧은 영웅도, 풍선의 전선에 선 김미영도, 한국의 바부시킨도, 한국의 바웬사도, 갑자기 스웨덴 유행을 타는 남쪽섬 위원장도 아닌, 노동해방의 문제를 ‘과학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겨움기 짝이 없으며, 고통스럽고,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 인식의 혁신을 모색하는 그러한 노동자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결코 아름답게 꾸며질 수 없으며, 그것의 고통과 그것의 지겨움을 서로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도대체가 방방뜰 일이 별로 없는 것이며 학생출신 동지들을 시기하거나 배척하지도 않는다. 스스로 꾸준히 책임감을 가지고 실제적 능력을 쌓아나가는 과정이며, 주변의 지식인은 더없는 협조자이다. 바웬사의 주변 동료에 대한 투정과 그 불만해소책으로서의 대통령 출마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자본론」을 비롯한 노동해방의 과학적 무기는 노동자의 무기이다. 그것은 불끈 쥔 두 주먹으로 쥐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깡다구에 더욱 불을 붙이는 무기도 아니다. 또한 핵무기시대의 녹슬은 칼도 아니다. 대학교수의 밥벌이 무기도 아니며 아예 맑스가 책을 쓸 때부터 지식인용으로 별도 제작한 것 역시 아니다.

부엌칼로 연필을 깎을 수도 있지만 역시 부엌칼은 두부를 자르고 배추를 다듬어야 제격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의 과학적 이론들은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입력될 때 가장 잘 사용될 수 있다.

한날 조직폭력배 조직 하나를 이끌어나가려 해도 주먹 하나로는 안 되는 법이다. 하물며 1000만 노동자, 4000만 민중의 해방을 목표삼아 7000만 민중의 통일을 실현하고 전세계 민중해방을 도모하는 막중한 역사적 과제를 양 어깨에 지고 있는 우리의 선진노동자는 그에 걸맞는 행동양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노동자를 두드려잡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검사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이 비록 생각은 비뚤게 먹고 있지만 노력은 치열한 것이다. 그들도 한 청춘 다 날리면서 오늘에 이른 것임을 새겨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 노동자는 판·검사가 된 대학생들의 조건과 너무 많이 다르다.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공장에서 잔업·특근·철야를 했어야 되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그래서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대학생이 장관이 되는 것보다 몇 배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고집이며 억지이나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가치있으며 가장 위대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적 사명은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입증해왔

다.

노동자는 결코 무식한 공돌이가 아니며 아예 태어날 때부터 한계가 주어져 생산된 사람이 아니다. 노동자는 과학적 노동해방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함으로써 세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노동자가 진정으로 노동해방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깡다구 세고 자본가 타도의 심정으로 이글이글 타는 '불타는 심장'을 갖춘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요즘 흔한 말로 '수권계급으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출세가 아니며 '실속'을 차리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맑스, 레닌조차도 노동자에게 노동해방을 선사할 수는 없다.

노동자는 스스로가 주인으로서의 실속을 갖추으로써 사회와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1990년 6-7월

법무부 국비장학생

“서울대학교 나오셨죠? 무슨 과를 다니셨습니까? 아이 그러지 마시고 말씀해보세요. 우리도 지성인들에겐 일반 잡범들 같이 막 대하지 않습니다.”

극구 두 번 세 번씩이나 신진공고를 나왔다 해도, 자기가 무슨 서울대 총장이나 문교부장관도 아니면서 자꾸만 나를 서울대 졸업생으로 만든다. 나는 그렇게 회한한 겸손의 옥신각신이 길어질수록 내심 더 불안해지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나온 지성인으로 생각하고 50이 넘는 교무과장이 여남은 살 아래 사람에게 존대말까지 써가며 바쁜 시간 축내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자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일반 잡범과 동일학력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곱배기 막 대함을 당할 걸 생각해서였다.

교무과장이 사람은 우리 부모님 같이 그저 빨갱이운동 또는 이념적 운동은 서울대학교는 나온 지성인이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성

싶다. 물론 최근 들어서 노동운동 관련 노동자들도 많이 구속되고 있기 때문에 공안사범이라 해서 예전과 같이 다 '대학생 출신'으로는 생각하지 않으나, 아직 국가보안법 및 이념조직사건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성인,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

나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해봤었다. 운동을 만으로 10년씩이나 해왔으면서도 가끔씩은 '이거 운동 당분간 접어두고 일단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위해 대학입시학원에라도 다녀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정말 명문대를 다녀놓고 안다녔다고 해야 그게 겸손이지 실제로 안 다녀놓고 가는 데마다 안다녔다고 하소연하는 건, 이게 겸손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 거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선 거짓말한다고 욕박지르고 사람 아주 치사스런 놈이 되게 하질 않나, 교도소에선 달라는 책은 안 주고 지성인과 대화 좀 나누자고 성가시게 굴고 있으니 아무래도 운동을 접어두든지 아니면 정말 서울대 총장에게 통사정이라도 해서 졸업장을 타든지 해서 뭔가 좀 한 방향으로 통일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언뜻언뜻 드는 것이다. 아니 누가 서울대 졸업 사칭은커녕 신진공고 야간 다닌 것을 주간 다녔다고 속인 적도, 50등 이하 성적을 40등 이상으로 위조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먼저 서울대 나오신 지성인이지 않으시냐고 그랬다가 실망하는 걸 도대체 내가 왜 감당해야 하는지 참 답답한 노릇인 것이다. 가뜰이나 학력 물어보면 기죽는 사람을 가지고 왜들 그러는지 참. 나는 이렇게 진짜 서울대 나온 친구들보다 더 고매한 겸손의 지성인 '강요'를 여러 번 겪어왔다.

문교부에선 일찌감치 끊어진 가방끈을 치안본부와 법무부에선 자기들이 알아서 기며 이어주고 있다. 그러나 치안본부 대공분실이야 자기들 '실적의 명끈'과 '체제의 명끈'을 잇기 위해 억지로 붙여주는 끈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나, 이 법무부의 환경은 조금 다르다. 물론 법무부 역시 알아서 기는 지성인 운운은 우리 노동자의 징역생활에 하등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지성인이라 해서 징역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신진공고 야간 다녔다고 징역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성인이라 해서 징역 깎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닭훈제 하나, 건빵 하나 사 줄 사람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지성인이 아닌 노동자(?)라 해서 내 돈 내고 사먹는 닭훈제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러나 이 법무부에 소속되어 잘만 지내면 정말 진솔한 노동자 지성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것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문교부 지성인'이 아닌 서울구치소를 졸업한 '법무부 지성인'이 되는 것이다. 숙식 일체와 의료혜택비용 일체를 완전히 국가예산으로 충당받으며 말이다. 물론 문교부 교육과 같이 이기주의적 경쟁교육이나 암기식 교육, 그리고 반공·반민중적 체제유지 교육이 아닌 그야말로 주체적 의지에 따른 투쟁의 연속으로서의 '참교육'으로.

법무부 국비장학생.

문교부 교육과 같이 '갓밭의 가방끈'을 잇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진실로 다수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배자들의 한없는 타락과 폭력적인 인권말살 의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인간해방 끈'을 이어나가는 법무부 지성인, 우리 노동자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동료들의 안타까움을 뒤로 하며 정부의 국비장학생이 된 이후 줄곧 법무부 지성인이 되기 위해 일년 삼백육십오일을 때늦은 향학열로 불태우고 있다. 술·담배·커피·여자 등 일단 공부에 전념해야 할 '노동자 선비'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환경은 대한민국 정부가 다 알아서 총으로 막아준다. 여느 모범생들과 같이 도서관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교실에서 산다. 공부 말고 할 일이란 석방날짜를 손꼽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과, 하리는 노동해방의 과학적 학습은 제쳐두고 이것저것 소설이나 들추며 시간을

깨뜨려나가는 것이다(물론 소설도 중요한 하나의 과목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바깥의 동료들이 구속된 선진노동자에게 거는 참된 성숙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요 보편적인 역사적 사명을 잊는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투쟁의 발전적 연속성을 끊는' 것이 될 것이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그 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법무부 지성인 양성은 '무슨무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는 투쟁경력이나 달아주자는 문교부 방식의 연수제도일 수는 없다. 그러기에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아까우며 구속사유(투쟁)가 바래질 뿐이다.

사실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일단 접어두고 대학입시학원에 다녀 서울대학교에 도전해본다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고 한마디로 얼빠진 상상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노동운동 하다가 구속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딜 들어가자고 하는가의 문제 사이가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왜 자꾸만 서울대학교와 법무부 지성인을 들먹거리는가? 그렇다. 우리 노동자는 그동안의 자기투쟁활동과 공장생활경험, 그리고 조직활동경험 등에 더하여 노동해방의 과학적 이론을 징역의 법무부 장학연수를 통해 습득하여야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장학혜택을 보다 장기간에 걸쳐 받게 되는 동지들은 지금까지의 인류역사가 이루어놓은 일반적 교양습득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서울대학교를 못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 우리 노동자 구속자는 국민의 혈세가 베푸는 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아 풍부한 참노동자적 지식을 쌓아야 한다. 세계의 노동자운동과 피억압민중의 인간해방운동과 호흡을 같이 해보면서, 현실의 우리 운동이 어떤 역사적 흐름과 맥락 속에 위치해 있는가를 헤아려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체제의식 강요의 징역 울타리를 뚫고 세계로, 세계 민중해방투쟁의 역사 속으로 자신을 인도해야 한다. 노동조합운동의 좁은 기업별 울타리를 걷어내고 이 자본주의 체제의 얽히고 설킨 구조적 모순을 발견

해야 한다. 징역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서울대학교 나온 동지들이 학교에서 습득한 사회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우리 노동자도 가능케 하는 참으로 소중한 학교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세상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질서롭다라는 변증법의 진리가 우리 노동자 동지들의 이론적 부족함을 메꿀 수 있게 하는 데까지 미치는, 세계의 진보적 역사가 도도히 관철되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두 번에 걸친 나의 징역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가꾸어져왔다.

그러면서 그토록 경원해마지 않았으며 딱 그만큼의 깊이로 패어 있던 열등의식의 어두운 골은 서서히 메워져갔다.

그러나 나의 서울대학교에 대한 동경의 포기는 한 번 더 있었다. 약 5년 전에 살았던 징역 안에서 “그까짓 제도교육에 비하면야 징역의 맑스-레닌주의 독학이 훨씬 인간해방적인 참교육이다” 하는 논리 속에 제도교육 전체와 인간해방의 독학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키고 문교부 혜택으로부터의 소외감을 달래며 자위했던 것이었다. 겉으로는 그토록 인간적이라는 하느님이 실제적으로는 천당/지옥의 살벌한 이분법적 구분양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나는 제도교육을 극단의 한쪽으로만 치부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법무부는 한 번 맡은 물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투철한 사명감에 넘치는 조직이다. 1990년 4월 25일 정부로부터 두번째 국비장학연수생 합격통보가 온 것이다. 공부를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약 5년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상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그리고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법무부의 그런 판단은 완전히 올바른 것이었으며 사려깊은(?) 결정이었음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 얼치기 박윤배보다는 투철한 적이 훨씬 앞서는 진보적 역사를 가꾼 것이다.

나는 진실로 올바른 맑스-엥겔스-레닌주의, 즉 노동해방의 이론은 불타는 노동자의 계급적 분노와 투쟁 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절반은 그동안 인류역사가 이루어놓은 모든 진보적 역사 일반에서도 도출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노동해방이론이 인류사회의 가장 수준높은 사회과학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음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국비장학생으로서의 밥값 중 1/10 정도를 해냈다고 본다. 나의 법무부 연수프로그램은 옆으로 넓어졌다. 특히 역사, 국어, 문학, 영어 등이 주요한 과목으로 신규 등록되었다. 단테의 지옥과 천당을 오가며 잡자리에 들기도 하고 우리 처와 아들놈 이름을 한문으로 익히느라 끄적대기도 한다. 결혼 7주년에 러시아 역사는 연대별로 외우면서도 마누라 이름을 한자로는 못써왔다. 칼 맑스의 가족상황은 들들들 하면서도 우리 이쁜 아들놈 주민등록번호도 한자 이름도 쓸줄 모른다. 보나파르트 가의 집권기는 알아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님의 생전 연대는 모른다. 『자본론』은 읽어도 <삼국지>는 아직 못읽었다. 나에게 있어 금번의 두번째 국비연수기간은 그러한 극심한 지적 불균형상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간이 아닌가 싶다. 어차피 제도교육도 바둑이부터 배워 아버지, 어머니를 배우지 않는가.

하지만 나는 아직 학생이지 졸업생이 아니다. 그렇게 처자식과 생이별을 하면서 국비유학으로 배운 지식이 '동지 잡는(괴롭히는) 식자우환'으로 둔갑할지, 민중해방투쟁의 밑거름으로 써어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인류역사 중에 무지가 도움이 된 적은 없었다"라는 정도의 소박함으로 학업에 정진할 뿐이다. 그것은 노동자가 학자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며 노동운동가로서의 최고발전수준은 그의 이론적 능력에 비례한다는 식의 해괴한 원칙을 세우고자 함도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하의 노동자계급, 그리고 새로운 사회 건설의 주역으로서의 노동자계급이 하나님이나 맑스, 레닌의 창조물이 아닌 인류역사의 진보적 흐름의 산물이듯이, 노동자의 진정한 인간해방을 그 손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노동자의 참된 이론, 이념 역시 분노한 노동자의 타는 가슴 속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역시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단결과 조직·투쟁을 논의하고, 기업주의 온갖 술책을 간파하여 분쇄하려는, 그야말로 애를 태우며 기울이는 혼신의 노력 만큼의 수준과 공력을 기울여야만 획득되는 것이리라.

일반적으로 볼 때, 자본가와 정부권력 알기를 우습게 아는 노동자치고 동료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적을 모르고 싸움에 덤비는 사람이 우리를 제대로 챙기고 단도리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도둑놈의 발전사를 파악해야 자물쇠의 발전사도 살아 숨쉬는 역사가 나온다.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운동원리와 그 관철의 힘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한, 노동자의 향상적인 산업, 특근, 철야와 해고, 구속, 살인의 정체를 그 근저로부터 이해하려는 데 턱을 괴지(고민하지) 않는 한, 그리하여 운동을 자꾸 즉흥적인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한, 노동조합운동만으로 체제의 모순을 가로지르려는 야무진 허상에 의지하는 한, 차가운 가슴으로 승리를 계획하기보다는 험레벌떡 가슴으로 치켜든 두손에 노동해방을 맡기는 한, 국민의 혈세와 자기투쟁의 발전적 연장과 동료들의 기대가 도대체 무엇을 요청하며 자신을 국비장학생으로 만들어주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법무부는 다시는 그대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리고 노동자·민중투쟁 역시 그대를 절실하게 원하지는 않으리라.

우리 법무부 지성인 과정을 밟고 있는 노동자는 참으로 모진 풍파의 한가운데서 공부하는 만학의 학도이자 투사이다. 싸우면서 일하다가

줄지에 싸우면서 공부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부모형제, 동료들과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방안의 수도물이 뚝뚝 얼어붙는 동토의 교실과 싸우며, 마지막으로 이 나라 문교정책이 우리 노동자에게 강요한 무식과 싸우며 참노동자의 유식을 건설한다.

우리는 그야말로 복잡다단하기 그지없는 전체의 건축과정을 통해서만 단순하기 그지없는 건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벽돌 들고 설치는 과정을 졸업한다. 국민의 혈세로 공부하여 그것을 국민에게 되돌려줄 것이다.

1990년 12월

가방끈이 짧은 것은 수치도 자랑도 아니다

케케묵어 써어문드러져버린 줄만 알았던 '노동자출신과 학생출신' 식의 구분양식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있다.

그것도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조직의 절대 입장으로 설정해놓고 있는 조직의 매체를 통해서 말이다.

글 중간중간에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체제교육조차 못받아서……, 그 유명한 고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한 주제에……식으로 나가다가, 그러다가는 또 이번엔 명칭한듯이 자신을 격하시켰다가 그 명칭한 듯한 위치에서 그가 비판하고 싶은 주제를 마음껏 요리하며 즐기고 있다.

참으로 유치하고 저속하며 타락에 가까운 방식의 입장표명이며 비판 자세인 것이다.

동지들이여 생각해보라. 우리의 노동운동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발전시켜왔으며 또한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해방의 문제들을 새롭게

발전시켜나가고 있는가! 그런데 아직도 이따위 방식으로밖에 입장표명과 비판을 수행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왜 해당 주제의 비판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가? 도대체 가방끈하고 박노해 비판과 『노동자의 깃발』 기사의 비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단 말인가? 스스로를 오리지날 무식한 노동자라고 반복적으로 앞세워 도대체 무엇을 얻도자 하는 것인가? 어떤 입장을 비판하는 데 있어 노동자를, 체제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하고, 가방끈도 짊고, 유명한 원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면서 일단 무식하게 색채를 칠하고 그 오리지날 무식한 노동자의 입장으로 본격적으로 비판을 가해야만 더욱 설득력이 생기기라도 한다고 믿고 있단 말인가?

아, 이 얼마나 유치하기 그지없으며 반역사적인 태도인가!

글 중간중간에 필자의 지식수준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만치의 식견과 역사적 사례들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러한 지식과 식견이 무슨 수치라도 되는 양 자꾸 오리지날 무식한 노동자임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며 글을 쓰고 있다. 참으로 가련한 70년대의 학생출신 활동가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쇼를 보는듯도 하며, 진정 필자가 노동자출신의 활동가라면 그가 겸비하고 있는 과학적 학습량이 아까울 정도로 저급하고 지저분하게 체질화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다.

필자가 다루고 있는 내용과 비판의 수준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과 비판이 과연 가방끈이 짧고 변변히 원전 하나 못 읽고서, 그리고 체제교육 또는 체제외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서 가능이나 한 것이란 말인가? 왜 필자가 가지고 있는 식견으로 정면으로 비판을 수행하면 안된단 말인가? 사실 필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주장과 비판을 일정한 수준을 이루면서 다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과거 노동자출신이 성질 한 번 부리면 꿈쩍못하고 기가 팍 죽던 시대의 저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경험은 우리 노동자해방운동의 초기 현상으로서, 그리고 결코 남겨서는 안될

나쁜 풍토로서 청소된 바 있다. 그러한 식의 운동양식은 결과적으로 선진적 노동자의 지적 발달을 가로막았으며, 지식인출신 활동가가 무슨 외인 비슷하게 되어 노동자계급의 일원이자 사회주의자로 되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을 뿐이었다.

노동자가 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과 앞으로 건설될 사회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주인인 노동자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해방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해방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우리 운동의 가나다라에 속하는 문제가 가득이나 선진적 노동자 동지들의 과학적 사회주의 학습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로 이 시기에 정치조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나오다니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인 것이다.

우리 선진적 노동자는 결코 오늘날과 같이 계급투쟁이 확산되고 심화되어가는 시대에 무식을 자랑으로 내세워서 안된다. 가방끈이 짧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가방끈을 늘리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은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 다시 체제교육코스를 밟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혁명적 인텔리 동지들이 즐비하다.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노동자해방에 헌신하며 현실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고 교정받고자 하는 동지들에게 우리 노동자의 계급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혁명의 이론, 노동자해방의 사상을 충원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가방끈은 그나마의 체제교육 아랫지점에서 끊겼지만 그것을 잇는 줄은 최근 전교조 동지들이 투쟁으로 낙인찍어놓은 낡은 줄이 아니다. 저 멀리 맑스, 레닌과 전세계 민중이 피와 투쟁으로 엮은 혁명의 줄이다. 자본가의 반동적 줄을 늘리는 데도 자그마치 18년 또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밤잠을 설치며 잇고 있는데, 단군 이래 지속되어온 착취의 시대를 종결짓고 진실로 새로운 사회의 건설 기치를 치켜든 우리의

노동자해방투쟁은 과연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다. 지금 이 시대의 선진적 노동자에게 부과되어 있는 과제는 결코 쉬운 일일 수 없다. 앞서간 계급투쟁의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 우리 노동자해방투쟁의 나침반에 해당하는 맑스-레닌주의 원전의 학습에 있어, 그리고 현실의 우리 혁명 진전에 관한 정치적 과제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 우리는 절대 어떤 자리에서라도 그 반대의 행동을 자랑으로 또는 당연한 것으로 미화시켜서는 안된다.

반공이데올로기에 강요당한 대중은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낮은 의식상태의 동지가 보다 고도의, 보다 전문적인 계급적 정치사안에 대하여 못알아먹겠다고 불만을 표시한다 해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스스로를 선진적인 노동자라고 자처하는 동지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노동운동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지들은 절대로 그러한 처사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적 과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명백한 태만이며, 말로만 노동해방을 외치고 있으면서 실천적인 노력에선 게으름을 피우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선진노동자의 혁명이론 분야에 대한 미숙함은 결코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자랑거리도 아니다. 선진적 노동자는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사회주의자로 완성되어가는 것일 뿐이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자출신의 사회주의자 치고 그러한 이론적 미숙함을 출발지점으로 하지 않으면서 성장한 노동자는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나 미숙함을 자랑으로 또는 그러한 유치한 뺨을 앞세우면서도 첩피해할 줄 모르는 노동자 치고 사회주의자로 성장한 노동자는 한 사람도 없다.

87년 투쟁을 경험하고 그에 이은 지역적 활동과 전국적 활동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1989년 노동자는 필자의 표현과 묘사와

같이 오리지날 무식함으로 무장된 노동자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질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 글이 실린 정치조직의 여러 활동도 한 요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의 무식노동자 자격증은 1989년 노동자가 발급한 자격증이 아님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한다. 1989년의 우리 노동자는 무식을 앞세우며 그것을 낚발과 뺨으로 삼으려는 필자 동지의 유치한 행동에 대하여 그것은 우리 운동 제반의 입장 차이 문제를, 이제는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학생출신과 노동자출신' 식의 문제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오리지날 무식노동자 자격증을 책 앞에 내민 다음에야 본론으로 들어가는 필자 동지에게 우리는 필자가 금번 글을 통해 보여준 식견과 연구의 자세로 돌아가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필자 정도의 능력과 연구 자세라면 얼마든지 필자의 의견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상대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어떤 불로소득의 계산도 과학의 영역인 이론투쟁과 계급투쟁에서 효과를 볼 수 없지 않겠는가?

1990년 4월 이전

징역은 노동자에게 도서관이요 대학입니다

중공업 동지들 !

하늘이 징역사는 사람들에게 겨울채비를 시키려는지 며칠간의 추위가 독방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겨울 징역나기 채비는 벌써 끝난 상태이었기에 금번의 하늘 배려를 별로 받지 못한 편입니다. 여름내내 했던 냉수목욕을 겨울 나기를 위해 가을에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추워진 요즘에도 꼭꼭 매일 아침 기상 직후 운동 끝에 냉수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온기라고는 한 점도 없는 징역에서는 사실 이 냉수목욕보다 좋은 겨울채비가 없을듯 싶습니다. 더군다나 1.7평 독방의 겨울이란 그나마 여러 명의 체온이 어우러지는 혼거방에 비해 더 각별한 것입니다. 현정부의 정치범에 대한 신경 씬씀이가 세세하게 미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노동해방으로 나아가는 데 얼마간은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비용'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고통으로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통으로 받지 않습니다. 큰 일을 하는 데 당연하게 들 수밖에 없는 '비용'쯤으로 여기며 겨울추위의 '간섭'을 냉수마찰로 털어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정역이야말로 우리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훌륭한 '도서관이요 대학'이라 봅니다. 어쩌다가 일찌감치 끊긴 가방끈을 튼튼한 동아줄로 연결해낼 수가 있지요. 노동자의 지적 능력 발달과 이론적 수준의 향상은 문교부 혜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무부에 소속됨으로써 얻게 되는 셈이지요. 선진노동자는 문교부출신이 아닌 법무부출신 학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의 이론수준 향상과 정치의식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서울구치소는 서울대학교의 그 수준 및 명성과 흡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웬간히 운동해서는 서울구치소에 합격할 수 없으며, 판·검사에 의해 발표되는 법무부 연수기간을 오래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세금 내고, 같이 운동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방구치소에서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기간에 걸쳐 숙식 일체를 제공하는 '국가연수'를 몇 년씩 시켜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퇴거시킵니다. 저는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무난히 서울구치소에 합격하여 2년 6개월 씩이나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냉수마찰로 몸 건강해지지, 하루종일 학교 덕에 공부 많이 하지, 그야말로 여자 빼놓고는 최상의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옛말에 "자고로 큰 일을 하려면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 하셨으니 그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정역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졸업평가제입니다. 법무부 혜택을 누리느냐, 그걸 팽개치고 곱정역을 사느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동지들의 건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1990년 11월 12일

지난 10개월을 회상하며 앞날을

사회주의에 대한 일반론적 신념이 사회주의권의 흔들림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당혹감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금번의 유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단상은 있었어도 그것을 적절한 대안으로 연결시켜낼 형편이 못되었죠. 우선은 사회주의에 대한 사상이론적 재검토와 함께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실천방식에 대하여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학 직전까지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별로 발전시켜내지 못한 채 그저 답답해하기만 했습니다. 무책임한 생각이겠지만 유학을 맞이하는 첫 생각은 잘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양과 학습을 위한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게 말해 재검토를 위해 2-3년간 노력하자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무턱대고 고집스럽게 수양과 학습에 몰두했으나 서서히 수양이란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검증되어야 할 자기교정이, 그 토대인 사회적 관계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유학생화에 충실을 기한다는 것은 곧 학습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유학의 여러 제한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라도 끊임없이 대인관계력(사회성이라고도)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간 10개월은 재판과정 등을 제외하면 이와 같이 학습과 사유활동의 기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동지들이 알고 있다시피 제가 중점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분야는 경제입니다. 그 숙원의 『자본론』에 손댄 것이 계기가 되어 기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라는 과정을 지나 이제는 아예 전공분야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까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일단 맑스, 엥겔스의 국내 번역물들을 다 독서할 요량입니다. 이제 맑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독서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그의 철학이론을 만나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번은 맑스주의 전체에 대해 연구해보는 것이 앞으로의 모든 것에 적절한 이론적 기초가 되어주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약간의 역류적 접근을 시도하기로 하고, 케인즈 정도쯤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경제이론까지를 공부할까 합니다. 열매에 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뿌리를 살립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울러 몇 가지 바깥의 현실운동에 대한 개입을 위해 생각해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별노조론에 대한 비판, 이분법적 논리에 대한 비판, 맑스주의 경제이론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논문 등 약 3편의 글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동지들, 동지들 역시 말을 안하고 티를 안내서 그렇지 모두 다 열심히 금번 유학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그간의 기간을 지내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적어봄으로써 동지들과 헤어짐에 앞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경제분야

맑스주의 경제이론은 「자본론」에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수고」, 「임노동과 자본」, 「철학의 빈곤」(절반 이상이 경제분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일명 그룬트리셰 [Grundrisse]), 「임금, 가격 및 이윤」, 「고타강령 비판」, 「반듀링론」, 「잉여가치학설사」 등의 경제분야 이론서들은 사실상 「자본론」으로 거의 수렴되었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발전된 이론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맑스이론에 대해 한다치는 사람들 중엔(특히 황태연) 자꾸 우리에게 심연의 것이 있는 양 연막을 피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의 말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 봅니다. 예컨대,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라는 저서는 그것이 「자본론」 제1권 1장으로 흡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자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맑스도 「자본론」 서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의 그 식견은 별로 신용할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가치야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맑스의 경제이론은 역시 「자본론」으로 흡수·수렴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맑스의 경제이론은 분명 19세기 중엽까지만 반영된, 자본주의 초기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원리론적 위상을 못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경제를 살피고 분석하는 데 아주 명쾌한 원리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명백한 시대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 즉 “현실적용에서

약 1.5세기의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맑스이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집요한 맑스이론 자체에 대한 연구·분석으로부터 그 가장 순수한 형태를(있는 그대로에 대한 가장 올바른 해석을) 추려내는 일을 통해 그것을 수많은 학자들의 수많은 “맑스이론의 신(新) 제조”로부터 구분지어내는 것이라 생각되며, 나머지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맑스의 이론을 19세기로부터 21세기로 옮겨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21세기에 19세기를 살고 있는 자칭 맑스주의자 동지들을 다시 21세기로 이사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자의 과제에 충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범(凡) 네오맑시즘(예를 들어 알튀세르, 만델, 루카치, 그람시 등, 우노, 김수행 포함) 이론연구와 그 비판자들의 탐독이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소련과 같이 어쨌든 나름대로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충실하게 적용해왔다고 하는 바로 그 현실적용의 경제이론을 동시에 참고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예컨대 짜골로프 교과서 II-1, II-2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연구대상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64년 흐루시초프의 실각 이후 브레즈네프 시절에 씌어진 소련의 주류 경제이론으로서 거의가 스탈린 시대의 사고가 별 변화 없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윤소영 교수는 주로 I-2, I-3에 중점을 두고(국가독점자본주의론과 관련하여) 읽어보라 권하고 있으나 우리에게겐 오히려 II-1과 II-2가 훨씬 많은 시사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맑스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제 사회에 적용해왔는가는 우리가 필히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보여집니다. 폐쇄적 사고방식이 특히 경제분야에서 어떻게 합리화되고 있는가를 보면, 생산관계보다는 생산력 문제로만 치닫고 있는 이론체계가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이론체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반사된 모습을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각됩니다(네오맑시즘에 관한 언급은 불능

상태입니다—김교수 글 외 못보았습니다).

후자에 관해서는 참 많은 문제의식이 머리에 맴돌고 있으나 그것에 대응할만한 연구가 아직 너무 미친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앞으로의 유학프로그램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케인즈를 막 접견하고 있는데, 벌써 케인즈 때문에 먹은 웨스탈 포르테가 7-8알, 그리고 일양 노루모가 2-3봉지일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몇 번 더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그 필요한 '몇 번의 더 번역' 실력이 없다는 데 소화불량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영어가 한글로 다시 제대로 번역되어야 할 정도로 번역 그 자체에 문제가 많이 발견됩니다. 두번째 이른바 부르조아적 시각에서 분석되는 데 따른 언어소통의 장애를 극복해내는 번역이 필요하며, 세번째로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를 바라보는 데서의, 즉 그로부터의 발전에 대한 원천적인 사상의 차이로부터 오는 장애를 극복하여 그것을 비판적으로 소화·번역해내는 것입니다. 정운영 교수가 두 권의 책을 쓰며(정확하게는 편집하여—글모음이기 때문에) 피력한 “난해하고 난잡한 언어와 부호로 오염된 경제학을 구해내기 위한……” 시도는, 사실 위의 것 중 어느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본인의 생각만 옮겨냈을 뿐입니다. 어쨌든 바깥의 한 학자분께 요청한 그쪽 방향의 경제학 사전이 들어오면 그나마 좀 난관이 풀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계절은 봄으로 진입하고 있는데, 학문은 겨울로 진입하고 있으며 한반도는 봄이로되, 미·영국은 겨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제가 얼마 안 있으면 본격적으로 집필하게 될 경제이론 관계 논문은 주로 맑스이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착취와 수탈 메카니즘을 다루게 될 겁니다.

즉 고도의 추상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은 그것대로 전개한 연후에

그것은 현대라는 구체적 경제현실 속에서 어떻게 전형(transformation)되어 이론화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려 생각중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제 설정 자체도 무척이나 광범위한 것이어서 실제로 집필에 들어갈 때는 더 좁은 범위로 축소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맑스의 착취와 수탈 메카니즘 분석이론을 그 추상수준과 다르게 현실적용한 데 대한 비판을 결들인 착취·수탈의 사회적 메카니즘 쪽으로 설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맑스의 경제이론이 가장 발전되고 있을 때 그는 매우 가난에 시달릴 때였습니다. 역시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노력이 잘 안되나 봅니다.

(2) 산별노조론 비판,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

이것은 그저 예전부터 생각해오던 것을 이제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세계적 분석을 통해(그들이 자주 세계적인 공통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좀더 깊이를 갖는 비판으로 모처럼 '비판의 성실성'을 기할까 합니다. 물론 주제 자체가 그렇게 심도 있는 주제가 아닌 까닭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책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3) 외국어 문제

봉사 뭐 만지기 수준을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열망은 그 어떤 것보다도 높은 분야입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이 그 전문이론서의 원서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든다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인가는 명백할 것입니다. 외국어, 그 중에서도 특히 영어는 그 필수적인 필요가 두 가지 방면에서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앞서 적은 바 있는 것으로서, 어떤 학문 분야에 대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이며, 두번째로는 학문과 그

학문의 소재가 되는 국제적인 제반 현실에 대한 보조를 맞추기 위한 필요가 그것이라 봅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순전히 저 개인적인 문제 의식으로서, 무식의 제1선에 있는 영어해독 불능상태를 절대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도 있습니다. 작년말에 『자본론』 Ⅲ권(하)을 비봉 본으로 다시 보면서 근태 형님이 넣어주신 행권출판사 원본과 대조해보면서 잠깐 끄적대본 적이 있는데, 제가 한문공부를 하면서 간단하게 시사받은 바 있듯이 관계 있는 단어공부와 관계 있는 분야의 연구·학습을 통해서야 좀더 빨리 이해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즉 생활식 공부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4) 소설

지금의 역사는 중대한 한 고비길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전반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한 자본주의는 그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진보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그 파멸의 조건을 동시에 마련해주었습니다. 맑스의 이론과 사상 역시 줄기찬 인류진보의 한 반영으로 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세기초에 이르러 소련에서 최초로 현실사회에 적용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30-40년간에 걸쳐 인류의 1/3 정도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중엽에 출현한 맑스의 사상 이론체계가 약 1.5세기에 걸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1991년 오늘에 나타난 것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맑스와 레닌의 기본 사상은 무수한 변질들과의 투쟁 속에서 상처 가득한 모습으로 오늘에 드러났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온갖 비인간적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맑스즘을 마주하며 끓는 공감애, 한편으로는 마음아파 어쩔 줄을 몰라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혁명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병폐는 수많은 반대자를 만들어냈습니

다. 민중해방의 역사는 이렇게 자본주의의 병폐를 딛고 더 한층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민중해방투쟁에 대한 유물론적 해석이기도 하지요.

역사는 그 시대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만을 제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맑스가 이 말을 한 지 이미 1.5세기 지난 지금의 역사적인 과제 내용 안에는 필히 사회주의 70년의 경험을 고려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혁명론 이외의 문학의 영역도 물론 이에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혁명론이나 경제이론 영역 등에서 그야말로 무분별한 논의와 주장이 난무하듯이 문학의 영역에서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으며 일견(의학용어로) 편집증적 정통파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지들이 한 극단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표류와 혼동을 부추기며 결과적으로 민중의 대의를 훼손시키는 쪽으로 작용케 하는 또 한 극단이 있습니다. 전자가 못말릴 환자 증상을 보이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엔 그들의 나약함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물불 안가리는 스타일이라면 후자의 경우엔 포장에 묘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른바 노동소설은 아직 그 작품성에서나 민중성에서도 역사의 변화를 담아내기엔 역부족인 형편입니다. 그것은 한계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습작을 해보았으나 아직 작품으로 형성되지 않은 채 맴돌고 있습니다. 그 문제야말로 (소설) 작품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숙수가 서툴러 형편없는 음식이 나오기 십상인데요. 그러나 소설작업은 밑져야 본전인 장사라 생각합니다. 남에겐 아무것도 안보여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본인으로서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유능력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할 겸 쓰긴 써야 하는데…….

김영현은 그 노선은 일단 고사하고 작품의 완성도라는 면에서도 수준

미달의 느낌이 들며 방현석은 잡다리한 얘기만 주어담을 줄 알았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의 치열성이 너무 부족한 게으른 소설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수리, 차주옥 글도 째내서 볼 요량입니다.

동지들, 기수아빠는 집중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전망을 피력하였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공공연한 대중적 정치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보위능력에 비해 분명히 월등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저들의 검거 및 추적 능력을 뚫고 활동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해나가며 운동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의 보위력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완해나가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공공연한 대중운동의 진출과 발맞추어나갈 수 있는 대중적 정치력을 갖추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때는 바야흐로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시대의 역사에는 고전적 모델로서의 비합법조직적 활동방식으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조직 안에서도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민중에게도 상당 수준에서 보장되어야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보장의 메카니즘을 조직 외적으로 확보해내는 것이 바로 대중적 정치력에 의해 기능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국 혁명의 성공을 통해 모든 것을 입증해내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아무진 계획 속에, 수많은 역동적 요인들을 대거 유보시키는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용인해서는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중적 정치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를 전문성이라 봅니다. 조직 내부에서 이심전심으로 적당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진실로 대중과 호흡하며 혁명 자체를 성장시켜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은 이 전문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다수의 대중이 일반적 의미에서만 계급적이고 혁명적이며,

실제적으론 항상 전위조직의 지도 속에서 해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중의 역사적 성장이 두드러지게 변화된 상황 속에 오늘의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좀더 의식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의 노력이 그 중요성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전문성이 요청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에 만날 우리의 만남은 그러한 만남이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노맹적 정서라 할 수 있는 독단을 버리고 보다 열린 인간형, 보다 역동적인 인간형으로서의 혁명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그 중요한 자질 중의 하나가 전문성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도단에 빠진 민중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있는 동지라면 그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전례 없이 질높은 커트라인을 요구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제는 버킹검이 아니며, PD라는 기준에 비해서는 정말 한 조직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겠나를 걱정케 했던 수많은 독단들이 더 눈앞을 가립니다. 또는 무능력을 혁명대열 안에서의 동일성이라는 독단적 편의주의로 커버하는 안타까운 실상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점 등, 실로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점 동지들과 당장 공유하기보다는 남은 유학기간 내내 스스로를 향해 의문을 던지고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부디 동지들의 건강과 노력을 기원하며, 우리 모두 함께 만나 소주잔을 기울일 날을 손꼽아 기원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삼민의 최대 장점은 역동성이라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네,
우리는 어떠한 난관에도 쉽게
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헤치고 나갈 것이라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중해방이 목적이지 우리 자신의
독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다네,
우리는 역사와 시대와 민중의 아픔이 지시하는
명령에 따르고자
더 늦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라네,
그 중에 특히 민중의 여전한 아픔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1991년 2월

징역의 겨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징역의 겨울은 공부하는 학도의 계절입니다. 그것 말고 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쌀쌀한 기온은 컴퓨터기계의 작동에는 지장을 주겠지만 두뇌의 작동에는 적당한 온도입니다. 입력(독서)과 출력(글)에서 잇을 수도 있는 가벼운 지나침을 검색해주는 '진단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기계도 제온도가 안맞으면 금방 정밀도가 떨어지고 오동작이 나오듯이 인간의 두뇌도 나쁜 온도에 비하면 약간 썰렁한 기온이 적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징역적응을 위한 다소의 억지논리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새벽 6시 20분에 시작되는, 별거벗은 냉수목욕으로 하루가 충전되는 이곳의 생활은 전쟁으로부터의 더 없는 망명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징역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서서히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본론」, 「정치경제학 교과서」(짜콜로프 감수, 전 5분책), 「반두링론」, 「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 「프랑스혁명사 3부작」, 「독일혁명사 2부작」, 「마르크스·엔겔스 선집」(석탑),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거름), 「칼 마르크스 전기」(전 2분책), 「두 사람」(죽산), 「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황태연), 「자본론 연구 I」(김수행) 등에 대한 입력이 대강 완료되었습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케인즈로부터 프리드만, 사무엘슨, 그리고 왈라스 등), 그리고 조순과 네오 맑시즘(발리바르, 알튀세르 등)과 이진경 동지가 추천한 바 있는 「맑스 정치경제학의 변증법적 방법」(이론과 실천), 「맑스주의 변증법의 역사」(한울림), 「위대한 발견」(푸른산), 「맑스 방법론의 연구」(지양), 거기에 한 번씩은 거의 다 읽었던 레닌 저서의 재독서 등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맑스가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당시의 자본주의(특히 경제적 토대)와 그로부터 약 1-2세기가 지난 자본주의의 대상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그러므로 맑스의 예언과 규정 중에 무엇을 수리·교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거기에는 대상에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다는, 나름의 전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맑스 경제학 이론을 일국적으로 이해하는 데 따른 문제점으로, 또한 생산의 주요한 주체로 등장한 국가의 사회적(민주주의적) 본질과 성격의 상실, 그리하여 사회적 소유의 외적 표현으로서의 국가의 역할이 그 내용과 외피가 어그러진 점, 그러므로 반제투쟁의 문제는 일국적(소련) 관점에 기초한 군사노선으로 인해 실종되었으며, 국가의 사회적 소유 이념 실현 역시 실종되고 말았다 봅니다. 맑스와 엔겔스가 예상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인간성 진보성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반제투쟁, 즉 국제주의의 실천을 통해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구조적으로 물러들어가며 대응력을 성장시켜왔다기보다는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고 봅니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연구와 학습이 배치될 것인 바, 그에 필요한 몇 가지 도구들을 요청드릴까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학습을 통해 영어, 일어 등 외국어에 대한 백치의 상태가 이론서의 소화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학도 그렇습니다. 신고전파 또는 체제유지적 경제학은 더욱 그렇더군요. 그래서 일단 영어, 일어를 병행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징역이 기쁘게도 약 2년, 주변의 조언으로 비추어볼 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습니다.

경제학을 중점으로 하여 영어, 일어, 한문,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천문학 등이 순서적으로 병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코자 하는 도구는

- ① 사전류 : 일본어 「정치경제학 사전」, 일본어 「철학사전」(大月書店), 「일본어 한자읽기 사전」, 한글 「정치경제학 사전」, 그냥 「경제학사전」(개량경제학용), 「한일사전」(「일한사전」 있음), 「한영사전」, 「숙어사전」.
- ② 백산서당 발간 영한대역본 시리즈 : 「포이에르바하」, 「임노동과 자본」 등.
- ③ 신고전파 등 개량경제학(또는 수리경제학) 이해를 위한 수학 학습 교재, 물리·화학·천문학 기초소양(철학서 소화용)을 위한 도서들 등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전류들입니다. 개량경제학 서적을 보내주는 부르조아지가 있습니다(딱 그 분야만). 그 외에 이진경 동지의 추천서와 제가 의도한 바 또는 권고하실 책을 보내주시면 충실히 읽고 의견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 건강하십시오.

1990년 12월

추신

① 줄기차게 현실문제, 특히 대공장사업 및 노동운동에 대해서 글을 써낼 것입니다. 그건 필수과목이니까요. 여러 매체를 통해 계속 발표해왔습니다. 관계자료가 들어오는 경로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② 『반두링론』에서 문제되는 부분 : p. 34 아래서 9째 줄 “그리고 잉여가치가 결국에는 가치총액이 되는 바……”는 아마도 원래의 자본가치가 자본가의 소비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현자본가치가 잉여가치로 대체·전환된다는 풀이거나, 아니면 “가치총액의 한 구성부분으로 누적적으로 산입되는 바” 둘 중의 하나일텐데 그대로 놔두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p. 257 13, 14째 줄에서 엥겔스가 흠의 견해로 제시하는 문장에 편집자주를 통해 “상승하며(저락하며 — 편집자), 저락한다(상승한다 — 편집자)”라고 엥겔스의 원문을 반대로 바꿔놓았는데, 이는 원문이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상품의 단순한 가치포장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에선, 화폐의 등가물로 고정되어온 역사와 그로부터 화폐 역시 하나의 명백한 ‘가치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바, 화폐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증가에 따라(등가물 증가, 화폐가치 하락) 상품이 등가물에 대해 상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의해 아무런 상대적 평가도 받지 않으며, 오히려 10가치의 상품=100원→10가치의 상품=100원+늘어난 만큼의 화폐율로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선(『반두링론』이나 『자

본론』이나 오늘날과 같은 무가치(조폐공사 안에서의 제조 가치는 일단 사상) 통화정책의 화폐가 아닌, 태환화폐 또는 금이나 은 자체를 뜻하기 때문입니다(『자본론 I』, pp. 124, 148, 155-61 참조). 한 번 점검해보십시오. 물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답장바랍니다.

□ 편집자주

이 글을 전달받고 새길출판사 편집부는 문제된 부분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박운배씨에게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주신 편지에서 지적해주셨던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번역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p. 34의 경우, 그 의미는 자본가치의 원천이 잉여가치라는 사실, 즉 잉여가치가 계속 산입되면서 자본량이 늘어나 대자본의 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다지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 257의 엥겔스가 흠의 견해를 제시하는 문장의 편집자주는 원문을 바꾸어놓은 것이 아니라, 상승→저락(저락→상승)한다는 것으로 원편집자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특별잉여가치, 독점과 경쟁, 통계 문제 — 정성진 교수의 글을 읽고

작년말 정성진 교수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맨 마지막의 허드렛 혁명언사(?)를 제외하곤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맑스 이론을 인용함을 통해 후반부에서 적용·결론맺을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엔 두 파트 다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향과 전망」에서의 그의 독점강화 테제 비판은 사실 내용적으로 볼 때 독점의 존재 자체를 자본주의 일반론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독점자본의 운동원리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자본의 끊임없는 '파장'으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독점이윤이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파장' 중의 어느 자본이 취하는 특별잉여가치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의 경향 내지는 특징이나 단계 등으로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요약이 그의 현실의 독점에 대한 맑스 원리론의 해석이지요. 그는 틀렸습니다. 맑스의 특별잉여가치 개념은 어느 개별 자본이 특수적 생산영역으로의

진출이나 또는 기존의 생산영역 내에서의 생산방법의 혁신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시성을 갖는 것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간의 자유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그 담지자가 교체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독점은 어떠한가? 독점가격(잉여가치, 이윤 담지자)이 과연 자유경쟁 속에서 관철되는 가치법칙에 따라 결정되는가? 천문학적 자본 규모로 이루어진 첨단산업들이 과연 중소기업의 자본과 경쟁하며 '자본호름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특별잉여가치가 수취되는 항공기산업에 그것을 평균으로 끌어내릴 중소기업, 또는 그냥 자본의 이동이 아무 장애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맑스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현실에서도 불가능 하지요. 물론 독점적 생산영역이라 해서 경쟁 없는 성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쟁은 자본 전체 속에서의 경쟁이 아닌 그보다 축소된 범위 안에서의 경쟁입니다. 독점간 경쟁이며 그것 역시 또 한계를 갖는 경쟁입니다. 사회의 거대한 생산력들이 서로 영역을 분할하여 지배하고 있는 셈이지요. 포철과 경쟁할 제2포철을 쉽게 상정할 수 없을 만큼 독점한 국가의 '한 사회적 생산력 분야'를 배타적으로 점하고 있는 좋은 예이지요. 그러므로 독점 상품은 맑스의 원리론에 따르는 가격결정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특별잉여가치나 아니냐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가격결정구조를 갖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그 경향 중엔 줄기차게 특별잉여가치를 수취하려는 속성(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나는 바로 그 초과이윤이야말로 기본속성이다 하는 데는 자신이 없습니다. 연구가 안됐어요). 거대규모의 사회적 자본을 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오직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독점의 사회적 착취 지점'이라면, 그 독점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익(초과이윤)은 이차적인 사회적 착취이고 자기자본의 순환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모가치라 봅니다(독점자본의 '일차적인 사회적 착취'는

소유 문제이며, 자본 일반에게 해당되는 것은 더욱 사회화된 것에 대한 사적 모순). 저는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식민지 수탈을 통해 얻은 초과이윤으로 본국 노동자를 개량적으로 포섭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독점자본하의 노동자들의 개량적인 기업별주의를, 적어도 이론적으로 경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면관계상 중략-필자)

후반부 통계를 통한 분석도 문제입니다. 자본가의 부기방식에 대해선 맑스도 주의를 환기한 바 있고 일간신문의 경제부 기자만 해도 아주 논리적으로 집어낼 줄 알며 또 일반상식으로도 이중장부체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정확하진 않아도 ‘하나의 추세’를 반영한다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한다 해도 역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는 않다 해도 정확한 통계와 불완전한 통계 사이에는 독점과 비독점을 공평한 비율로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 자체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는 통계’이며, 예컨대 자본 규모보다는 고용 규모가 더 좋은 전제라고 하는 반이론적 방식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즉 고정자본의 상대적 증가 문제를 알며, 신발이나 가발·섬유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후진성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만한 분이 왜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지용(『남한 자본주의의 현단계』, 전진, 1991)이 독점은 인정하되 종속은 부정하고, 정성진 교수 같이 독점 자체를 특별히 취급하지 않는 두 비판(독점강화/종속심화 테제 비판)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둘 다 통계의 과학화에 실패했으며 맑스 이론의 현재적 적용에서 약 1.5세기의 장벽을 못넘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감이 다가오는 것 같아 책의 일정한 무장이 필요해서 그런데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1) 『맑스·엥겔스 서한집』(중원문화), 『현대 한국의 생산력과 과학

기술』(문학과 지성), 『제4인터내셔널』(논장), 『위대한 발견』(푸른산), 『맑스 정치경제학의 변증법적 방법』(이론과 실천), 『맑스주의 변증법의 역사』(한울림), 『마르크스 방법론의 역사』(지양사), 『논쟁 — 페레스 트로이카의 정치경제학』(민백),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새길), 『인간 마르크스』(두레), 『신성가족』(이웃), 『무엇을 할 것인가』(소설), 『독일 이데올로기』(청년사 또는 아침).

(2) 이문열, 김영현, 김정한 단편집 등 소설, 정수리 노동소설 〈우리 갈 길 멀고 험해도〉.

너무 많지요? 제가 나중에 분명히 책값을 할 요량이니 부탁드립니다. 곧 각 200-300장 분량의 논문 3편 정도 진입할 겁니다(맑스 경제학 관련, 산별노조 비판, 이분법적 논리 비판[철학적 접근]).

1991년 2월

언젠가 저는 하나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하나의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론 학습의 문제에 있어 현실의 노동자가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해석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해결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한두 문제가 아니며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론과의 동거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론 의식적인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 만 다른 면에서는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학습을 통해 얻게 되는 자연적 부산물이지요.

맑스 선생의 가르침이 (한글로만) 중반을 넘어 프루동에 대한 ‘빈곤의 논쟁’ 과목에 들어서면서 나는 문득 애초의 그 ‘약속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정서문제’. 나는 한 때 노동자와 이론 사이에는 이런 정서상의 차이가 있다고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의 단서를 잡긴 했으나 너무 막연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의 대다수의 노동자의

사물에 대한, 또는 사회의 제현상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의 생활영위를 위한 사고방식(사유)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 원인이야 어디에 있던 어쨌든 노동자가 일상생활을 꾸려가는데 있어 단순하고 간단한 사고방식으로 커다란 불편을 겪지는 않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노동운동에 참가하여 선진적인 노동자가 된다 해도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의 생활내용에 노동운동이란 내용이 추가된 것 만큼의 변화가 있을 따름이지요.

그러나 그런 선진노동자가 대단히 복잡한 설명구조를 가진 '이론'을 대하면서부터 그 양자의 대비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서로 노동해방을 위한 성격은 같으나 친화력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다 부터 심하게는 노동자의 이론은 어렵지 않다라고까지 나갑니다. 언젠가 단 의장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내게 하더군요. 노동해방 이론이란 것이 동료들과 관악산을 등반하기 위한 제안서와 그 설명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임금인상 지침서나 노조건설 과정과도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대단히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 데 따른 그 복잡성 때문에 거부감이 일기 때문이지요. 일단 이론서에 등장하고 있는 개념들의 생소함은 차치하고서라도 설명방식(즉 설명구조)이 대단히 복잡하지요.

이러한 현상은 예컨대 한 사람의 노동자가 어느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에도 쉽게 대비해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컨베이어시스템에서 단순기능적 일만 하던 작업자는 금형가공과 같은 매우 복잡하고 응용기술적인 작업을 도저히 수행할 수가 없지요. 상당 기간의 사전적 훈련과 근본적인 시각교정(작업에 임하는)이 전제되지 않은 채 곧바로 작업에 투입되면 아주 찢궂매면서 불량품만 내게 되지요. 먹고사는 것으로 치자면야 복잡노동을 하든 단순작업을 하든 마찬가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양쪽의 작업구조(패턴)가 다르기 때문에 (물건 가공의 내용이) 해당 작업자의 기술도 달라야 하며, 안하던 사람이 복잡노동에 임할 때는 보다 세심한 마음이

짐과 상당 기간은 일단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와 노력이 안 갖추어지면 그 작업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론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생활의 의사소통'을 위한, 즉 그에 요청되는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없는 복잡한 구조, 다시 말해 각 개인들, 그것도 한정된 생활범위 안에서 생활하는 개인들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계급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며 또 어렵습니다. 일상의 의사소통을 위한 문장은 짧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 한 계급, 때론 세계적 범주에서 어느 원리를 입증해내는 이론은 그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주요한 다각성들 때문에 복잡합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쉽고 간단해야 할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그리고 복잡한 논리구조가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줄임으로써 결국엔 가볍게 또는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에서는 그것을 제외하기로 하지요.

하어튼 일상의 노동자에게 이 이론의 설명구조는 아주 짜증스러운 것이며 소화불량구조(이해라는 측면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 가지 경우로 추려보자면, 하나는 어쨌든 이론서를 읽긴 읽되 '단순노동 방식'(단순사고)을 바꾸지 않고 읽음으로써 대충 뼈대귀만 추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물론 작업을 하긴 했으나 불량품을 만들어놓은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아예 작업을 못하고 손을 드는 경우이지요. 일급기능공이 되긴 애시당초 글른 사람이지요. 전자의 경우엔 위험하고 그 대가가 큰 반면에 후자의 경우엔 답답하지요. 전자의 특성이 물건의 분해와 조립 그리고 그 사이의 가공과 끼워맞춤의 반복과정 등 실로 복잡다단한 과정을(고도의 기능이 요구됨) 대충대충 보아넘기기 때문에 그의 머리 속에는 주요한 각 매듭순간들만 기억되어, "너 그 작업 할줄 알아?" 라고 물으면 대답은 꿀떡같이 잘하나 막상 일을 맡겨보면 꼭 불량만 내지요. 그에게는 중간중간의 고정체만 기억될 뿐 '살아 숨쉬는 기능'과 '섬세한

과정 하나하나'에 대한 '의문과 탐구'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반의 일류급(객관적 기준) 기능공이었기에 그 과정의 심리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직관을 통해 얻게 되는 노동해방의 단서는 단서이고 소중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노동해방의 이론 역시 '직관'의 사고구조와 사고태도로 대하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직관(투쟁과 생활기반에 토대하여 나오는)을 통해 얻는 것이 주요한 노동해방의 한 단서라면(계급적 기반이 다르면 이를 기대 못합니다) 노동해방이론은 그것의 전체를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론의 효용성 — 만병통치약이 아니기에)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와 노력은 분명 다른 것이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거 징역의 언어이다보니 두서가 없고 형편없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안녕히 계십시오.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1991년 3월

제4부

이제는 노동자의 눈으로 ! 이제는 노동자의 입으로 !!

-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들
- 판사와 노동자
- 1990년 12월 4일의 사형집행
- 노동자는 국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 노동운동가의 아내는 천사여야 하는가
-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 환자와 신자
- 공상과 이상
- '밀가루 총리'와 민중의 정치력

자본주의 사회의 병리현상들

I

살인식품 문제

자본가의 생활신조와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은 '경쟁과 돈벌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라면 만드는 기계에 쳐야 할 공업용 기름을 라면을 튀기는 데 직접 쓰기도 한다.

말 뼈다귀 라면스프가 있는가 하면 소 쓰레기 라면이 있는 것이다. 비누를 만들 재료로 라면을 만들고, 가축의 사료로 쓸 말뼈다귀로 라면스프를 만들고 있으니, 아예 일목요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면 봉지에 비누를 넣어 끓여먹으라고 하든지, 라면봉지에 '이 라면은 가축과 사람 공용입니다'라는 설명서라도 적어놓든지 해달라고 라면회사에 건의를 해야 할 판이다.

우리나라 살인식품의 역사는 이것 말고도 하도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 말이 안나오고 어이가 없을 정도이다.

석회로 만든 두부와 수은과 농약으로 키우는 콩나물, 폐유로 만든 참기름, 비닐로 만든 실고추와 암을 유발하는 농약이 듬뿍 든 미국산 과일, 사료용으로 수입된 몸보신 소꼬리와 구두재료 옆에 붙은 수구레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도 이렇게 끄떡없이 노동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장 하나는 타고났는가 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토록 처참한 식품공세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것인가? 모르긴 모르되 이러한 살인식품이 마스크에 의해 보도되게 되면 대부분의 자본가들의 마음은 아마도 남의 일 같지가 않을 것이며, 양심에 가책이 오기보다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마음 속으로부터 동정을 보낸다는가, 혹시 정부와 권력자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당하나 하며 생각에 잠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 자본가는 살인식품 정도 만드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누와 라면 차이를 그렇게 큰 차이로 보지 않으며, 그런 라면을 먹고 몇 명이 탈이 난다 해도 그게 양심에 걸릴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자본가가 되지 말고 절간에나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웃을 따름이다. 국내외적으로 자본가와와 피터지는 경쟁과 노동자의 도전이라는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이익을 남기면서 기업을 꾸려가려면 그 정도의 감심장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기업관이자 돈을 벌겠다고 나선 이후의 철학인 것이다.

그들이 진실로 섬기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인 것이 명백하다. 소 쓰레기와 식용기름 사이의 춤추는 혼란은, 그들이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사기를 쳤던 서류에서였지, 그들의 눈깔과 그들이 철저하게 계산했던 전자계산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자본



가의 물불을 안가리는 탐욕의 전자계산기가 서류의 조작을 명령했고 소비자들이 소 쓰레기로 튀긴 라면을 먹고도 별 탈이 없기를 희망했던 것이다.

군소업체들이 생산하는 콩나물이나 두부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소비자로부터 배울 것이 따로 있고 선배 자본가로부터 배울 것이 따로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콩나물을 먹고 그 즉석에서 쓰러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의 원가 절감을 추구한다는 '끝없는 도전' 의지(결국엔 살인의지)에 따라 언제쯤엔가는 수은과 농약의 콩나물이 아닌 더 쇼킹한 재배법을 개발해낼지도 모르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어차피 자본주의 체제 자체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이익을 위한 경쟁' 원리를 기본적 철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으로 감추고 싶은 자본가의 비인간적 속성을 자꾸 내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자본가의 이러한 착취적 속성은 상품을 생산하는 일차적인 목적이 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다수 노동자·민중의 건강과 이익을 손상하지 않게 하는 근본적 기초인,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의해서나 비로소 치료 가능할 것이다.

다수 민중은 소 쓰레기 라면에 사료가루를 풀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을 때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의 금고에는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엄청난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

II

인신매매 문제

사람을 사고 판다.

물론 정육점의 소고기,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같이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저 멀리 식인종의 나라에나 있을법한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인신매매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의 우리나라도 사람을 폭력적으로 잡아다가 무슨 물건 떠넘기듯이 사람을 팔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다. 사람의 살과 육체가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직업여성으로 불리고, 밤거리의 여자라고도 불리는 여성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향락산업에 필요한 여성들을 대기 위해 퇴근하는 여성노동자, 시장 갔다 오는 주부, 학교 갔다 돌아오는 여학생 등을 가릴것없이 마구 납치

해서 폭력으로 다스려 업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여성이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한 것이며 '어차피 들고 도는 세상, 누구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나, 수많은 남자들이 직업여성을 원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지'라는 식의 근거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새로운 사회에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불가피하게 존속되는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와 같은 비인간적 현상이야말로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가?

물론 노동자가 사회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에도 남자들의 가정외 연애 욕구는 분명 예상된다. 그러나 그러한 남자들의 부도덕한 욕구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또한 분명히 구분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수 노동자·민중이 사회와 권력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노동자·민중이 여하한 노예적인 삶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인격과 성을 판다는 일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아무도 남의 인격을 돈으로 유혹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삶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격도 소중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사회가 다수 노동자·민중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인 것이다.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처럼 오직 돈이 주인인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돈을 독차지하고 있는(이론적으로 자본, 즉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들의 의도대로 대대적인 향락산업의 발전과 대대적인 여성들의 비인격화, 그리고 대대적인 남성 일반의 타락, 그리하여 결국에는 비인간적인 사회가 끊임없이 연속되는 현상은, 90% 이상의 인간(노동자·민중)이 주인인 사회에서는 절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대체 여성들의 밤 생활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라. 아무도 자기의 부인과 딸 앞에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피력할 수 없을 것이다. 또는 자기 아내와 딸 말고 다른 여성들 앞이라 해도 누구 한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감히 퍼지 못할 것이다. 만약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말한다 해도 세계의 절반은 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누가 그것을 퍼뜨리고 확대하고 있는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자라온 매춘 현상은 여러 각도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첫번째는 소위 3S 정책이라는 것으로서 자본가의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노동자가 공장의 가혹한 노동으로부터 받은 피로를 일회적으로 발산시킴으로써, 불만과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 자본가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투쟁으로 치달는다고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름아닌 자본가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서, 가장 대규모적이며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그 주체가 명백하다.

그들은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통해 예전에는 공창제도를,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사창제도(물론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을 집행하는 국가가 용인하는)를 지방마다 역전마다 방방곡곡 때뜨림이 없이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와 같은 도시는 아예 국내적으로는 감금단지라고 국제적으로는 향락단지라고 만들어가고 있는 정도이다. 자기 나라의 1/5도 안되는 매춘비용에 이끌려 몰려오는 일본의 노동자가 하루도 빠짐 없이 제주도의 밤을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매춘산업이 실제로 일회적인 차원에서나마 노동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공장노동으로 연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는 노동자에게 술과 향락산업이 없었다면, 그 스트레스

해소의 방향은 틀림없이 기계 또는 자본가에게 맞추어졌을 것이다”라는 누군가의 말은 여지없이 맞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노동자는, 인간적 정서를 발전시킬 참된 문화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다. 휴식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공단거리에서 벌거벗은 여성의 유혹을 뿌리치거나 또는 순응하며 살아갈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향락산업 번창은 지금까지 들은 이유만에 의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향락산업은 그것만의 분석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다. 향락산업 번창의 또다른 이유, 그것은 다름아닌 자본가들의 타락이다.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자본가들의 불타는 의지와 그러한 위험천만한 의지가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단지 성의 도구로 여기는 산업이 번창할 수 있는 것이다.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억울하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찾아서 풀어나가야지 난데없이 출세를 하면 해결될 것이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가사보다 자본주의 사회를 잘 요약하고 있는 논리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출세, 즉 돈을 벌든지 권력 근처로 진출을 해야만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을 풀 수가 있다. 다시 말해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일단 출세를 하면 다시는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된다. 돈이라면, 검은 머리가 피뿌리되도록 같이 살 마누라도 혼수가 적다고 패고, 그것도 모자라 장인까지 패고, 남편을 죽여 보험금이나 유산을 노리는 세상이다.

그러니 남의 여자 팔아서 돈을 버는 것쯤은 출세를 하려고 마음 먹은 이상 큰 문제가 될 수 없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인간의 노동력을 빼앗아가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으니, 끝으로 조금 점잖게 착취해가나 다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들 그것의 차이가 뭐

그리 대수로울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자본가에게 인신 매매는 단지 산업의 차이, 선반이나 밀링을 만드는 기계제작산업이나 몸을 파는 향락산업이나의 차이 이외엔 감지되지 않는 것이다.

자본이 다수 인간(노동자·민중)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거꾸로 일부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 남의 집 귀한 딸을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팔아먹을 것인가를 궁리하게 되는 것이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돈을 섬기는 것을 제1의 철학으로 삼고 있는 자본가가.

이와는 반대로 세계에서 자본가가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청소된 나라 중에 사창가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이라도 국가권력이나 민중이 공공연하게 용인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물론 아까도 잠시 언급하였듯이 예외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같이 하나의 명백한 제도로서 또는 당연한 관행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범법자 차원에서 존재할 뿐인 것이다. 새로운 사회 역시 아직 유토피아의 천사 손바닥같이 하얗게 발전하지 못한 결과일 따름인 것이다.

어쨌든 새로운 사회는 세계의 절반을 대규모적으로 비인격화시키는 자본가 정권의 제도적, 관행적 폐습을 오랜 기간의 노력을 통해 청소해 왔으며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수많은 여성이 자본주의적 밤으로부터 해방되고, 역시 수많은 남성이 자본주의적 성으로부터 해방되어 인격과 인격의 낮과 밤 그리고 사랑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민중이 사회의 모든 것을 실제로 소유해야 한다.

몸을 나누어 얻는 것은 사랑뿐 그 이외에 필요한 것은 생산의 현장에서 취득하는 사회, 남의 사랑하는 딸과 누이를 돈으로 넘볼 수 있는 자유와 욕망은 정신병원의 창살 안에서나 실현 가능한 사회가 우리가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인 것이다.

Ⅲ

마약과 청소년

주윤발을 봐도 ‘오빠——악’, 왕조현을 봐도 ‘언니——악’, 신디 로퍼를 봐도 ‘언니——악’. 조용필, 이지연, 하여튼 무대에만 조금 비쳤다면 언니 오빠 하면서 생 난리다.

저들이 앞으로 우리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아이들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저 암담할 따름이다.

물론 그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도 일단 대학에 간 다음부터 제 정신이 돌아와 학생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젊은이도 더러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입시지옥을 뚫어헤쳐나가기 위해 죽은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그 중의 첫째일 것이며, 어른들이 개척해놓은 온갖 나쁜 것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 두번째일 것이다.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에 얼굴을 파묻고 그들은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며 무엇을 잊고 싶은 것인가. 대마초 연기를 가득 폐 속에 담아 과연 무엇을 희망하는 것이며 무엇을 저주하는 것인가.

4당 5락(4시간씩 자면서 공부하면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그들의 은어)의 신념으로 공부하는 그들에게 대학과 사회가 주는 대가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분별한 경쟁과 죽은 활자의 노예가 되어, 또 한 세대의 이기적인 인간층을 완성해내는 일일 것이다. 수학과 과학은 원자 폭탄의 제조법에도 필요하며 원자력 발전소나 전기밥통을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그저 시험지의 빈 칸만 가득 채울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교육이다.

‘국가의 교육에 철학이 없다’라는 어느 식자의 한탄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지적 같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엔 철학이 있다.

그것도 분명한 철학이 청소년의 뇌리 속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승복의 반공절규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노동자·민중의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자기판단하기도 전에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며, 총탄 한 발에 역사의 기록이 백에서 흑으로 바뀐 자가 우리의 교과서에는 항상 영웅으로만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듯 교육에 철학은 분명 있으되, 진정 환각의 본드봉지보다, 조용필이나 신디 로퍼의 율동보다 청소년을 끌어당기는 참교육은 없는 것이다. 교육현장엔 친구를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혹한 이기적 경쟁의 철학만 있을 뿐 선의의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간 쓴 맛을 보게 되어 있다. ‘잘 되면 영웅이요 못 되면 역적이다’라는 철학이 청소년에게 주입되고 있는 것이다. 소수 영웅은 서울대학교를 거쳐 자본가의 코스로 접어들고, 다수 역적은 본드봉지에 얼굴을 묻어야 하고 대마초 연기와 함께 날아가야 한다.

소수 영웅은 무조건 자본가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현실을 ‘메주는 콩으로 찌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 대열 사이에는 아무런 귀천이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육이 청소년을 끌어당겨 새로운 장래를 준비시키기보다는 자꾸만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너 그렇게 공부를 못해가지고서야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노동자밖에 더 되겠냐?”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사회로 남아 있는 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너 나중에 노동자밖에 더 되겠냐”라는 예언은 악담 중에 악담이며 어린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다. 그래서 청소년

년들이 그러한 자신의 장래를 한탄하며 자꾸 도피하는 것이다. 본드봉지로, 대마연기로.

지금의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조건하에서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빈민 역시 우리 사회의 주역이며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원일기>나 <인간시대>와 같은 드라마 속의 이야기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사회는 비록 정의롭지는 않을지라도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나, 교육은 거기에도 한 술 더 떠, 있는 것(계급적 착취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의 고통)을 없다고 속이고 극소수 자본가 예비생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다.

적성은 무시되고 오직 성적만이 숭상되는 것이다.

학교가 소수 고득점자만을 끌어안고 나머지 다수는 일찍부터 학교의 관할에서 소외시켜 사회로 방출한다. 디스코장으로, 술집으로, 그리고 때로는 고층 아파트의 난간 아래로 자꾸 밀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지금의 청소년 상태로는 본드를 없애면 본드보다 더한 것이 머리를 덮고 있을 것이며, 대마초를 없애면 대마초보다 더한 것이 그들의 입에 물려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을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로 계급적으로 갈라놓았다면 지금의 학교는 성적으로 장래의 계급을 갈라세우고 있으며, 자본가가 노동자를 빈곤과 장시간 노동으로 괴롭히고 있는 반면에 오늘의 학교는 다수의 청소년들의(하늘이 준 자연적 특질인) ‘희망’을 짓밟고 ‘적성’을 뭉개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교는 동학을 ‘동학난’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는 동학과 노동자의 투쟁이 동일하다는 것을 경찰력과 법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자녀는 아버지를 사회의 적으로 배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물론 87년 7-8월 투쟁의 노동자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비운의

버림받은 계급으로부터 역사의 주인'으로 도약하는 첫 발을 내딛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잔업·특근·철야에다 셋방신세를 못 면하고 있으며, '난'을 '혁명'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정치적인 진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즉, 노동자의 자녀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며 가정으로부터 세계관을 교육받을 수 있기에는 아직 노동자의 사회적·정치적 진출이 미약한 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 부모가 가정의 권위와 사랑으로 사회와 학교에 의해 상처받은 아들딸들을 치유하기에는 장시간 노동과 가혹한 노동의 현실이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다수 청소년을 끌어안고 미래의 새로운 사회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전망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방팔방으로 막혀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서 단군 이래 지속되어온, 일방적인 지배자의 페이스가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격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드디어 청소년의 소외와 표류를 제어하고 상처를 아물게 해줄 수 있는 대안이 투쟁이라는 수단을 통해 솟구쳐올랐다.

전교조 투쟁이 바로 그 시발이다.

전교조 투쟁은 선생님들의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의 매도와 같이 이제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맑스-레닌주의나 가르치겠다는 투쟁이 아니다. 물론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민중민주주의 교육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 어린 그들을 교조적인 이념의 노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말고도 중요한 것이 많다.

자연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적성을 계발해야 하고, 사춘기를 인간적으로 경과하기도 해야 한다. 체력과 건강을 다져야 하며 문학과 학문을 습득하여야만 한다. 자본주의의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는 것은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민중민주주의라는 것의 실체가 청소년들에게는 바로 그것이다.

자본가들은(그리고 그들의 정부는) 자신들의 장래를 재생산하기 위해 경쟁의 철학이 뼈 속까지 짙은 소수 엘리트만을 끌어안는 청소년 정책을 펴면서 다수 청소년의 소외와 고민과 파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그리하여 그 아픔을 청소년 자신과 그의 부모가 겪게 되는 것이다.

본드봉지에 머리를 넣고 있는 청소년 자신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더욱 찢어지게 아픈 것이다.

1990년 4월 이전

판사와 노동자*

흔히 ‘판·검사’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한 꺾발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꺾발의식은 판사나 검사 스스로에 의해서도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사를 다른 말로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마 이러한 사고방식의 반영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권위를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일상사가 운동권 때려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 판이다 보니, 과연 때려잡힌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판사고 검사고 영감이고간에 결코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한참 지켜보다 보면 판·검사의 법과 변호사의 법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피고

* 주간 『전국노동자신문』, 1989. 11. 3.

석에 앉은 운동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놈의 법이 엇가락 법이요 사람잡는 법이다.

대학입시 300점을 거뜰히 넘기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한 몸에 받으며 법대에 입학해서, 육법전서를 달달 외다가 때에 따라서는 그것도 모자라 절간이다, 고시하숙이다 하며 얻은 학식이라는 게 결국 우리 같은 사람을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때려잡자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란 그야말로 묘한 것이다.

검사란 자의 논고나 논리는 별로 흥미가 없다. 왜냐하면 피고의 입장에서 보면 그자는 원래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애초부터 아무런 기대도 없고, 기대가 없는 만큼 그냥 기본적인 적대감 이외엔 별도의 감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사라는 자에게는 조금 다르다. 피고석에 앉아 한참 재판을 주도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노라면, 저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한 30센티 정도 높이 앉아서 누굴 점잖게 엿먹이고 있는 건지 헷갈리게 된다.

게다가 검사 두 명이랑 재판을 하려니 버겁기도 하고.

바로 이 판사라는 게 우리 노동자 피고에게 아주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지난 89년 10월 25일 부산지법의 한 법정에서 일어났다. 판사의 호명과 동시에 재판정에 모여든 200-300여 명의 노동자 동지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불러제끼면서 이흥석 의장과 문성현 동지, 그리고 세신실업의 동지들을 맞이하였다. 그러자 판사는 금방 성질을 부리면서 퇴장해버렸다.

몇 분 후 변호사의 설득으로 다시 등단한 판사 왈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 이라면서 낮게 깔리는 목소리로 방청석을 향해 일장 훈시를



하며, 한 번만 더 재판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방청권을 발부 하겠다고 겁까지 주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재판은 판사 주도로 풀려나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때 방청석 한쪽에서 “잘났어 정말”이란 야유가 나오고 “잘 알았으니까 빨리 재판이나 해라”, “아예 입장할 때 돈을 받아라”, “난 또 재판정에 와서 훈계받기는 처음이네”라는 소리가 연속 나오자 재판정은 금방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판사의 재판주도권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다.

이날 방청 노동자와 피고 노동자의 재판태도는 계속 그런 식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한 노동자는 증언을 끝내고 돌아서면서 판사를 향해 “오늘 동지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일부터 곧장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겁주는 것을 빼놓지 않았으며, “위대하신 재판장이 노동해방을 위해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간다”라며 내려오기도 했다.

판사는 절제를 상실하고 방청석을 향해 반말을 하고 샷대질도 하며 성질을 냈으며, 비겁하게 숨어서 말하지 말고 나와서 하라고 그랬다가, 한 노동자가 나가겠다고 하자 해본 소리였다고 하면서 방청석을 웃기고 있었다.

노동자가 구속된 자신의 지도자를 향해 경의와 동지애를 표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질 부리며 퇴장하는 주체에 되레 누구를 훈계하려고 드는, 그러한 판사에게 노동자가 보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판사의 허겁데기 같은 권위에 대해 거침없이 조롱과 공격적인 발언을 퍼붓는 일뿐이다.

우리나라의 판사는 중립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제2검사에 불과하면서도 그 잘난 권위에 도취되어 30센티 높이 앉아 우리 노동자를 웃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재판질서는 재판정의 노동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를 구속시킬 때 이미 파괴된 것이다.

판사 역시 바로 그 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며, 노동자는 파괴된 질서의 회복자인 것이다.

1989년 11월

1990년 12월 4일의 사형집행

전쟁으로 득을 보려는 사람들의 확실한 전리품이 되어, 그의 죄를 사하여주면서 외로운 늑대들은 갔다. 금전만능의 체제와 전쟁으로 정권을 쥐고 전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시대의 사조를 쫓다가 바로 그 사조를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마리의 희생양이 되어 그들은 갔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술 한 잔 받아줄 형편도 못되었기 때문에 희생양으로 선발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성경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하얀 건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독버섯을 키운 대지와 사회와 정부에겐 다소간의 면죄부가 주어졌다. 판사와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을 먹여살려야 할 사람들 몇몇이 없어진 셈이기도 하다. 이 나라 정부와 사회는 바로 그 독버섯을 키웠으면서도 판·검사는 해직 정도로 그치고 그들에겐 죽음의 역할을 맡겼다. 한편, 예수쟁이들은 병든 사회를 닦하고 교정하려 들기보다는 지배자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을 잊지도 않은 하느님 나라로 착실히 인도하였다. 그들은 목땃기를

앞에 두고 “이것은 자네 탓일세”라고 했을 것이다. 망월동 묘지를 한층 넓은 자들은 정의의 사도를 자처하며 범죄와의 전쟁 지휘관이 되어 있는 판국에,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라고 항의할만도 한데 그저 곱게 죽어야 하느님 나라에라도 갈 수 있다는 공갈·협박에 짓눌려 성경책을 두 손으로 꼭 끌어안으며 하얀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회는 그를 죽였으나 범죄를 죽이지는 못하였다. 아니 그를 죽임으로써 범죄구조를 일시적으로 은폐시킬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사형제도의 덕을 보게 된 것이다. 그의 무덤, 아니 그가 남긴 뼈가루에 이 사회의 모든 범죄구조를 쳐담아버리고자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죽음엔 그들이 직접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가 품은 원한을 다 담기에도 벅차다. 그들의 죽음엔 이 사회, 이 부도덕한 정권의 범죄행위를 담을 틈이 없다. 그것은 여전히 산 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일부의 범죄자들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엄청난 범죄구조를 은폐하려는, 법을 앞세운 ‘사기술’의 범죄행위를 또 한 가지 추가하면서 말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열사의 이름으로 죽든, 악마의 이름으로 죽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저 산 자들이 말할 뿐이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 범죄와의 전쟁을 보다 분명히 가시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 범죄적 사회구조를 지탱하기 위한 범죄정부의 ‘국민적 기만을 위한’ 단호한 의지, 범죄자를 가두고 관리하는 교도소가 너무 많이 썩어문드러졌다고 바로 그 하급 교도관들이 양심 선언과 규탄의 소리를 내지르는 이 범죄정부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서의 ‘사형집행’. 그들은 정의의 목걸이와 하나님의 목걸이에 묶여간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 생전 정의하고는 아예 담쌓고 지냈듯이 그의 죽음 역시 재소자 상대의 담배장사에 눈알이 빠져 있는 대한민국 구치소에서 맞은 것이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어찌다가 범죄자로 살게 되었으며 죄없

는 부모형제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먼저 가게 되는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다만 예수쟁이들의 허튼 소리와 정부의 단호한 의지만이 그들의 최후를 재촉했을 뿐이다.

범죄자로 살다가 법강도들에게 걸려들어, 범죄정부의 전쟁소모품으로 담배장사꾼들에 의해 죽다.

사형수를 만드는 사회. 사형수의 손에 죽어야 할 죄없는 평범한 시민들을 만드는 사회. 화 있을진저! 이 살인자들아!

1990년 4월 이전

노동자는 국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외국은커녕 우리나라의 물 건너가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한 노동자도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아주 오래 전부터 국제적인 노동자였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김우중이만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는 그보다도 훨씬 전부터 세계적으로 생활해왔다.

우리 한국의 민중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고 수탈당하던 일제하 40여 년은 아직 우리나라의 노동자·농민을 세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자마자 시작된 미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 상륙은, 그들이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성립시켜놓은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 설계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자·농민 역시 급속하게 국제적인 노동자로 탈바꿈시키기 시작했던 것이다.

세계의 자본가가 반공국가인 한국을 향해 돈보따리를 들고 입국했으며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들을 국제가격보다 아주 싼 값으로 사갈 수

있었다.

수출품은 내수품보다 훨씬 잘 만들어져서 훨씬 싸게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외채가 날로 눈덩이 같이 불어만가던 시절도 바로 이 때였다.

근로기준법은 있으나마나한 장식용이었으며 노동자란 말 한 마디만 해도 빨갱이로 몰려 치도곤을 맞던 시절이었으니, 세계 어느 곳이든 돈만 벌 수 있다면 달려가는 자본가들이 이러한 한국의 사정을 놓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국제적으로 갈라먹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맨 처음, 미국의 저끄러기 농산물 강제수입은 일단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을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으며 대규모의 땅없는 농민을 저임금의 임금노예로 만들어놓았다. 그 다음은 한국을 보다 빨리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기도 할 겸, 이자놀이도 할 겸해서 대규모의 차관들이 물밀듯이 밀어닥쳤다. 이 때의 차관이라는 것도 사실은 거의가 현금차관이 아닌 물건으로 주는 차관, 즉 이자놀이 해서 좋고 자기네 나라에선 이미 구식이 되어버려 처치 곤란한 골치아픈 생산설비를 받을 가격 다 받으면서 처분해서 좋은 일거다득의 장사였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었다.

그 후로도 제국주의자들의 장사는 계속 발전되었다. 한국의 독재정권이 수출드라이브(수출 위주의) 정책을 펴나가는 동안, 한국 노동자의 피와 땀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제품과 함께 포장되어 고스란히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여공들이 타이밍을 먹으면서 한 달에 몇날 며칠을 밤을 새우고 미싱바늘에 손을 꿰며 만든 옷이 '단돈 백원'에 덩핑수출되는 것이 다반사였던 것이다.

중동에서 석유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석유구입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로 구입할 것이 강요되었으며(메이저 : 미국의 국제적 석유회사연합),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때 실제 오른 가격보다 몇 배의 오른 가격이 요구되었다. 물론 그 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석유가격이 뚝값으로 떨어져도 우리나라의 구입가격에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군부독재정권의 직접적인 이해와 가장 가까운 군수물자, 전쟁무기의 구입은 그 규모면에서나 구입의 성격으로 보나 가장 대규모적으로 한국의 노동력을 외국의 자본가에게 이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조원 규모의 돈, 즉 노동력의 결실이(이론적으로는 '가치'가) 전혀 비생산적인 분야로 처박아지고, 그 이익을 고스란히 국제 무기상이 챙겨가고 있는 것이다.

단돈 십 원 한 푼 들이지 않고서도 피에르 가르탱이다 기라로슈다 하는 상표만을 팔아,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간 노동자의 임금보다 더욱 많은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다. 유명 레페르 하나만 보고서도 거액의 돈을 주고 사기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기분이 좋아 어리둥절해 하는 국제자본가도 제정신이 아닌 상태까지 만들어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돈의 국제적인 가격 즉 환율이라고 불리는 우리 돈의 가격도 한국은행에 의하거나 또는 어쨌든 한국의 어느 구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IMF(국제통화기금의 영어 약자 표기로서, 현재는 미국이 중심이 되어 미국 중심으로 가입 국가의 경제에 간섭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도구로 되어 있음)에 의해서 권고라는 이름의 명령으로 결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적지 않은 기간의 국제적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강력한 반노동자적 정권에 의해 한국의 노동자가 생산한 결실은 국제적 착취의 마수에 철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며, 국내외적 자본가들이 그 이해에 따라 서로 갈라먹고 있는 것이다.

오나시스의 미망인인 재클린 오나시스가 탄 호화 요트엔 다만 얼마간이라도 한국 노동자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것이며, 요염하기 그지없는 홍콩의 왕조현과 불란서의 소피 마르소가 치장하고 다니는 비용의 일부와 생계비의 일부 역시 우리 한국의 노동자가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내노라 하는 세계의 갑부치고 우리 한국의 노동력을 다만 얼마간이라도 착취해가지 않은 자는 없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썩은 작업장의 구석에서 기름때로 범벅이 된 한국의 노동자가, 한 사라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캐비아(철갑상어의 알) 요리를 즐기고 있는 국제적 갑부들의 식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차관에 대한 이자리는 명목으로, 상품판매의 부등가교환으로, 전쟁무기와 핵발전소의 강매로.

자본가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 그 바람에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국제적으로 살았다.

그러므로 노동자의 해방은 한국에서의 해방이자 국제적 착취로부터의 해방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1990년 4월 이전

노동운동가의 아내는 천사여야 하는가

2

노동운동은 노동자를 해방시킴과 동시에 여성을 온갖 사회적 불평등 상태에서부터 해방시키는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도 그러한가? 87년의 대투쟁을 경험한 다수의 노동운동가 동지들이, 그리고 지금도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밤잠을 설치고 고생하고 있는 노동자 동지들이 과연 그러한 노동해방의 과정을 통해 우리 여성들을 남녀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나가고 있는가?

아니 뭐 폼나게 여성해방이고 자시고까지 나갈 것도 없이 결혼한 동지들이 자신의 아내를, 결혼하지 않은 남성 동지라면 여성을 대하는 자세에서 과연 여성을 해방시켜나가고 있는가?

우리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노동운동을 하고나서부터 우리의 아내가 노동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

에 비해 남편의 의식화와 민주화 혜택을 보고 있는가? 그리하여 노동운동 덕택에 호강하는 방향으로 가정이 발전되고 있는가? 아니면 노동운동 한답시고 친구들과하고 만나는 시간이 많아져 늦게 들어오는 시간은 늘어만 가고, 예전에는 남편 시중만 들어도 됐는데 이제는 남편 동지를 먹거리 시중까지 들어야 하는, 전업·특근을 안해 수입은 줄었는데 동지를 만나면 술이라도 한잔 걸쳐야 하니 지출은 오히려 느는, 예전보다 더욱 고달픈 상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예전에는 자기 흥이 나면 어찌다가 가룸에 콩나듯이 설겅이도 하고, 집안일도 돌보고, 아이들하고 놀아도 주었는데, 노동운동에 바빠지고('미치고'라고 표현하는 여성들도 상당 수 있다) 나서부터는 그것마저 절단되어 집안일의 남녀분담만(남편은 위대한 노동운동, 아내는 가사노동을 통한 내조라는 분담) 더욱 극단화되지는 않았는지?

한국의 남성노동자 동지들은 모두 한번쯤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가 아닌 집안의 유일한 대중인 아내에게 말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부끄럽게도 앞에 써놓은 경우의 뒤쪽 방향으로 십 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열의가 넘치고 넘쳐 나중에는 노동운동을 그 어떤 절대적 가치로 받들어모시면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시절을 살았었다.

노동운동으로 바빠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그리하여 아내가 노동해방이라는 위대한 사업으로 피곤에 찌든 남편을 이해하고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만약에 늦게 들어온다고 또는 설겅이 안한다고 그리고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온다고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노동해방운동에 대한 불철저한 사고방식으로서 당연한 비판의 문제로서, 그리고 '여자들은 그저 자기 하나만 위해주어야만 좋아한다니까' 하며 '여자들의 속성'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그러나 진정 그러한가?

박노해의 문학세계 속에서도 같이 남편이 노동운동하시느라 며칠씩 집에 안들어오고 거의 매일 밤 술을 먹고 들어와도, 천생연분의 한쪽 당사자는 불만 하나 없이 새순 같은 미소로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동지적 남녀관계인가?

그리고 그것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모델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

노동자 동지들!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 그런 천사같이 마음씨 좋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런 상황은 문학세계 속에서도 자주 등장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일 뿐 피곤한 현실의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아울러 노동운동은 자기 아내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닐 뿐더러, 사람이 천사가 아닌 바에야

이해를 하는 데도 한도가 있는 법이다. 레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그런 노동자의 아내라 해도 불만을 표시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참되고 남녀평등적인 가정관계를 건설해 나가는 가장 역동적인 첫 출발점인 것이다.

부인 동지의 너무나도 당연한 불만에 대해 운동이 어찌구, 이해가 어찌구 하며 강제로 누를 때, 그리하여 막연한 노동운동의 권위로 짓눌러 아내의 세계관 발전을 결정적으로 제약할 때,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노예적 세계관을 가진 아내와 지배자적 세계관을 가진 노동운동가의 가정이 바로 그것이다.

가정의 올바른 관계는 그 어느 것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상호 불만을 진실된 마음으로 인정하고 진지하게 해결해나 가려는 의지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정파괴범이 노동해방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해방 이후에 가정의 평화와 여성해방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건설해나가는 것이며, 누군가가 노동운동에 주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내의 최초 불만과 요구가 남편의 개혁적 사고와 결합함을 통해 결국에는 아내의 세계관이 순조롭게 바뀌므로써 드디어 동지적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주로 동일한 세계관이 전제되어 결혼하는 가정과는 다르게, 노동자인 남편이 먼저 의식화되고 아내가 나중에 의식화되는 경로를 밟을 수밖에 없는 다수 노동자 가정의 남녀평등 방정식이다.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공장으로 일하러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는 공장동료들이 찾아와 남편이 죽었다고 전해준다.

아내는 실신하고 동료들은 이제 죽은 노동자의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한다.

침대에서 깨어난 아내는 통곡한다.

남편의 동료들도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다.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빈소 앞에 마주앉은 아내는 다시 울며불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실신한다.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

그 중에는 남편이 새카맣게 타서 돌아온 경동산업의 노동자 아내도 있으며, 건설중장비 바퀴에 짓눌려 돌아온 대우중공업의 노동자 아내도 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아내에게 죽을 때까지 지울 수 없는 깊은 아픔을

주고 갔다.

아니 그들이야말로 가장 큰 아픔을 안고 아내의 곁을 떠났다.

살아서는 이 땅에 노동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서러움 다 받으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그는 그것들의 몇 배, 몇십 배의 아픔을 한꺼번에 간직한 채, 남겨준 채 떠나갔다.

사람들은 “뛰니뛰니해도 죽은 사람만 서러운 것이다”라는 말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 고생이다”라는 말을 동시에 한다.

그러나 죽은 노동자는 말이 없다.

결국 산 노동자의 아내만이 그 모든 아픔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자본가의 밥으로 넘기고, 혼자 울면서 쓰러져 실신하면서 아픔을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떤 아픔도 이만하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도대체 사랑하는 아빠를 잃은 아이들을 안고 어떻게, 그리고 무슨 설명으로 달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며, 위로할 수 있는 것이란 오직 죽은 남편을 살려내는 것뿐이다.

씨늘하게 죽어 있는 남편의 시체 앞에서 흥정되고 있는 보상협회는 오히려 그 아내의 아픈 마음마저 왜곡시키고 철저하게 외면하는 짓거리 에 불과하다.

죽은 노동자의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하는 남편을 되돌려주는 것이며, 그 동료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자신의 아내를 저와 같은 상황으로 몰고가지 않기 위한 일들에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는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시커먼 불길 속으로 휩싸이지 않도록, 중장비에

짓눌리지 않기 위하여 산 노동자들은 대오각성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홀로 남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는 것을 살아 있을 때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하얀 소복차림으로 남편의 죽음을 끌어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아내를 보고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영원히 보낼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며 쓰러지는,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를 보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공장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그 유일한 이유가 남편이 노동자였다는 점이다.

때로는 다수 동료 노동자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장섰다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철벽을 마주하면서, 아니면 오직 생산량 증가에만 눈이 어두어 공장 곳곳에 죽음의 함정을 방치해놓고 있는 산업재해의 덫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이 '비정한 자본주의의 노동자 정책'이 결과한 필연인 것이다.

우는 노동자의 아내.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소복은 이와 같이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남편이 입힌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비정한 공장의 현실이 강제한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가는 남편을 뒤쫓으며 영원히 보내지 못해 우리 모두를 울리고 있는 만큼 당신의 남편은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3일 오전 인천 대우중공업 중기본부에 근무하는 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의 이름은 이종진. 나이는 서른 둘이며 세 살 아이가 있었고 다섯 달째의 아기가 엄마 배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의 잔업·철야로 겨우 조그만 집을 장만해 다음 달에 입주할 것을 준비중에 있었다. 필자는 이종진 동지의 죽음 이후 내내 빈소 곁에 있으면서

노동운동이고 뭐고 이전에 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동질감으로부터,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아내와 이들을 두고 있다는 동질감으로부터 참으로 가슴 깊이 많은 것을 느꼈다. '노동자가 공장에서 죽기까지 해야 한다니! 그리고 진정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를 홀로 두고 무참하게 죽어야 한다니!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남편을 붙들고 울어야만 한다니!'를 목도하면서 너무나 아픈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 항상 벌어질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생이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더욱 노동자의 힘을 길러야 한다.)

1990년 3월 7일

환자와 신자

가뜩이나 비좁고 더워 짜증스러운데 아까부터 웬 미친 놈 하나가 더욱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천당가잔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한 마디 해주고는 싶지만 괜히 말 한 번 잘못 붙였다가 찢다리라도 붙을까봐 간신히 마음을 누르며 꼭 참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확한 표현이자 감정이 실린 표현으로는 '미친 놈', 의학용어이자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정신이상자' 그러므로 '환자', 그 자신이 정의하기엔 '신자' 하나가 아까부터 비좁은 전철 안에서 무언가 잘 알지도 못할 말을 혼자 열심히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본인은 아무리 하늘나라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다녀도 그것은 전철 안의 시끄러운 잡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도대체 현실과 그 현실의 다수 또는 일부의 상식에 부합하는 소리를

해야 말같은 말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혼잡하고 짜증스러운 전철 안에서 느닷없이 천당이나 가자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비정상적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것이다.

의정부행을 타고 있는 승객에게는 그 구간까지만이라도 편안하게 가는 것이 복이면 복이지, 너무 구간이 다른 천당이나 가자고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는 여러 방면에서 겪을 수 있다. 물론 노동운동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운동에 대한 열의가 넘치고 넘쳐 나중에는 스스로가 설정하고 있는 어느 고정적인 목적을 남에게 피곤할 정도로 강요하거나, 자꾸 가르치려 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운동조급증.

운동에 대한 열의와 그 뜻은 가상하나 어느 특정한 '규격품'만을 애용할 줄 알았지 새로운 제품, 즉 다수 노동자 동지들의 상식에 어느 정도 부합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말과 논리를 펼줄 모르는 운동가가 이에 해당된다.

그들은 도대체 참을성이 없다.

그리고는 현실의 다기한 반응과 무정형의 운동양식에 대해 곱곰이 따져보거나 살펴볼 줄을 모른다.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느 정형화된 '규격품'이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비판을 가하고 싶어 입이 움찔거리려 참지를 못하고 따다다다 퍼부어야 직성이 풀린다.

물론 그러한 동지들의 특성은 그 자신이 뱉어놓은 그 수많은 원칙적 입장들을 하나의 완성된 체계로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함께, 대중에게는 입에 침을 튀기면서 뱉어놓고도 스스로는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실천으로 이어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그 원칙들의 진행과정과 조작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살아 숨쉬는 것으로서의 원칙이 아닌 것이다.

대중에게 어느 '규격화된' 원칙을 지키라고 떠들고만 있지 그 스스로 그것을 조직해내는 데는 거의 관심조차 없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입을 놀리는 데는 일반 노동자의 위에 우뚝 서 있지만 뺨은 말에 책임지는 데는 무능력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소위 '원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더 심하게 말하자면 원칙과는 사돈에 팔촌 사이도 안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한 번은 내가 어느 언론매체를 통해 여성 동지들의 문제에 대해 글을 몇 번 썼더니 어느 여성노동운동단체 발행의 기관지에서 글을 하나 써달라는 부탁이 왔다.

주제는 남성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여성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소재와 형식은 자유롭게 정해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별로 특별한 의미 없이 써달라는 성의를 생각해서 써주기로 하고 나름대로 소재를 정해 원고지 약 8매 정도를 써주었다.

그런데 부탁할 때는 언제고 내가 써준 원고는 그 기관지의 편집회의에서 일정하게 비판되면서 필자의 양해도 없이 기본 원고에 수정을 가해 실기로 했다는 전갈이 왔다.

그 이유는 이렇다.

필자가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도대체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이다(글의 소재는 필자가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적 변화과정을 쓴 것이었다).

과거에는 자신의 아내를 가사노동을 진담하는 사람 정도로 여기다가 지금에 와서는 동지이자 연인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딴 식으로 여자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식만 있지 도대체 반성의 빛이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우리 한국영화 방식과 같이 처음 몇 장만 보면 그 끝까지 줄거리가 나오듯이 기승전결이 안 갖추어져 있으며, 잘못된 세월을 살다가 생각이 건전하게 바뀌었으면 그에 걸맞은 반성의 행적과 그 행적의 결과 해피엔딩에 근접한 인간승리적 무엇인가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며 그 희망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렇게 썩박한 인간승리적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다양한 현실과 진행과정은 도대체 누가 호홉을 같이 할 것인가? 도대체 그렇게 획일적인 기준으로만 성장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는가?

따지고 보자면야 필자도 '규격품'의 제원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필자의 현실진단, 즉 다수 노동운동가나 선진적인 노동자 동지들의 실상을 접해볼 때는 어느 특정한 규격품보다는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들의 발전상태와 진행상태를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표현하는 것이 적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글을 쓴 것인데, 그것을 규격미달이라고 비판을 하고 글에 수정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나는 그들의 획일적인 기준에 반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차라리 요즘에 그런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되나라고 할 만큼 비현실적이고 후진적이라는 비판이 내려진다면 모르겠으되, 다소 모범적이라 할

만큼의 함량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글에 수정을 가한다는 것은, 필자의 글이야 자기들 마음에 맞도록 수정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있는 현실은 과연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모든 글과 주장이라는 것이 어차피 어느 정도의 귀감적 요소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거 너무 밝히다 보면 귀감적이긴 하나 진행과정으로서의 생명력에 커다란 지장이 생긴다는 것을 더욱 신경써야만 할 것이다.

획일성.

바로 이 획일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흔히 운동조급증에 잘 걸린다.

운동을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조직해내기보다는 마음 속에 있는 원칙 쪼가리를 뺄어내야 속이 시원하고 운동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이다.

우리 어른들이 쓰시는 말 중에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란 말이 있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어째서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 될까?

아마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또는 말이 많은 공산주의자(또는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동지를 경험해본 노동자 동지들은 이 말을 곰곰이 한 번 새겨보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말이 앞서서 사람,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 말로는 산수갑산을 다녀올 수 있으나 현실의 문제를 조직해내지 못하는 사람, 원칙이라면 입에 침을 튀기는 사람.

아마도 바로 이런 사람을 놓고 우리의 아버님대 분들이 '자고로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지'라는·뚝 맞는 말씀을 만드셨을 것이다.

노동해방도 좋고, 사회주의도 좋으며, 자본가의 타도도 좋지만, 도대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미덥지를 않으니 어찌면 좋은가.

물건을 선반에 물려 신나게 깎으려고만 들었지 선반 자체의 정밀도와 자신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너무도 게을리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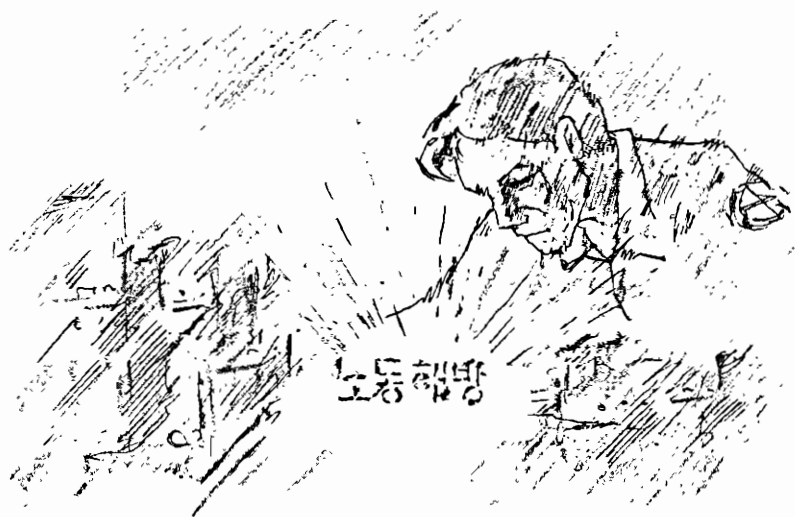
자기가 숙련도가 낮고 선반을 다룰줄을 몰라서 불량이 나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쉽게 물리고 쉽게 깎다가 불량이면 획 집어던지고 어디 가서 새 재료나 하나 구해오려는 사람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해도 우선 가공할 재료의 특성을 알아보고, 기계의 특성을 살펴 그에 걸맞는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는 차분하게 가공해나가면서도 계속적으로 가공상태를 살피며 물건을 만들어내야 불량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그럴 때는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며, 손해가 되더라도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시간이 되어도 일에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다.

노동운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와 거의 유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나의 완성된 물건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말이다. 가다를 고정시켜 확확 찍어내는 프레스작업과 같은 것이 노동운동이 아니라, 통자재료를 자꾸에 물려 일단 꺾테기를 벗겨낼 때는 왕창씩 깎아내고 왕창 깎는 바이트는 그에 맞는 바이트를 물리고, 그 다음에 정밀도를 요하는 부분부터는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 한 번에 많이 깎아내기보다는 조금 깎아내고 측정해보고 또다시 조금 날리고는 측정해보는 방식이 훨씬 우리의 노동해방 제작과정과 유사할 것이다.

그럴 때는 말이 필요없다. 아니 한눈이라도 팔게 되면 아차 순간에 이미 물건은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도면만 잘 본다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아니다. 그 도면이라는 것 역시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의 가공과정의 기술 축적이 끊임없이 반영되어나가는 것의 결과물이다.



노동운동의 이론과 원칙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큰 것은 큰 것대로 완만하게 바뀌어나가는 것이며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급속하게 바뀌어나가는 것이다(이론과 원칙의 위상). 그리고 다수의 일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영역일수록 거의 모든 실천의 문제들은 매일매일 바뀌어나가는 것이다.

오늘도 노동해방, 내일도 노동해방, 오늘도 어느 노선, 내일도 어느 노선만을 외고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노동해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봐도 심중팔구는 맞아떨어질 것이다.

문제는 노동해방의 진행과정을 조직해내는 문제가 우리 모두의 절실한 문제이지(이론과 실천영역 모두에 걸쳐) 1번부터 30번까지 모두 '노동해방'이라고 써넣어 100점 받을 수 있는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문제를 그 비정하고 악랄하기 그지없는 자본가들이 냈을 리가 만무한 것이다. 그러한 규격품은 성경책이나 교조적 이론에서나 존재할 뿐 현실의 것이

아니다.

분명히 하건대 다수 노동자 동지들에 의해 존중받을(존경이나 적극적으로 지지는 아닐지라도) 수 없는 논리나 목소리는 분명 노동자의 것이 아님이 틀림없다. 노동자가 진실로 자유로운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논리나 원칙이라는 것은 현실의 다수 노동자 동지들과 살아숨쉬며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해방의 메시이는 먼 미래에 그리고 다수 노동자 동지들의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며 오늘 속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자는 먼 미래의 유토피아를 위해 오늘 피터지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고통을 뚫고나가면서 이리저리한 미래의 상들을 그리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에 신뢰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의 노동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뚫어나 갈 수 있는 이리저리한 일들을 실제로 조직해내는 것이다. 노동운동에서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마음 속에서 그리는, 생각과 전략전술은 그야말로 막힐 것이 없다. 그리고 이론이라는 도상 위에 그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노동운동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연구하고 뱉어놓은 무수한 것들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나 실제로 실천으로 옮겨졌으며, 또한 검증다운 검증을 실시해보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정확하게 의정부행 열차구간 중의 한 역에서 내리려고 전철에 몸을 싣고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천당가자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자기 머리가 규격품으로만 가득 차 있음으로 해서 현실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꾸 대중을 향해 그리고 현실을 향해 그 탓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

현실은 분명 이중, 삼중, 사중,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한 측면을 이루

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동자도 마찬가지이며, 어느 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 노동자에게 진실로 필요한 사람은 역곡 가는 사람은 인천행을, 안양 가는 사람은 수원행을, 잠실 가는 사람은 2호선을, 녹번동 가는 사람은 3호선을 등등으로 정확하게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아무 열차에 올라타서는 노선 가릴 것 없이 천당가자고 하는 사람은 별로 쓸모가 없다.

노동해방의 권위로 무엇을 누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해방 알기를 맑스, 레닌 동지가 찍어준 자격증 정도로 생각하는 것일 게다.

이론적 발전의 성과는 그것을 현실 속에서 적용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교정되고 살이 붙을 때만 빛나는 것이지, 그것을 현실의 다수 대중에게 무조건 강요하거나 그것을 받들어모실 때에는 쓰레기와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1990년 4월 이전

공상과 이상

새로운 사회.

그 누구도 노동자를 착취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사회, 강제와 감시노동이 없는 사회, 관리자 놈들이 졸졸 쫓아다니며 들들 볶지 않아도 양심적으로 쉬면서 양심적으로 일하는 사회, 그리하여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지불받는 사회, 웃으면서 출근하여 명랑하게 퇴근하는 사회, 그야말로 웃으며 즐겁게 노동하는 사이에 예닐곱 시간의 하루노동이 끝나는 종이 울리는 사회.

나는 그동안 약 10여 년 간의 노동을 통해 바로 그러한 사회가 우리 노동자가 해방된 사회의 한 풍경이라고 생각해왔다.

종이 울리는 사회.

노동자를 울리고 고통주는 모든 착취와 억압의 측수들이 완전히 절단되고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붉은 새아침을 알리는 위대한 역사의 종이 울리는 사회.

그렇다면 나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희망 다 제쳐놓고 붉은 아침에서 미래의 희망을 찾았던가?

나는 그렇게 성장되도록 강요받아왔다. 현실의 공장생활은 한 노동자에게 그것 이외에 다른 희망을 줄 수가 없었다.

추운 겨울날.

새벽 같이 일어나 이불개고 이빨닦고 세수하고 밥먹고 집을 나와, 만원버스 안에서 일대 출근전쟁을 치르며 후문을 통과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철갑같이 굳어진 기름작업복도 녹이고 얼어붙은 몸도 녹일 겸 따뜻한 스팀 곁에 조금 가 있을라치면 어디서 왔는지 아우슈비츠 감방장 같은 조장, 직장 새끼가 달려와 뭐가 추워서 안달이나며 기계 옆으로 내어쫓는다.

나는 정말 추운데 안추울 것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따뜻한 스팀 곁에서 차가운 기계 곁으로 몰아세우는 정도에도 그 자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기계의 유압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출근하기 한 시간 전부터 공장 안으로 스팀을 넣는 자들이, 노동자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기 위해 약 십 분 정도 스팀 곁에서 서 있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비정한 자본주의의 주인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일을 하면 몸이 풀린단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을 하면 몸이 풀린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그와 똑같은 상식인 몸이 풀려야 일이 잘되고 몸이 풀려야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실의 공장노동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다.

사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오직 생산량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는 사람 다루는 데 거침이 없는 사회, 그래도 변변하게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자존심 값아가며 기계 곁에서 시름을 달래야 하는 사회, 되려 그렇게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으며 일할려거든 집에 가서 애기나 보라며 의기양양해 하는 사회, 그리하여 결국에는 다수 노동자를 비참한 심정으로 빠뜨려 자본주의의 정반대 편을 갈구하게 만드는 사회.

그것이 비록 사회주의 사회이건 빨갱이들의 나라이건 노동자가 진실로 해방될 수만 있다면.

더운 여름날.

찌는듯한 더위와의 씨름과 생산량을 채우기 위한 기계와의 씨름 속에 진이 빠지는 건 과부하가 걸린 노동자와 고물 선풍기뿐, 더위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기 위한 회사의 대책은 무성의하기 짝이 없다.

더위는 분명 극복될 수 있으며 그 대안은 지금의 선풍기 대수를 두 배 정도 늘려준다는가,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약 20분 정도 더 늘린다는가, 얼음물을 좀더 자주 그리고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가 정도만 해도 훨씬 나올텐데, 회사와 관리자들은 아예 그런 조치들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얼마되지 않는 더위해소 자금이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진보적인 현명성도 떠올릴 수 없을 정도로 '돌대加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더이상 한 나라의 생산력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자들, 노동과 생산을 통해 인간을 좀더 풍요롭게 만들기보다는 더욱 비인간화시키는 자들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가 죽음에 임박해서까지 모든 문제는 국민들의 애국심 부족 탓이라고 말하는 만큼의 쓰레기 사상, 독재와 정신병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광주를 무덤으로 만들며 등장한 전투

한 식의 독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랐던 바닷가 귀퉁이에 위치한 한 공장의 노동자는 그렇게 현체제의 비인간적 강제노동을 일상생활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나의 생활철학은 그런 현실의 모순 한가운데를 관찰해나가면서 형성되었다. 추운 것을 추운 것으로,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의 냉엄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러한 불편부당한 비인간적 상황을 개선시킬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우리 노동자에겐 철저하게 가로막혀진 공장상황의 한가운데서 나는 나의 가슴 속에 붉은 희망의 뿌리를 내리면서만 분노와, 추위와, 더위를 달랠 수가 있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약 200년 전 맑스가 과학적으로 예언한 바와 같이, 자본가와 그 기생관리자들은 노동자를 빨갱이로 만드는 데 그 한 당사자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투쟁, 해고, 구속, 학습.

투쟁과 해고는 나를 한 공장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게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구속과 학습은 나를 정치의 문제, 착취의 사회적 범위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게 해주었다. 즉 공장의 울타리를 넘게 된 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 문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의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억압 그리고 사회적 소외 문제에 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국민학교 반공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산주의 상과 거의 비슷한 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머리 속에 담아가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때였다. 맑스를 만났으며 레닌을 만났다(물론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그때 만난 사람은 맑스, 레닌이 아니라 스탈린이었다).

한 공장 범위와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노동자 문제의 정치사회적 인식

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서서히 시각이 단순확일화되어가고 있었다. 생활에 상식이 적용되지 않기 시작했다. 현실은 거지에 가까울 정도로 고난에 차고 불편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로 견디어나갔다. 그리고 그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에 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모가 나도 한참 모가 나게 비쳐졌으나 거의 개의치 않고 살아갔다.

노동운동과 현실생활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극단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현실의 다양한 부면에 대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동료들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정하게 고정화된 현실분석에 기초한 미래의 가상적 상을 희망으로 삼아 절대적 가치로 모셨으며,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운동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선 확일적이며 배타적이었다.

공장생활로부터 얻은 분노와 빈곤 그리고 좌절이 이제까지의 생활이자 현실이라면, 소위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얻은 미래와 계획 그리고 희망은 그야말로 낙원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의 사회주의는 그런 것이었다.

가운데가 많이 빈 사회주의, 사회주의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투쟁, 전위당, 계급철폐, 프롤레타리아 독재, 생산수단의 노동자 소유 등등의 뼈다귀에 살과 피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리하여 그런 낙원을 현실의 소재를 가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나의 것일 뿐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평범한 것이 아닌 사회주의였으며, 결국에는 전진하는 다수 동료 노동자와 어깨걸고 함께 나가지 못하고 홀로 항상 떨어져 있게 되어버렸다.

새로운 사회가 돌아오면 20여 평 정도의 아파트는 분배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전세금을 까먹는 마음을 위로하며 지냈던 시절이 바로 그때였으며, 이미 일정하게 그려져 있는 노동운동의 자기 원망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다가한 노동운동 실상을 아주 쉽게 매도질하는 습관을 거리낌없이 자행하던 것도 그때였다. 그야말로 대한주택공사에 주택부금 붓고 있는 것만큼의 계획과 설계로서 나의 사회주의는 구체적이었으며, 또 그와 같이 주로 주관적인 특정한 틀 속에서만 살 뿐 현실 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공상에 가까운 것을 현실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사회주의는 그렇게 입체성과 생명력이 없었다.

인천의 바닷가 공장과 페테르스부르크와 라이프찌히와의 먼거리 결합만큼 한 노동자의 경험적 각성과 맑스, 레닌의 이론 줄거리 간의 결합은 가운데가 너무 많이 빈 매우 왜곡된 결합이었다.

계급적 각성이 스며 있던 하나 너무 획일화된, 그리하여 노동해방과 사회주의를 어느 고정화된 모델로서만 떠올릴 수 있을 뿐 입체화된 설계도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리고 진행과정으로서의 생명력 있는 '건설사회주의'가 아닌, 결과에 대한 공상으로서의 사회주의를 홀로 보듬어 안고 동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하여 다수 노동자와 함께 가는 사회주의가 아닌 전위가 된 자부심과 헌신성으로 소수가 앞장서가는 것으로.

거기엔 다수 일상노동자의 생활상식과 계급적 입장이라는 것이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전위는 계급적 입장으로 뚫뚫 뭉쳐진 인간이며 대중은 기본적으로 전위에 의해 지도되어야 할 미완성 노동자라는 생각, 그러므로 대중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연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조급한 마음으로 자꾸 무언가 가르치려만 들게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게 된다.

거기에선 맑스와 레닌과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과 차우세스쿠 간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이자 사회주의자로서의 동일성만 확인될 뿐, 누가 근본적인 인간해방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

를 실제로 이탈하고 있는가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오직 사회주의의 레페르가 붙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곧 사회주의 자체를 훼손시키는 것으로만 취급될 뿐이다(물론 지금 와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것은 모두 스탈린주의에 가까운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국민학교 반공교과서에 나오는, '아오지 탄광'으로 상징되는 공포의 사회주의에 다름아닌, 결코 건설되었선 안될 사회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반공영화에 나오는 우리나라와 나쁜 나라와의 싸움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기고 나쁜 나라는 무조건 지는 식의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아니었나 싶다(그러므로 실제로는 사회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러다가 생활이 바뀌었다.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전위혁명가는, 다수 노동자를 고통과 빈곤으로 몰아넣는 자본주의의 온갖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위대한 역사적 사명감과 헌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투사(?)는 그 이상을 일시 접어두고 우선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공장에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꿈은 곧 밥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 관철되었으며, 공상이 현실화될 전망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생활을 위해 들어간 공장은 이전에 다니던 공장에 비해 근로조건이 너무 형편없었으며, 가지고 있던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없는 공장이었다. 이미 그때는 노동운동 관련 전과자가 되어 근로조건이 양호한 공장에는 취직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공장노동의 경험과 투쟁으로부터 얻은 각성과 맑스, 레닌 어록의 극히 일부가 결합되어 형성된 계급적 단서 또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포기

하든지, 아니면 그 커다란 간격을 메꾸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시 시작 하든지를 결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생활의 압박이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라는 상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되는 중대한 문제였으나, 날로 허물어지는 뼈다귀만의 사회주의 이해를 대신 할 진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상은 주위의 누구를 통해서도 도움받을 수가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자본주의에 대한 골간적 이해와 사회주의에 대한 골간적 이해만은 끝내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동안의 여러 경험을 통해 형성된 나의 분노이자 희망이자 유일한 인간적 갈망의 표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원래부터 몸에 밴 공장생활의 덕택과 여전히 도도히 진행되는 자본가와 관리자들의 물심양면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나를 지탱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사회주의라는 것은 나를 이리저리 흔들어놓았지만, 내부로부터 형성되었으며 항상적 삶의 기초인 자본주의의 공장생활은 나를 빨갱이로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사회주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안돼서 찾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주의. 그리고 외국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중들의 대투쟁과 변혁의 드라마가 위력적인 숨결로 전해주는 새로운 사회주의.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을 쟁취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나가는 설계도로서의 사회주의.

강제와 감시노동이 사라지는 노동이겠으나 게으름과 무사안일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이겠으나 노동자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이 개인적 이기주의로 매도되거나 획일적 평등주의로 짓밟

히지 않는 사회, 미래의 이상을 설계하나 현실의 최선을 쟁취할 줄 아는, 그리하여 다수 노동자가 인간적 사회주의자의 실천과 말을 진지하게 참고하고 스스로의 변화 모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사회 설계도를 만들어내어야만 한다.

이제 다수의 노동자 동지들이 투쟁을 통해 떨쳐 일어나고 있는 이때 노동해방꾼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공상에 가까운 설교문만을 고집해가 지고선 절대 그들 노동자 동지들과 결합할 수 없다.

우리는 전철 안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늘나라로 가자고 선전하는 미친 예수쟁이 놈을 보면, 제발이지 하늘나라는 고사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가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다수 승객들의 마음을 쉽게 읽을 수가 있다.

여러 승객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살겠다고 다리 아픈 거 짜증나는 거 참으면서 일보러 가는데, 난데없이 전혀 가능성도 없는 하늘나라나 가자고 하고 있으니 그 놈은 완전히 미친 놈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꿔 말해 다수 노동자가 수년 간의 투쟁을 통해 공공연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노동해방꾼이라는 사람들이 그 맨앞에는 못설망정 그들과 어깨조 차 못걸고 있는 처지의 사회주의라면 우리는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사회주의를 폐기해야만 한다.

문제는 그래서 그계 어쨌단 말인가를 다수 노동자 동지들에게 실천을 통해 설득해내는 일이며, 그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공허한 새 사회이고 결국엔 공상속의 사회일 뿐, 실현 가능한 새 사회가 아니다.

머리는 사회주의자인데 발은 조합주의자이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는 매우 치열하지만 결국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도 발로 뿔 생각을 안하는, 너트가 규격대로 안맞았다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지 자기 볼트를 선반에 물려 맞춰보려는 생각을 전혀 안하는 '규격품 애용자' 등등의 사고방식으로는 이제 더이상 안된다.

우리의 새 사회 설계도는 여전히 맑스, 레닌의 이론이 그 뼈대를 이룰 것이나 대부분의 구조물은 1990년 산(産)의 새로운 것들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들의 내장은,

자본가로부터 생산수단 일체를 빼앗는 것 말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소유시킴으로써만 노동자의 인간성이 존중되면서도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자본가의 반동을 제거하고 새사회로의 개조작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노동자가 확실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것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국가권력이 다시 소수 당관료들에 의해 지배되어 실제로는 다수 노동자가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국 사회는 맑스, 레닌의 어록에 나오는 자본주의 일반으로서의 사회도 아니지만 미국놈들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등등이 될 것이며,

쉬운 하나의 현실적 예로서,

노동자 주택문제의 해결은 모조리 몰수하여 모조리 임대주택으로 재분배되는 식의 말도 안되는, '아오지 탄광'을 연상케 하는 방식의 획일적인 해결책이 무슨 원칙의 이름을 뒤집어쓰고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이 투기의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의 기초적인 조치(예를 들면 독점재벌의 투기용 주택과 땅은 당연히 무상으로 몰수되어 임대주택으로 분양되는)와 함께 일부의 노동자가 열심히 산업·특근해서 모아 장만한 주택은 털끝하나 건드리지 않는 방식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거의 매일 술만 먹는 방탕한 노동자가 새사회를 맞이한다 해도, 정신차려서 술을 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에게 돌아갈 주택분양 순위는 형편없이 낮은 순위일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분양되는 방식은 노동자의 창의력을 해칠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결코 공평이 아니다.

새로운 사회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보장되는 사회이어야지 자유를 빙자한 나태와 게으름이 허용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

노동자가 해방된 미래의 사회는 현실의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지 현실의 다수 노동자 상식과는 별개의, 터무니없이 행복한 낙원이 아니다.

아울러서 '아오지 탄광'을 연상케 하는 방식의 무자비한 투쟁의 과정을, 노동자가 자본가의 착취적 손길을 절단해나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편협한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자본가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키우며 투쟁하는 것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민주주의적 단결과 인간적 결속력을 이루어낸다는 것이란 상정할 수 없겠지만, 자본가 타도를 위한 우리의 주요한 측면은 노동자 내부의 민주주의적 단결과 인간적 결속임이 틀림없다.

세계의 역사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약 7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차우셰스쿠로, 스탈린으로, 호네커로, 그리고 그에 뺄치는 사람들로 웅변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과, 노동자가 주인되는 것과,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공상적 사회주의와 인간적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스탈린주의는 무엇인가?

‘밀가루 총리’와 민중의 정치력

중공업 동지들에게.

사실이 사실대로 알려지고 특정 사건이나 일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지거나 또는 축소되는 것이 없는 사회와는 다르게 이 자본주의의 ‘다수에 대한 소수의 지배 사회’는 항상 사기와 기만, 그리고 과장과 축소가 지배자의 이익 여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운동을 올바르게 꾸려나갈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 뜻이 ‘그러므로 우리도 적당히 사기·기만을 전술적 차원에서 운용해야 한다’라고 해석되거나 받아들여져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노동운동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갖다붙인다 해도 그것은 곧 ‘사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배자들이 군사력과 돈과 법, 경찰 그리고 언론 등을 총동원하면서 벌이고 있는 온갖 여론조작과 공갈, 협박, 구속 등에 대응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정치력’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치력은 김대중

이나 박찬종 따위의 '정치적 술수'하고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술수란 결국 자기 개인만을 위한 행동에 다름아닙니다. 노동운동 지도부·동지들이 진정으로 갖추어야 할 '정치력'이란 항상 절대 다수의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현실적인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지배자 우위' 상태를 감안하여 제반 행동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충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는가를 눈치채셨겠지만, 금번 외대 학생들의 정원식 총리에 대한 폭행은 앞서 말한 '정치력'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습니다.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끼얹는 정도에 머물렀어야지 특정 개인에 대한 보복적 린치는 너무 나간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할라치면 맞을 놈은 참 많습니다. 정주영, 재벌사장, 회장들, 어용 학자들, 검사·판사 등등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테러리즘으로 노동자·민중의 해방이 앞당겨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혹한 대탄압의 빌미가 되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 정원식이 맞을만한가 아닌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현재의 지배계급과 피지배민중 간의 투쟁전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저들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민중의 분노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시원하다", "이길 것같다"), 아니면 (안기부의 불철주야 노력으로) '반인륜적 패륜아', '타락한 운동권'으로 매도되면서 그간 4·26 강경대동지의 죽음 이후 11명의 동지들이 죽어가며 일으켜온 약 한 달 반의 투쟁성과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는 않았는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운동이 대중의 분노와 정서를 무시하고 컴퓨터의 계산식같이 수행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해도, 우리는 금번 사건과 같이 순진한 감정으로 운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하거니와 두들기는 것 자체가

정당한가 아닌가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그것이 현운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과장·선전되어 뺨겨질 것이며 그 국민적 여파는 어떨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의 전열에 도움이 되는가 해악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의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항상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며, 그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는 운동가의 노력의 성과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들(자본주의의 구조 자체)이 마련한 것입니다. 분노만을 얘기하는 자는 어떤 면에선 게으른 운동가이며 '노동자 승리'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가는 그 분노를 승리의 관점에서 보며 또 조직한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일시적 패배를 궁극적 승리의 관점에서 이끄는 경우도 있으며, 그저 되는 대로 분풀이를 하며 운동을 망치는 예도 많습니다.

“동지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습니다. 저는 항상 동지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건투를!”

1991년 6월 10일

제5부

노동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 노동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 낙엽, 너는 아느냐!
——「90년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답하며
- 대우조선 노동자투쟁이 남긴 것
- 한 동료노동자에게
—— 진정한 노동해방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
- 노해에게

노동자 대중운동의 지도자가 모두 공장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현대중공업이나 통일산업 그리고 전국의 공장노동자투쟁의 최일선에 있다가 해고되거나 구속된 동지들은, 해고가 풀리고 복직이 되거나 구속이 풀리고 석방이 된다 해도 모두가 원래 소속공장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기에는 동지들의 선진적 경험들과 정치적 각성의 손실이 너무도 크며, 결과적으로 우리 노동자투쟁이 이루어낸 전체 정치적 성과의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어떤 동지는 “그게 다 어디가냐? 대중 속에서 발휘되면 더욱 좋은거지”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면적으로는 옳은 논리이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부실한 논리이다. 지난 수년 간의 노동자투쟁이 보여주는바, 매우 격렬하게 싸워긴했지만 결국 정치적으로 남긴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광주항쟁 이후 현정권에게 가장 격렬하고도 끈질기게 싸워오고 있으나, 놀랍게도 투쟁

* 민중당 건설 전국노동자추진위원회, 『노동자』, 통권 6호(1990. 9. 1), pp.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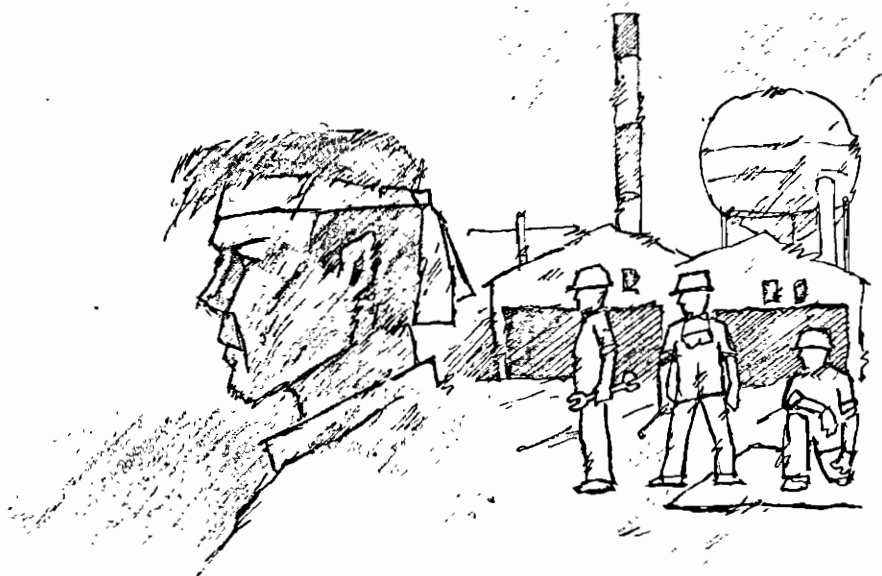
이 끝난 후에 공장 안으로 복귀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몸도 다시 공장으로, 의식도 다시 공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도가 정말 너무도 큰 것이다. 이를 두고 어느 한가한 사람은 “그렇게 공장 안팎을 드나들며 싸우다 보면 나중에 정치투쟁에 습관이 붙어 한판 승부로 나가게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현정권 역시 “자주 나와 싸우면서 혼나다 보면 다시는 안 나올 것이다”라는 의지를 갖고 노동자와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노동자의 대정권 투쟁력이 아직 왕성한 바로 지금, 노동자의 전진시기를 흡수하며 후퇴시기를 때우는 전문적인 정치조직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즉 전국의 대중적 노동운동 일선에서 단호한 투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수호하면서 다수 대중의 신뢰를 한몸에 받다가 현정권의 직접적인 탄압을 받아 해고되거나 구속된 동지들은, 이제 바로 그 정치적 탄압의 번지수에서 성장되고 단련된 만큼 상당 수의 동지들은 그 자리를 고수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정치투쟁의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올바른 투쟁과정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하다.

→ 첫째, 대중운동의 일선에서 다수 대중과 함께했던 투쟁 연속선상에서 조직해내지 못하고 혼자 달랑 떨어져 싸우다가 해고 또는 구속된 동지는 가급적이면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 더 대중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노동운동의 정치적 활동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지가 갖추어야 할 제1의 요건이 바로 ‘대중성’이기 때문이며, 그 훈련을 쌓고 또 그 훈련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해주는 것이 대중운동이기 때문이다. 관념적이고 급진적으로만 정치의식이 가득 찬 외톨이 노동자는 대중 속에서 외면당한 만큼 정치조직에서도 걸격자가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둘째, 대중적으로 그 지도성과 헌신성이 충분히 입증된 동지라 해도



그냥 자신의 결정으로 달랑 정치활동을 결정해서는 안된다. 최소한 자기 활동의 근거였던 조직 단위에서 다수 대중의 결정에 의한 ‘조직적 결정’으로 정치활동의 길을 선택해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대중적 노동자라 해도 회사로 볼 때는 않던 이 빠지는 격이 되며, 대중과의 연결이 구조적으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결합은 이후 활동을 제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중운동의 연장에서의 정치활동, 대중운동의 한 부분으로서의 정치활동, 대중운동과 굳게 연결된 정치활동이라는 노동자 정치활동의 기반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한 정치활동에 힘이 실릴 리가 없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인천의 대우중공업에서 근무하다가 85년에 해고되고 다시 89년에 복직된 한 동지가 메이데이 날 총회석상에서 복직포기 선언과 전문적인 정치활동 선언을 한 것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신선한 것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선언적인 독자적 정치활동으로의 진출 케이

스는 다시는 있어선 안될 아주 나쁜 대표적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과 정치활동이 그렇게 대중의 직접적인 의지와 떨어져서 수행되어야 할 이유와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세째, 이상의 사항이 지켜지는 선상에서 자신의 지도자를 전문적인 정치활동의 장으로 진출시키게 되는 새로운 지도부와 대중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과 연결을 확보하면서 자기 운동의 한 부분을 정치운동으로 진출시켜야 한다. 즉 해고와 구속으로 일개 공장의 틀을, 지역운동의 틀을, 노동조합운동의 틀을 뛰어넘는 선진적 동지들에게 차분한 마음으로 복직포기와 정치활동으로의 전진적 진출을 요구함과 동시에, 있는 힘을 다해 정치활동을 지원하고 정치활동과 전면적으로 연결할 것을 결의해주어야만 한다. 생활비 일체의 지급과 정치활동자금 지원, 해당 동지가 몸담게 될 정치조직과의 구조적인 활동과 내용의 연결 확보 등의 지원방안이 때로는 공공연하게, 때로는 비밀적으로 결의되어 실천되는 것으로 밑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고집하는 전망이 협소한 동지에게는 진정한 노동해방의 동지적 애정을 가득 담은 질책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

공장의 대중적 지도자가 해고되고 구속되면서 얻는 정치적 발전의 성과가 다시 이전의 협소한 틀에 의해 삼켜져버려서는 안된다.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투쟁의 성과이므로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 발휘되어야 한다.

공장의 노동자 동지들,

공장의 대중지도부는 노동운동의 과정에서 거쳐야 할 여러 과정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이상범 동지의 생각과 같이 단위공장 노조위원장 자리와 역할이 '갈데까지 다 간 끝'이라는 철학에 기초해서는 우리 노동자 모두에게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전망도 줄 수가 없다. 노동해방을

위한 진정한 선진적 노동자투시는 끊임없이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모색해나가는 동지이다.

자기가 위원장이 안되면 안된다는 앞뒤가 꼭막힌 한심한 철학에 갇힌 채로는 도저히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노동해방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그것은 한낱 희망사항에 불과한 일이다. 그러나 만약 이상범 위원장에게 손가락질하는 동지가 있다면 나는 그 동지에게 “지금까지 한 말은 바로 동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오”라고 말해주고 싶다.

지금 아직 해고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은 동지들은, 꼭 그래야만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다 해도 웬만하면 ‘구속된 우리 선봉의 동지들’을 다시 좁은 틀로 가두지 말고 더 큰 노동해방의 본격적인 장으로 힘있게 진출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단위공장 수준에서의 지도자가 항상 그 범위 수준에서 자기 자신의 장래(해고, 구속)를 걱정하며 투쟁의 수준과 자신의 운신 폭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는 관례를 힘차게 뛰어넘어야 한다. 구속의 다음 코스가 석방과 복직이라면 그 전체 과정은 손해도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겠지만, 구속의 다음 코스가 대중과의 강력한 연결 속에 정치적 진출로 이어진다면 해고나 구속은 결코 손해보는 코스가 아니라 운동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공장의 강력한 대중운동은 우리의 탁월한 노동자 정치활동가를 배출하는 산실이지, 해고되고 구속되어 얻은 정치적 각성과 발전과 능력을 잠식시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노동자의 강력한 대중운동 한복판에서조차 노동자의 유능한 정치일꾼을 배출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노동해방의 정치일꾼들을 배출한단 말인가?

낙엽, 너는 아느냐! *

— 「90년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답하며

가을!

이 가을바람에 낙엽이 뒹굴고 날리는 까닭은 낙엽이란 것이 원래 가벼기 때문이다.

90년 가을.

87년 7-8월 투쟁 이후 3년이 된 올해는 상당 수의 노조들이 집행부 선거를 치르는 해이다. 바로 이 90년 가을에 하릴없이 뒹구는 낙엽만큼이나 가벼운 운동평론가들이 수북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도 일개 상담소나 이름없는 노동잡지, 또는 저급한 복사리플렛 차원에서라도 아닌 민중당의 노동위원회 기관지에까지 낙엽이 뒹굴고 있다.

금번 「노동자」 9호에 실린 「90년 대공장 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제하의 글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은 한마디로 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

* 민중당 노동위원회, 「노동자」, 통권 11호(1990. 11. 16), pp. 28-31.

의 수준조차 갖추지 못한 무성의하며 조잡하기 그지없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여 이따위 조잡한 글이 '당'의 기관지에 실릴 수 있는지, 그리하여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운동이 국내외적인 곤란으로 인해 정체와 혼돈상태를 못벗어나고 있을 때엔 사람이 좀 진중한 맛이 있어야 한다. 그저 아무데나 설치대고 아무데나 대고 공허하기 그지없는 강령적 문구들을 치렁치렁 치장해주는 것에 의해서는 결코 현재의 '곤란'들이 제거되지 않는다. 더구나 일개 상담소나 이름없는 떠돌이 복사리플렛이 아닌 '당'이란 곳의 기관지에서 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1. 복잡다단한 현실에 착목해야

한 번 잠깐만 곰곰이 기억해보라. 이상범, 허관무 동지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낙엽같이 가벼운 동지들이 무책임하고도 홀로 들떠서 그 동지들을 칭찬해마지 않았었는가. 그때도 지금과 같이 단지 노조의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무슨 민주노조위원장님이니 뭐니 하며 한껏 추켜세우며 무슨 큰 변화라도 금방 물고올 것인양 가볍게 군 동지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는가?

전국적으로 노동자의 관심과 선망을 한몸에 받았던 신입위원장 동지들이 걸었던 길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한 가지 문제였다. 이상범, 허관무 동지가 대중의 요구와 역량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온갖 해괴한 이유들을 갖다붙였다면, 현대중공업 비상대책위원회의 세 명 지도부와 KBS 노조위원장은 대중투쟁의 발전이 비상한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자 그것을 도저히 감당치 못하고 경찰에게로 피신한 것이다.

자, 이로부터 몇 가지 명백해지는 것이 나온다.

문제는 민주노조위원장의 탄생이 아니라, 막상 민주노조위원장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맘같이 안되는 것이다. 잘할 것 같았는데 막상 지도부를 해보니까 대중의 요구를 거역해야 하고 대중투쟁의 수준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말이다. 민주노조 — 어용노조식의 이분법 논리라는 것은 전혀 현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민주노조위원장님이라고 추켜세우는 ‘공허한 지원’은 현실의 난감함을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음을 그들 위원장들은 뼈에 사무치도록 느꼈을 것이다. 아니 도움은커녕 그 반대였을 것이다. 괜히 사람만 얼르고 띄우는 바람에 진실로 현실의 어렵고 복잡함을 마주하며 누구보다 차분해야 할 사람을 그 반대로 유도했던 것이다.

이상범, 허관무, KBS위원장, 현대중공업의 세 명 지도부 등의 동지들이 대중의 요구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정열을 바쳐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과는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가면서 어떤 심정을 아프게 씹었겠는가를 우리는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그저 ‘지나간 기회주의자’라고 낙인찍어버리면 그만인 것이 결코 아닌 것이다. 그것을 분석·평가하여 거기로부터 교훈을 추출해내지 못하는 한 결코 앞으로의 전진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기회주의’라는 표면을 훨씬 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장 큰 문제의식이 정치권력과의 맞닥뜨림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대중 내부의 다양한 의견 편차가 두번째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비난하는 것은 ‘분석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며, 또 분석의 결과가 항상 드러난 현상과 동일하다면 의식적인 사람들의 활동이 설 자리는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드러나 있는 각종의 단순한 현상들에 비해 훨씬 복잡한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더구나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 현주소가

①노동해방운동이 단순한 구호 차원이 아닌 실제적 차원, 즉 강령적 조직체인 '당'의 권위와 실체가 대중 속에 뿌리내려진 상태가 아닌 점과, 그로 인하여 노동자대중 내부에 수많은 이념적, 실천적 혼돈이 내재해 있는 상태에 비추어볼 때 ②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반공 군사독재정권의 무자비한 폭력적 탄압이 1년 내내 횡행하는 정치적 한파 속에서 우리의 노동자·민중운동이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일개 공장에서 나타나는 희비극과 우여곡절의 배후에는 과연 얼마나 복잡한 사연들이 얽혀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상범·허관무 동지들이 걸어왔던 그 경과에 대한 올바른 분석·평가는 절대로 현대자동차 노조와 기아산업 노조 차원에서는 그 '전모'를 밝힐 수 없다.

사실 그래서 민중당도 하는 것 아닌가?

특히 현실의 대공장은 달리 대공장이 아니라 앞서 언급한 정치적 상관관계들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이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 역경 가운데 무엇이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는 바로 대공장에 대한 분석·평가로부터 그 가장 순수한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물론 그 순수한 형태가 '낙엽같은 식'의 것은 절대 아니다. 하다못해 「노동자」 9호의 권두칼럼에서 말하고 있는 코리아스페이스의 이교일 교육부장 말만 들어봐도 현실의 대공장 실정이 '낙엽의 의견'과는 금방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그럼 또 이교일 동지한테 '구시대 어찌구' 할텐가? 물론 이교일 동지의 말이 곧 '교시'는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현실의 대공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활동가가 겪고 있는 역경의 각 단면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올바른 운동가가 현실을 볼 때는 첫째, 위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다면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흐름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낙엽의 의견'에는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터무니없이 최근의 운동변화가 산별노조의 토대가 된다는 등, 반독점투쟁이 기치를 들 것이라는 등, 산업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하도 좌충우돌이 심한고로 다 예를 들 수조차 없다.

그러나 현실을 비교적 차분하게 알려주는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다.

「전국 노동자신문」의 창간기념호에 실린 전(前) 대우자동차 노동자이자 현재도 대우자동차 노동운동과 거의 한몸이 되어 있는 전희식 동지의 인천지역 대공장 노조위원장 교체의 '실상'에 대한 보고만 봐도 금방에 대공장에서 교체된 노조집행부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어느 정도 감잡을 수가 있다. 영창악기와 만도기계(안양)의 경우엔 미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측의 무더기 해고와 조합원 내부의 사무장 인준 거부 등의 시련을 맞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김민호씨가 그토록 칭찬해마지 않는 대우조선 백순환 위원장의 경우에도 그의 당선소감 인터뷰기사에서 그저 들떠 있기만 한 '낙엽'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다.

그리고 거제 민중당 위원장과 박동철 사무장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 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속이 뒤따랐다. 자 낙엽!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맞춰보라!

자고로 장기나 바둑은 두는 사람이 훈수꾼보다 더 실제적일 수밖에 없다.

2. 현재 대공장 노동운동의 과제는?

필자는 현금의 대공장의 노동운동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앞서의 이교일 동지의 지적과 같이 ① 기업별주의 ② 개량주의 ③ 이로 인한

대중 내부의 분열(절대로 지도자들의 차이로 보아선 안된다. 이미 여타의 차이는 대중이라는 토대의 차이로 되어 있다)로 본다. 당연히 필자는 현실의 대공장 상황을 낙엽같이 울긋불긋하게 보지 않으며, 주절주절 나열한 애로사항들에 별 의미를 느낄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각 개별 공장의 내부적 애로사항은 공장 외적인 힘들에 의해 더욱 큰 애로사항이 되어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다. 첫째, 우리 노동자운동에 노동해방이념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도 전에 세계 사회주의권의 대혼돈이 국내 지배자들의 이념공세 소재로 활용되면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세계 사회주의권의 혼돈이 한국 노동자의 이념과 방향의 혼돈이 분명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자들은 '거봐, 니네 생각이 망하고 있잖아' 식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대적인 이념공세는 특히 독점재벌 계열의 노동자에겐 아주 피부적이다. 노조간부들에 대한 공산권연수와 조합원들에 대한 사내교양을 통해 노동자 이념의 싹을 회색으로 물들이기에 열중이다. 어용세력에 이념적 무기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통 노동자 중에서도 가정과 자기 개인 신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툰 이념을 자기의 것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상황 위에 오늘의 우리 운동은 가로놓여져 있는 것이다. 세계가 요동치고 있으며 철옹성 북한마저 우리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이 거의 확실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유독 우리 노동자만 '앞만 보며 걸어가는 노동자'일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산별을 향해, 반독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데도 근거가 없는 말이며, '결국 노동자는 해방될 것이다' 수준 이상이 아니다.

둘째, 우리의 이교일 동지가 아주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대공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은 어떤 긍정적인 수준을 넘어 부정적인 문제까지 나타낼 수 있는 정도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 향상이 항상 유해한 개량주의를 유포시키는 것은 아니나, 문제는

개량주의의 문제가 현실의 실제적인 도전으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주로 거제의 노동자 실상에만 몰두해서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량주의 문제에 대한 분석 없이는 대공장사업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세울 수 없으며 또한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래 개량주의와 기업별주의는 필연적으로 동전의 양면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노동운동 실정 중에 특히 대공장의 실정은 그러하다. 대공장 노동자들은 불필요하고 피해만 극심한 연대투쟁이나 가두투쟁보다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주로 자기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에겐 죄의식이 없다. 기업별주의, 개량주의로 비판하지만 수천 수만의 경찰과 일대 전쟁을 치뤄야 하며 엄청난 희생을 치뤄야 하는 현실은 그 투쟁에 분명 도덕성, 투쟁성 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연성장적인 대중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노동운동의 큰 물꼬를 노동해방투쟁으로 유도해낼 수 있는 위력적인 '그 어떤' 영향과 가치들이 한심할 정도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본격적인 정치조직의 발전·성장에 대한 해명 없이(존재 없이) 노조위원장 교체만으로 강령적 해설이 가능하단 말인가?

자,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상범, 허관무 동지가 그토록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노동운동 일선에 등장했으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실망만 안겨준 배후에는 이러한 거간의 사정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어디 그 뿐이라, 우리 운동권의 분열상은 또 어떠한가? 자기들끼리 이전투구식의 싸움을 하다 못해 마구 공장안 동지들에게까지 이식시키는 것이 어디 한두 군데인가? 그 가장 나쁜 본보기가 바로 낙엽같은 동지들의 행태이다. 상황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진중하게 분석하고 끈질기게 노력



하기 보다는 먼저 '니꺼 내꺼'를 가르고, 또 그렇게 공허하게 갈라서 소유하려다보니 터무니없는 '과잉 칭찬'과 '과잉적 의미부여' 등 강령의 인플레이, 노동해방의 인플레이, 민주노조위원장 '님'의 인플레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수학적으로 볼 때나 운동역사로 볼 때 민주노조위원장 '님' 인플레이 현상=기회주의적 위원장 '놈'의 공식이 성립된다. 그들이 훌륭한 노동자를 영 몸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3. 글을 마치며

지금은 세계적인 격변과 그로부터의 한반도적 격변, 그리고 국내적인 정치적 격변 등이 일순간에 중첩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이다.

우리 한국의 노동자는 자기의 갈 길을 분명히 하기도 전에 혼돈을 먼저 맞이하고 있다. 지배자들은 참으로 감탄해마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탄압해오고 있으며 집요하게 노동자·민중운동을 질식시키고 있다.

전국에서 유력한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거의가 감옥 안에 있다. 그리고 수년 간에 걸친 독점자본의 경제적인 양보와 공세의 결과는, 이제 대공장 노동자들이 완전히 만족해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허리를 펼 정도는 되었다고 할만한 수준까지 왔다. 노동자들의 보수성과 만족도 그리고 안정희구 심리는 각 노조의 선거에서 뚜렷한 결과로서 드러나고 있다. 교체된 신임 위원장에 반대하는 명백한 어용 또는 보수적 후보에게 약 40-50%의 표가 던져지고 있다.

“이제 그 어떤 민주 또는 진보적 노조 집행부도 이러한 40-50%의 의식 집단을 적으로 규정한 채, 또는 주도적인 통합력 발휘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진보적 의지를 현실 속에서(공약 속에서가 아닌) ‘실현’시킬 수 없다.

운동은 이분법적 사고양식을 무덤으로 보낼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노동운동의 발전은 결코 노동조합이나 기업별 차원으로는 풀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위원장을 갈아서 노동해방, 개량주의 극복, 기업별주의 극복, 정치투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한여름 밤의 꿈이요, 가을바람에 훌쩍 날아가버릴 낙엽같은 꿈이다.

노동자대중의 자연성장적인 의지와는 관계 없이, 노동해방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우리의 운동이 실타래같이 꼬여가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 대중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과연 누구인가?

맑스가 1848년의 선언에서 이제 노동자의 조직적 강령으로 유령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민중당 역시 모든 ‘실체 없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발전을 ‘당’으로 대체하기 위해 조직되었지 않은가?

필자의 견해로는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은 90년 신규위원장들의 가슴과 말에 가날프게 매달려 있다기보다는, 이제 노조 그 자체로는 노동자의 정치적 진출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확실한 자각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부터 90년의 이러저러한 변화요소들을 조망할 수 있으며 의미부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운동의 특수한 이러저러한 사항들에 대한 문제는 그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하며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성과들을 보고하는 양식을 취해야 올바르다. 거기에 대한 무차별적인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공허하며, 헛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구체적 성과로 보고해야 정확하다.

지금, 이상법, 허관무 동지들에게 가볍게 돌을 던지는 자.

그들이 바로 2년 전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은 자.

그리고 2년 후에 또 그럴 자.

왜냐하면 그들은 가을만 되면 그저 바람부는 대로 날리는 낙엽같이 가볍기 때문에.

1990년 11월

대우조선 노동자투쟁이 남긴 것

김우중 회장의 세련된,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개별적인 이해가 (전체 자본가의 입장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적나라하게 관철된 한 판이었습니다. 남의 기업 비틀대는 데는 아랑곳없이 두 손 모아 기대를 걸었던 전국의 경쟁기업주들과 자본가 모두는, 갑자기 나타난 김회장의 결단을 보고 한편으론 놀랐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론 실망에 실망을 거듭했을 겁니다. 물론 노동부장관 최틀러야 말할 것도 없겠지요. 올해 임금인상투쟁 전반을 강성 드라이브로 끌고 가기 위해 아주 좋은 시범케이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판에 완전히 초를 치고 말았지요. 그가 섬기는 각하에게 보여줄 절호의 작품을 완성 일보직전에 망가뜨리게 된 셈입니다. 김우중 회장의 급거귀국은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며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작스런 사태의 반전 속에 있었던 우리의 대우조선 노동자나 노조는 어떠했습니까? 한 마디로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도 전에 자그마치 6개월치 썩이나 먹을

식량을 비축해놓은 골리앗에 올라간 노조 지도부는 이번의 전과정을 놓고 격심한 비판에 시달릴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조선의 2/3 정도에 달하는 조합원들은 금번의 타협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의였다 생각됩니다. 타결안의 요체는 상여금 협상에서 김회장이 획기적으로 양보했던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에 올라가고 연대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산을 댈 결과가 대우조선 노동자의 보너스 얼마 올리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만 것입니다. 대우조선 노조는 처음부터 전체 노동자의 이해를 걸고 투쟁에 돌입했다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해를 걸고 투쟁에 돌입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회의 간부 동지들(7명의 위원장급)의 구속에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지켜볼 차례입니다. 그들이 진정 선진적인가 아닌가는 이제 그 투쟁의 과제선상에서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자기를 밥그릇 넓히려는 대단호한 것이야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부추길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기업별주의는 어느날 갑자기, 어느 일순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집단적 이기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나 여타 민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노동조건에 상당 수 동지들이 안주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때 노동운동을 한다 해도 자기 소속의 대중의 직접적 이해(이익)를 완전히 초월하여 운동을 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다보면 영원히 '계급으로서의 더 큰 집단적' 이익 쟁취는 영영 글러먹은 일이 되고합니다.

제가 보기엔 금번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처음부터 상여금 문제의 해결 선상에서 단체협약투쟁을 위치지었어야 옳았다고 봅니다. 완전히 걸치장에 불과한 인사권 요구는 하려면 진실되게 하든지 안하려면 걸치장(무슨 전국적인 노동자의 요구인듯한——앞서가는 모범인양)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문제제기선상에서 쿨급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

자치제나 수서사건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헌정권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한 구속노동자 석방투쟁 등 실로 산적한 노동자의 정치적 실천 과제 모두를 외면한 채, (도대체 인사권 요구를 걸고 6개월씩이나 장기농성을 하려는 것이 온전한 사고방식인지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아마주어적이고 반정치적인 사고방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김회장에게는 가능한 타결이, 조합의 주도권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상여금 액수 때문입니까? 그럼 상여금을 김회장이 양보했다면, 앞으로는 적극 생산성향상에 협조하겠다는 언약을 준(물론 으레적이긴 하지만) 노조 지도부는 그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것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골리앗에까지 올라가고 해서, 그리고 김회장의 급거귀국으로까지 연결되어 타결을 본 상태에서 부대를 끌고 연대회의 7명 구속자 석방투쟁 대열에 적극 나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구속자 석방투쟁에 적극 동참하자고 하면 그런 투쟁노선을 현재의 조선 노동자 다수가 들어주겠습니까? 타결안에 만족을 보인 2/3의 조합원들이 과연 그 정치투쟁에 나서겠습니까? 맨처음 단추를 터무니없이 과격하게 출발하다보니까 막상 더 중요한 다음 단추부터는 적지 않은 부담만 더 안게 되고말았습니다. 즉 기업별 이익에 너무 단호하게(또한 너무 허구적인 의의부여) 대응하다 보니까 그 뒤에 따르는 부담을 미처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만 것입니다. 만약 지도부가 정부의 탄압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다 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며 애초의 사고방식이 범한 오류를 때꾸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도부가 대중과 격리되면서 구속되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중을 무계획적으로 끌고 다닌 사람이 대중의 무계획적이고 기업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선택하는 결정들을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부대의 투쟁과 실천을 전체 노동자, 민중의 이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끌고 인도해야만 깨져도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투, 단체협약투쟁, 근로조건 개선투쟁 등 모두는 “오로지 대중을 그쪽으로 인도해내기 위한 수단과 과정의 위치에 존재해야 합니다.” 임투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노동자의 정상적인 임금수준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자본주의 자체가 근본적으로 대수술되지 않는 한 노동자가 원하는, 노동자가 확보해야 할 임금 및 근로조건, 사회 전반적인 민주적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슴아픈 일이지만 노동자가 정치 권력을 스스로의 힘으로 장악하지 않는 한 그것은 결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저의 (모두가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장 소박한 소망은 그저 크게 신경 안쓰고 우리 예쁜 진혁이와 그리고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처와 다정하게 살면서 8시간 노동하는 선반기능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중공업 수준의 근로조건이라면 그냥그냥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대공장의 수준에 훨씬 미달되는 절대 다수의 근로조건에서 살라 한다면 저는 분명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하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의 대기업 노동자는 이 점을 실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계급이 존재함과 두 계층의 (절대 다수와 소수)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① 부대에 대한 대중적 통합력을 쥐고 (운동의 주도권이라는 측면) ② 부대를 전면적으로 그러나 세련되게 정치투쟁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1991년 2월

한 동료노동자에게 —진정한 노동해방일꾼이 갖추어야 할 것

동지들이 겪고 있는 난관과 고민들에 대해 간단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동지들이 실제로 겪고 있을 만큼의 정도로 감각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대강의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현실의 복잡함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굽히거나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고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지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지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항상 동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동지들, 저는 벌써 현실운동과 격리된 지 8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현실감각은 다소간 무더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지들의 고난과 투쟁소식을 신문과 잡지들을 통해 전해들으며 현실로부터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지들에 대한 저의 굳은 신뢰가 있기에 간간이 들려오는 동지들 동향이야말로 나의 정신을 이 철창을 뚫고 현실세계로 인도합니다. 사실 동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구체적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실운동을 전해들으며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껏해야 일반론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구체적 상황을 맞아 구체적 고민에 빠져 있는 동지들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약간의 간접적인 의미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동지들과 어려움을 같이한다는 의미를 담아 몇 자 적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의 우리 운동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는 더이상 현실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민중당 기관지 『노동자』 12호의 부친노협외의 사무차장(인민노련 경향의)의 말과 같이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운동이 복잡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 9호의 글에 대하여 비판한 11호의 글(이 책 pp. 222-31의 「낙엽, 너는 아느냐!」를 말함—편집자)에 대강 적혀 있습니다. 즉 저는 우리 노동자 해방의 문제를 곧 혁명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나라의 조건 속에서 우리 노동자·민중의 참된 해방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썩어도 보통 썩어문드러진 사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정의가 절대로 통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겐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조직폭력배와 강도, 도둑놈들이 판·검사, 국회의원과 한패거리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일입니다.

구사대가 단지 이름만 바꾼 깡패나부랭이들에 불과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며, 전국의 유력한 깡패조직들은 거의가 국가안전기획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노동자의 상식과 정의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가기관’ 자체입니다. 20만의 무장경찰과 60만의 군대, 그리고 사법부와 검찰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안기부가 이 모든 것을 조정·지휘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간부들과 노사문제를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과는 도대체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상식과는 거리가 먼 기만과 사기 그리고 반노동자적 사고방식에 아주 절어 있습니다. 그들을 대화로 바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 위치에서 그것을 사수하기 위한 ‘철학’에 절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동자·동료들간에도 도대체 말이 안통하고 터무니없는 논리가 횡행되는 것도 그 근원을 차분히 추적해보면 그 내막 한가운데는 항상 더러운 회사와의 관계가 도사리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노선차이라고 용인할 수 있는 의견차이 제외). 그러므로 그러한 동료들의 비뚤어진 사고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혁명적 변혁에 의해 마련될 강력한 권력을 통해 그 뿌리로부터 끄집어내 폭로해내기 전에는 항상 가리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그것을 확실히 가려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순진한 여러 사람들과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할 방법은 결코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은 가상하며 정의로우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써 그러한 ‘진실한 사람’들의 고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진실까지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다수 노동자·민중의 이익을 사수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강력한 힘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거나 노동자·민중의 이익은 아닐지라도 엄청난 권력과 부를 쥐고 있다면 그 힘 또한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람들의 양심마저 살 수 있으며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 200만 부 이상의 판매부수의 가진자 쪽 신문들이 자그마치 3개, 4개, 거기에도 다른 신문까지 합하면 거의 하루 1000만 부의 신문이 전체 민중의 생각을 매일 오른쪽(가진자들 쪽)으로만 틀고 있으며 TV 역시 그렇습니다. 노동자라 해서 그들의 대대적인 공세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TV 채널 중엔 왼쪽 채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동해방은 중심 문제를 감안하여 부차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야만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의 정치권력을 타도하고 우리 노동자의 혁명적인 권력을 세워내야만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몰상식을 척결하고 각 부분을 그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밀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자기가 소속된 곳 중심 또는 노조운동의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 등으로만 생각하고 바로 그 범위와 수준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민주와 어용으로 갈라세우는 것은, 그렇게 백날을 해봐도 저들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유지의 권력에 걸려 근본적인 전진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적은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라며 고리타분한 얘기를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놓고 돌아서서는 자기의 활동분야에 함몰되어갑니다. 즉, 막연한 상식으로만 되어 있을 뿐 현실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고려해놓는 상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진정으로 올바른 노동해방 일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사항 중의 그 절반은 앞에서 언급한 대강의 것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나머지 절반은 이른바 '대중성'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동지들이 그동안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확보한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진보적 대중의 토대 위에 굳건히 올라서는 것, 일부 극소수의 목소리만 높은 모험주의적인 집단이 결코 아닌 상당수의 진보적 대중의 지지와 후원 위에 올라서는 것, 비록 상당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는 하나 후진적이고 보수적인 대중의 모래알같은(개인주의적 이익에 기초한) 지지가 아닌 명백한 현실운동이 진보적 토대 위에 굳건히 자리잡는 것, 바로 그것은 그야말로 무수한 사람들의 '고난에

찬' 투쟁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코 1박 2일의 운동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다수 대중의 마음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표시하는 지지는 '절대로' 쉽게 확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동지들에 대한 진실하고도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무수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진리를 굳게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을 굳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들! 이제 우리는 그러한 확고한 대중적 토대 위에서 보다 계획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 해고되거나 구속되더라도 우리의 계획에 따라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즉 해고의 효과, 구속의 효과를 계산하며 박치기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운동하다 보면 저들의 마수와 폭력적 탄압에 걸려 운동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개피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계획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저 눈앞의 운동에만 질질 끌려다니다가 저들의 탄압과 공작에 걸려들어 순간순간 좌절에 빠져드는 운동은 이제 정정되어야(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 대중의 이익일지라도 운동의 연속성을 위해 정치·외교적으로(적당히) 굴 줄도 알아야 하며 또한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의 주체적 조건이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고(go)' 한다면 그것을 대중은 결코 보호해주지도, 또한 보호할 힘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으며 진보적 대중의 비난에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양심의 가책과 대중에 대한 진정한 책임의식을 '더 세련되고, 더 회사나 정부기관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힘으로' 구축해내는 데 각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대중운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

게도(기이하게도) 대중운동을 진정으로 혁명적 힘으로 끌고가는 사람은 대중이 다 아는 것 외의 '것'들을 철저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중에게 다 알려지고 또 드러나 있는 힘과 실천만으로는 저들의 탄압,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대중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중의 힘을 대중 자신도 어떤 때는 의식하지 못한 채 결코 혁명으로 가도록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노동해방 일꾼은 혁명으로 권력을 잡아 사회 전체를 속속들이 개조하는 사람입니다. 각자가 처한 각각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며 "근본적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진정하고도 완성된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오직 혁명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축성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며 운동의 현실적 후퇴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진보적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막 떠들어대고 그리고 또한 갑자기 혁명의 마음을 가지고 비장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가슴 한복판에만 확실하게 간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해, 그리고 현실의 운동 전체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러한 시각으로 보려는 기준을 세우고자 함이지, 그것을 밀도 끝도 없이 막 내밀어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놓고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작은 V벨트폴리 하나 정도는 대강 깎으면서 치수를 재어봐도 불량을 안내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랭크샤프트만 되어도 도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공고를 막 나온 친구한테는 도면을 주어도 선반으로 크랭크샤프트를 완성시켜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면 없이 백날, 천날을 해봐도 그것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도면을 가지고도 잘 안되겠지만 어차피 도면을 익히고 그에 따라 차분하게 깎아보는 수많은

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크랭크샤프트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노동해방투쟁은 크랭크샤프트 가공보다 더한 '엔진'의 생산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V플리도 필요하며 나사도 필요하지만 엔진이 실제로 돌아가는 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가공되어야만 합니다.

동지들, 오늘은 제가 다소 일반론적이거나, 최근의 우리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 대해 좀 적어보았습니다. 동지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구체적 현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수는 없겠으나, 이럴 때일수록 고난과 난관의 '고민과정'을 겪은 매듭으로 승화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때는 가볍게 가볍게, 그리고 되는 대로 운동을 해나가는 태도가 더 유해합니다. 부디 동지들과 함께 이 어려운 기간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들을 한층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큰 전망을 보며 깊이를 갖출 때,
 다가오는 혁명적 상황에 우리는 의연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고난과 후퇴의 시기에
 속으로 깊어지고 온 몸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우리야말로 혁명과 전진의 시기에 가장 적합한 운동가로서,
 그것을 한몸으로 끌어안고 단숨에 노동해방을 이루리라.

1990년 11월

노해에게

노해에게,

자네를 직접 본 지도 벌써 수년이 훌쩍 지나가버리고 말았네. 자네의 그 항상 어른스러움과 철저함, 그리고 우리 진주 누님의 부드러운 눈빛만 봐도 다사로움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더없이 안타깝기만 하네. 기평이, 이제 90년대를 열어제낀 그 첫해도 거의 마감되어가고 있네. 그런데 이 저물어가는 90년말의 우리나라 상업지들은 한결같이 자네와 자네의 신변에 관한 기사들을 놓고 앞을 다투어 신고 있네. 자네가 그토록 중요해마지 않는 자본주의적 상업심리가 자네의 의도와 의지와는 관계없는 일까지 끄집어내 그것을 자신들의 책을 팔아먹는 데 이용하고 있다네. 참으로 기가 막힌 장사꾼 심리를 절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거렁뱅이와 같은 가련함 또한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네. 얼마나 책 팔아먹는 데 정신이 팔렸으면 빨갱이의 신변 잡사까지 들추어

내 대서특필을 하나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그저 가련하다는 느낌이 다 들 정도이네. 그러나 자네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과 나는, 자네가 그따위 저급한 자본주의적 상업경쟁이 부풀리고 있는 상품화 책동에 결코 쉽사리 휩쓸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굳게 믿고 있네. 그리고 그렇게 편승하지 않으리라는 우리의 자네에 대한 신뢰 역시 자네가 충분히 알아차릴 줄 믿고 있네. 사실 나는 자네가 「노동해방문학」의 지면을 통해 벌여왔던 활동들이 반복되는 집요한 안기부 탄압에 눌러 중단되자 이를 곧바로 「신동아」 지면을 통해 활동의 공간을 창출해내는 것을 보고 그 기발함에 다시 한 번 자네의 그 프로다운 기질에 감탄한 바 있네. 나는 자네의 「신동아」 지면 상륙작전이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자를 하나의 정상인(?)으로 소개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음이 틀림없네. 이제 사회주의자 역시 그 많은 노조위 원장만큼 노동운동의 한 당사자로서 공공연하게 소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네가 알고 있는 상식이자 우리 모두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네. 사회주의자는 노동운동의 이단자 또는 노동조합운동의 미필적 고의의 훼방자라는 의식은 분명 걷어내어져야 한다고 보네. 스스로가 막연한 수준에서나마 맑스-레닌주의 또는 그와 유사한 맥락의 철학을 지닌 운동가로 자처하면서도 노동운동에 있어 분명한 하나의 '대안적 개념'이자 현실의 '실제적 개념'인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 무조건 대중추수적인 입장에만 서서 가볍게 배척해버린다면, 이제 그것은 결코 사려깊은 행동이라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네. 물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운동조건 위에선 그저 아무때나 또 어디에서나 노골적으로 사회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와 정반대로 그 어느때나 사회주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보네.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는 우리 사회의 각종 투쟁과 운동영역에 노력으로 개입함을 통해 공공연한 하나의 실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검증해나가

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네. 그것은 분명 그동안의 우리 운동이 성장해온 또다른 측면에서의 한 반영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이 수년간의 징역을 바치면서 ‘투자’한 데 대한 최소한의 소중한 ‘첫 회수분’이기도 하다고 보네.

사실 지금의 한국 법정에서 ‘그럼소,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했다 해서 깜짝 놀랄 사람은 이제 별로 없네, 그리고 모험주의적 행동이라 비판하는 근거도 그렇게 커다란 힘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종주국과 그 주변국들이 연신 비틀대며 스스로가 사회주의 자체를 공격하고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우리의 사회주의자가 뭐 그리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겠느냐 하는 심리가 깔려 있기도 하지만 말이네(철없는 극단적 이념을 좇는 사람을 관대하게 보아달라는 『동아일보』 사설).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사회주의란 이제 더이상 전설이 아니게 되었네. 아련한 기억의 빨갱이 전설을 되살려 공격하기보다는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현실의 사회주의를 공격하는 데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자들과, 스스로가 사회주의자임과 동시에 노동해방운동가임을 자처하는 수많은 동지들에 의해 이제 사회주의자는 명백한 하나의(그러나 아직은 미약한) 실체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보네. 그리고 거기에는 자네의 노력과 기여 역시 한 몫을 했음이 틀림없지만 말이네. 그러나 기평이, 우리 남한에 사회주의자가 정식으로 국민을 향해 공공연히 그 명함을 내민 것은 안타깝게도 민중당 창당대회장의 미처 생각지 못한 소란으로부터였네. 물론 그 이전에도 인민노련의 동지와 삼민동맹이 법정의 진술을 통해 정면으로 사회주의를 제기한 바 있었지만 전체 국민 대중을 향한 소개는 그날의 광경이 처음이었네. 기평이, 그날과 또 그 다음날의 전노협 집회에서 보여준 사노맹 동지들의 실천들은 결코 사회주의의 빛나는 대의와 노동해방의 대안으로서의 참된 모습이라기보다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네. 그것은

저들이 어린 국민학생 시절부터 즐기치게 세뇌시켜온 ‘낫들고 설치는 삭막함의 빨갱이’ 전설의 상을 부분적으로 상기하게 한, 너무도 메마른 행동이자 사노맹 동지들의 실책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보네. 우리 혁명적 사회주의자는 어느 뎡가는 낫보다 더한 것을 들고 역사의 낡은 장벽을 깨뜨려부숴야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간적 애정의 바탕 위에 떠 있는 조각배 정도의 행동이 아니겠나. 마찬가지로 참된 노동해방,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운동가(사회주의자를 비롯한)는 가차 없는 비타협적 사상투쟁을 통해 빛나간 경향에 일대 각성을 촉구하며 노동해방의 순수성을 옹호하기도 해야 하겠지만, 그것 역시 지난한 과정의 설득과 모범, 그리고 실천의 순환적 반복을 통한 ‘검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가 아닌가 생각하네. 기평이, 나는 자네에게 주제넘는 충고를 할 형편이 아니라고 보네. 그러나 진정한 노동해방, 인간해방의 사상과 원리에 자네가 조건 없이 동의한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신과 같은 위치, 무오류의 위치에 설 수 없다고 보는 데 쉽게 동의할 수 있다고 보며, 나의 문제의식 역시 자네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네. 나는 사실 자네를 비롯한 사노맹 동지들의 우리 운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식에 대해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네. 물론 나 역시 공자 제자 다루듯 말할 형편이 아니네만 우리는 이러한 상호 문제제기를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네. 우리 한 번 생각해보세. 지금의 우리 운동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사회주의를 배격하는 민주노조위원장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네. 사회주의가 활용할 수 있는 노동운동의 지평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것이 주요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회주의적 활동이 현실의 진보적인 노동자 대중운동에 제대로 착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우리 자신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보네. 그러므로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을 접어두고 그것과는 사뭇 다른 노동해방,

민중해방의 경로를 택하게 된 동지들도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네. 몇년 전의 우리 운동 양상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이 비밀적으로 자리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대중운동이 자리잡았던 이중적 구조였지만 이젠 그렇지 않네.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에 맞추어져 있지 않은 노동해방 노선도 여러 갈래로 존재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보네.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분명히 아니라 나름의 일정한 이해 위에서 의식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네. 이제 사회주의(또는 사회주의자) 역시 선언이나 선전의 차원을 넘고넘어 현실 운동의 실질적 영향력으로 등장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받고 있다고 보네. 극한적인 반공정책이 사회주의 문제를 한편으로 악마의 빨갱이상을 만들어낸 것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막연한 선망의 상징을 만들어냈던 시대적 상황은 이제 서서히 '낡은 것'이 되어 퇴장하고 있다고 보네(……).

노동자의 눈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시각 정립을 위하여!!

1. 거꾸로 선 경제, 바로 보는 경제학
이성태 지음 / 248면 / 3,500원
2. 다시, 노동해방의 깃발로 우뚝 서기 위하여
박윤배 지음 / 248면 / 3,500원
3.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근간

맑스·엔겔스·레닌의 저작들

- 신서 2 **반듀링론**
F. 엔겔스 지음 / 김민석 옮김 / 412면 / 5,500원
- 신서 7 **맑스·엔겔스의 노동조합이론**
이경숙 옮김 / 250면 / 3,300원
- 기획 1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
V. I. 레닌 지음 / 김우현 옮김 / 222면 / 3,000원
- 기획 10 **맑스 - 레닌주의 민족운동론**
V. I. 레닌 스탈린 외 / 강형민 편저 / 414면 / 5,000원
- 사회과학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문고 1 V. I. 레닌 지음 / 이경휘 편·해설 / 176면 / 2,000원
- 사회과학 **민중민주주의 경제론**
문고 2 -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1
V. I. 레닌 지음 / 백승욱 편·해설 / 232면 / 2,800원
- 사회과학 **신경제정책론**
문고 3 - 레닌의 노동자통제 및 국유화론 2
V. I. 레닌 지음 / 백승욱 편·해설 / 248면 / 3,200원
- 사회과학 **농업협동화론**
문고 6 - 레닌과 부하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V. I. 레닌의 지음 / 윤수홍 편·해설 / 근간
-

“.....나는 사회주의자이다.

아니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한 사회주의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 노동자이다.

지금부터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점을 미리 밝혀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놓지 않고 글을 쓰게 된다면

혹시라도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글에서 일관되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 참된 삶,

참된 의식의 기준이 바로 사회주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 본문 중에서

